화석의 나라

아나이 닌 지음
이 범 두 옮김

혜문서관

화석의 나라

Beauty's
Punishment

● 차 례

쾌락의 노예가 된 미녀

백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잠자던 미녀 공주 뷰티는 어느 날 한 왕자의 키스에 드디어 깨어났다. 그 순간 그녀는 전라의 자신의 육체가 그녀를 깨어나게 한 왕자의 지배하에 놓인 것을 깨달았다. 알몸인 채로 뷰티는 그 왕자의 쾌락의 노예로서 왕국으로 가길 요청받았다.

뷰티의 부모는 기꺼이 동의했고, 뷰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자를 향한 성적 욕망을 느끼며, 왕자의 어머니 엘리너 왕비의 궁전으로 갔다. 거기에는 수많은 전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있었고, 그녀 역시 그들 중의 하나가 되어 봉사해야만 했다. 그들 모두는 나중에 보상을 받아 자신들의 왕국으로 보내질 때까지는 그 궁전의 노리개 처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왕의 아름다운 노예 알렉스 왕자와의 은밀하고 금지된 사랑을 더 이상 가슴 속에 삭히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눈 밖에 난 노예들 틈에 끼어 있는 트리스탄 왕자의 모습을 본 후 뷰티는 견딜 수 없는 반항의 감정이 일었으며, 급기야는 트리스탄에게 내려진 벌과 똑같은 처벌을 자초하고 만다. 그리하여 육욕

의 궁전에서 쫓겨나 인근 마을에서 온갖 고된 노역을 하게 된다.
뷰티는 트리스탄 왕자와 총애를 잃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마차에 실려 긴 도로를 지나 마을 시장에 있는 경매장으로 끌려가는데…

▼
벌

벌거벗은 노예들을 가득 태운 거대한 나무 마차가 천천히 성의 도개교를 지나고 있었다. 샛별은 보라빛 하늘에서 시나브로 빛을 잃어 가고 있었다. 마차를 끄는 흰 말들은 굽은 길을 하염없이 뚜벅뚜벅 걸어갔고, 병사들은 높은 마차 바퀴에 바투 붙어 말을 몰았다. 울부짖는 노예 왕자와 공주들의 벌거벗은 다리와 엉덩이에 좀더 쉽게 가죽채찍을 휘두르기 위해서였다.

새벽빛을 가르며 어지러이 채찍이 가해지자, 노예들은 미친 듯이 거친 마차바닥 위 한군데로 몰렸다. 그들의 손은 목덜미에 묶여있고, 입에는 작은 가죽 재갈이 단단히 물려져 있었다. 공주들의 풍만한 가슴과 붉게 물든 엉덩이가 간헐적으로 꿈틀거렸다.

희미해진 성의 높은 탑들을 흘끗 되돌아보는 노예들의 시선마다 절망이 가득찼다. 이른 새벽,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복종을 잘하는 수많은 노예들은 성안 그들의 방 침대 위나 호화스러운 주인들의 비단 침실 속에서 아늑하게 잠들어 있을 것이다. 높게 쳐진 마차 난간에 기대어 마을 경매장을 향

해 흔들거리며 끌려가는, 저 돌이킬 수 없는 노예들을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크라운 왕자가 가장 사랑하던 노예 뷰티공주가 강인한 근육을 가진 트리스탄 왕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호송대장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흘렸다. 뷰티는 마차에 실려 경매장으로나 끌려갈 그런 노예가 아니었다. 길고 곧은 금발머리를 등 뒤로 축 늘어뜨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입은 재갈이 물려진 가죽조각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에게 입맞추려고 애쓰고 있었다. 호송대장은 다른 노예들처럼 목덜미에 두손이 묶인 채로 트리스탄이 어떻게 그녀의 간절한 요구를 위로해줄 수 있을까, 궁금해 했다.

그는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은근히 모른 척 넘겨버려야 할지. 당장 뷰티를 끌어내어 난간에 눕혀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선 가죽 채찍으로 그녀의 도톰하며 복종하지않는 작은 음부를 거칠게 때려주는 일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아마 트리스탄과 뷰티는 모든 노예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로 도로 위로 끌어내려져 채찍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호송대장은 사실, 유죄판결을 받은 그 노예들을 약간 동정했다. 비록 버릇은 없지만 의지가 강한 트리스탄과 뷰티까지도 어차피 정오까지 경매대 위에서 모두 팔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긴긴 여름내내 마을의 고달픈 고용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느껴야할 것이다.

호송대장은 마차 옆을 따라 달렸다. 그는 한구석에 웅크려앉아 신음소리와 함께 분비물을 흘리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공주를 잡아냈다. 이내 그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알몸을 휘감았다. 비명과 함께 그녀는 사지를 뒤틀었다. 검은 음모와 장미빛 음순이 얼핏

드러나자 호송대장의 채찍은 더욱 강해졌다. 곁에 있던 덩치 큰 한 왕자가 용감히 달려들어 그녀를 방어하려 하자, 가죽 채찍은 더 세게 그녀의 몸에 피멍을 남겼다. 호송대장은 씩 웃고나선, 이번엔 가죽 채찍으로 그 왕자를 내리쳤다. 그는 딱딱하고 몸부림치는 왕자의 성기를 보며 더욱 즐거워했다.

잘 훈련되어 유두가 팽팽하게 서있는 아름다운 공주들은 얼굴을 붉혔고, 왕자들은 발기된 성기를 감추려고 애썼다. 호송대장은 그들을 동정한 만큼 마을 사람들의 기쁨 또한 염두에 두지않을 수 없었다.

일년내내 마을 사람들은 이 날을 위해 돈을 모았다. 이 날이 되면 동전 몇 닢으로 긴긴 여름동안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를 한 명이라도 살 수 있었다. 그 노예들은 왕실용으로 선택되어 왕실용으로 훈련되고 몸치장을 했지만, 이제는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을 부른 비천한 부엌데기 하녀나 마부 소년에게라도 복종해야만 하는 신세였다.

그런데 이번 노예들은 얼마나 매혹적인 무리인가. 아담하게 살찐 사지에는 아직도 왕실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풍기고, 살결 구석구석까지 윤기있는 기름이 발라져 있었다. 그들은 결코 온갖 추파를 던지며 노예를 열망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왕께 바쳐지기 위해 단장된 것처럼 보였다.

신기료 장수, 여관주인, 상인들이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은 돈에 대한 댓가로 노예들을 호되게 부려먹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

마차는 울부짖는 노예들의 속울음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굴러갔다. 멀리 있는 성은 이제 하늘 한 끝에서 환해지는 배경으로 커다란 회색빛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그 거대한 쾌락의 정원은 성을 에워싸고 있는 높은 벽에 가리워졌다.

호송대장은 높게 아치모양을 이룬 마차 속의 아름다운 다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병사들의 채찍을 피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앞

난간으로 쏠리는 노예들의 겁에 질린 표정들을 즐기듯 호송대장은 미소를 지었다. 노예들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은 장난끼 섞인 갑작스런 매질에 꿈틀꿈틀하는 것뿐이며, 그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숙이며 발가벗은 궁둥이와 배를 또 다시 가죽 채찍의 찌르는 듯한 아픔에 노출시켰다.

그것은 그들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구경거리였으며, 어떤 운명이 그들 앞에 닥쳐오는지 알 수 없었기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었다. 왕실 노예들이 아무리 마을에 대한 사정을 많이 알고 있다해도, 그들은 결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면, 결코 여왕의 노여움을 사는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호송대장은 여름이 다 끝나기 전에, 처벌을 충분히 받고나면, 이 울부짖는 젊은 남녀들을 다시 데려가게 될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완전한 복종과 침묵으로 머리를 조아린 그들을 하나씩 데려다 여왕의 발끝에 입술을 대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는가. 지금은 그들을 그냥 울게 놓아두자고 호송대장은 생각했다.

태양이 구부러진 푸른 언덕 위에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차가 좀 더 빠르게 긴 도로를 달려 마을로 내려갈 때 그들의 몸이 뒤틀리고 서로 엉켜졌지만 호송대장은 그냥 내버려두었다. 예쁘고 작은 뷰티와 위풍당당한 젊은 트리스탄이 그 혼잡한 와중에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모른 척 넘겨두기로 했다. 그들은 곧 무엇을 자초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호송대장은 운이 좋으면 이번엔 경매장면을 보고 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니면, 적어도 뷰티와 트리스탄이 서로 떨어져, 합당한

값에 따라 경매장에서 뿔뿔이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머물게 될지 모르겠다.

뷰티와 트리스탄

"뷰티, 왜 그런 짓을 했오?"

트리스탄이 속삭였다.

"왜, 고의로 불복종을 했냐구? 이렇게 마을로 보내지길 원했오?"

흔들리는 마차 안 여기저기서 노예들의 절망에 찬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트리스탄은 입에 물려있는 가죽 재갈을 이리저리 움직여 헐겁게 풀고나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뷰티도 즉시 그를 따라 똑같이 했다. 혀를 놀려 가죽 재갈을 제거하고 그것을 홀가분하게 입밖으로 뱉아냈다.

결국 그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노예들이었다. 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다를 것은 없었다. 그들은 부모들에 의해 전라의 공물로 여왕께 바쳐진 몸들이었으며, 봉사하는 세월동안 복종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제 평민들에게 고역을 당하고 잔인하게 이용되도록 유죄판결을 받았다.

"왜, 뷰티?"

트리스탄은 뷰티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그녀의 열린 입을 덮으려하자, 뷰티는 발끝으로 서서 그의 키스를 받아드리려 애썼다. 살갗에 닿는 서로의 체온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손이 묶여있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뷰티는 마차 바닥에서 발을 떼어 트리스탄에게로 더 깊이 안겼다. 거의 트리스탄의 가슴께로 넘어져, 그를 올라타고 있는 듯했다. 가슴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고동이 병사들의 외침소리와 날카롭게 강타하는 가죽 채찍소리조차 아득히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호흡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영원히, 큰 바퀴가 달린 삐걱이는 나무마차가 있고, 비아냥거리는 호송병들이 있고, 굽은 언덕 위 창백한 하늘이 있고, 저 멀리 푸른 안개 속에 을씨년스럽게 누워 있는 마을에 대한 희미한 기대만이 남아있는 이 현실로부터 무거운 닻을 걷어올리고 자유로이 부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타오르는 태양도 없었고, 따가닥거리는 말발굽소리도 없었으며, 그녀의 쓰라린 엉덩이에 맞닿아 뭉개져 있는 다른 노예들의 사지도 없었다. 오직 고통에 찬 그녀의 온몸을 쪼개는 듯한, 잔인할 정도로 조용하지만 귀가 멍해지는 쾌락의 폭발만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이 마침내 활처럼 유연하게 휘어졌다. 두다리를 곧게 펴며, 유두에 닿는 트리스탄의 따스한 피부로 인해 그녀의 가슴은 더욱 고동쳤다. 그녀의 입이 트리스탄의 입속으로 깊이 깊이 빨려들었다.

아득한 황홀감 속에서, 뷰티는 트리스탄의 엉덩이가 어쩔수 없이 규칙적인 반복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가루처럼 온몸에 부서져 내리는 환희가 밀려왔다. 그 희열은 언제나 그녀가 알아왔던 인간성을 해체시켰다. 노예로서

성에서 봉사하도록 끌려온 뷰티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확실히 노예에 불과했다. 이 참기 힘든 쾌락을 배우게 된 곳도 바로 그 성 안에서였다.

그녀는 흥분되어 부드럽고 축축한 자신의 음부와 그녀를 들어올려 지탱시키고 있는 트리스탄의 단단해진 페니스 밖에 몰랐다. 트리스탄의 키스는 점점 부드럽고 달콤하고, 끈끈해져 갔다. 울고 있는 한 노예가 그녀의 등을 누르며, 뜨거운 살갗을 그녀에게 댔다. 또 하나의 따스한 몸이 그녀의 오른 편으로 밀착해 왔고, 비단결같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알몸을 쓸어내렸다.

"왜였지. 뷰티?"

트리스탄은 다시 속삭였다. 그의 입술은 아직 뷰티의 작은 입술에 닿아있었다.

"당신은 크라운 왕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부러 불복종했음에 틀림없어. 당신은 대단히 뛰어나고 많은 칭찬을 듣지않았오?"

트리스탄의 보라빛에 가까운 푸른 눈동자에 깊은 시름이 잠겨있었다. 그는 뷰티에게 자신의 내심을 감출 수 없었다.

트리스탄의 얼굴은 다른 보통사람보다 약간 더 컸고, 골격도 튼튼했다. 전체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인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매우 섬세한 편이었다. 목소리는 비록 나즈막했지만 뷰티의 주인이었던 사람보다 더 위엄이 있었고, 친근함이 있었다. 게다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그의 긴 속눈썹은 그의 매력을 더해주었다. 뷰티와 트리스탄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사람들처럼 다정히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뷰티는 트리스탄처럼 속삭이며 대답했다.

"확실히 내 자신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것은 의도

적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녀는 트리스탄의 가슴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이내 그의 젖꼭지를 찾아 양쪽에 키스한 다음, 하나씩 번갈아가며 세게 빨기 시작했다. 뷰티는 그의 성기가 다시 자기 몸을 향해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성 안에서의 일은 순전히 육욕적이었다. 부유한 왕실의 노리개감이 된다는 것, 냉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편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교하게 세공된 가죽 채찍들, 그리고 그 채찍에 파헤쳐진 상처들, 그녀를 종종 울리고 숨막히게 했던 엄격한 규율등 모두가 사람을 얼빠지게 했으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따스하고 짙은 향기 속의 목욕, 윤기나는 기름을 바르는 맛사지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임무와 시련들을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하게 했던 반수면의 시간들이었다.

그래, 그것은 무모하고 유혹적이면서도 때론 무섭기까지 했었다.

뷰티는 한편으로 신비롭기도 했지만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키가 큰 검은머리의 크라운 왕자를 좋아했었다. 또 예쁘게 손질한 금발의 줄리아나 부인도 좋아했었다. 특히 그 부인은 몹시 아름답고 달콤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대단한 고문 기술자들이었다.

왜, 뷰티는 그 모든 것을 내던져버렸던가? 불복종의 댓가로 마을 경매에 부치기로 판결난 노예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트리스탄을 보았을 때, 왜 그들과 같은 운명의 배를 타려고 불복종의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

그녀는 아직도 줄리아나 부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었다. "비참한 일이야.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경매가 시작될 거야. 너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

야. 마을 곳곳에서 모여든 거지들과 시골뜨기들조차 경매를 구경하러 올 것이다. 마을 전체가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들뜨겠지." 뷰티가 그런 고역을 스스로 짊어질 줄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크라운 왕자도 그녀에게 말했다. "아아! 난폭함과 잔인함만 없다면, 그것은 숭고한 벌인데..." 그들의 말이 과연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졌을까? 그녀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성으로부터 탈피하여 호된 매질 속의 굴욕과 경멸의 운명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기를 원했던가.

앞으로 마을에서 받게 될 벌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이제야 그녀는 가죽 채찍과 다른 온갖 매를 맞으며 어떻게 더 완전한 노예가 되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이상 그녀는 공주가 아니며, 트리스탄 역시 왕자는 아니리라. 그들을 움직이고 벌주게 될 거친 남자와 여자들은 매질을 할 때마다 항상 여왕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뷰티는 더이상 생각을 진전시킬 수 없었다. '그래, 그것은 고의적이었어.'

"트리스탄, 당신..."

뷰티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트리스탄을 쳐다보았다.

"당신도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나요? 일부러 당신 주인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냐구요?"

"그래요, 뷰티. 그러나 거기엔 긴 사연이 있오."

뷰티는 트리스탄의 눈 속에 잠겨진 걱정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스테판 경을 모셨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 년 전 다른나라에 있을 때 나는 스테판 경과 동등한 사이였어."

트리스탄의 큰 보라빛 푸른 눈이 모든 사물을 꿰뚫어볼 수 있으리만큼 빛났다. 입술에 슬픈 미소가 그려질 때 그의 모습은 어딘가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뷰티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얘기를 귀담아들었다.

태양이 완전히 언덕 위로 떠올랐다. 도로를 따라 갑자기 급회전한 마차는 내리막길을 달렸다. 길바닥이 고르지 못해선지 속도는 오히려 더 느려졌다. 심하게 흔들리는 노예들의 알몸이 서로 이리저리 부딪혔다.

"당신은 놀란 우리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겠지."

트리스탄이 말했다.

"우리가 그 성에서 주인과 노예로 다시 만났을 때, 여왕은 스테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것을 보고, 즉시 스테판이 몸소 나를 완벽하게 훈련시키라는 날카로운 지시와 함께 나를 그에게 인계 했을 때..."

"참을 수 없는 일이예요."

뷰티가 말했다.

"전에 그를 알았었고, 산책도 함께 하며 거리낌 없이 말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뷰티는 그녀의 모든 남녀 주인들이 자신들의 무력함과 취약점을 인식하면 전혀 낯선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인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기 전에 차라리 화려한 주인의 슬리퍼나 부츠의 색깔과 감촉, 그리고 목소리의 음조를 알고 있는 것이 나았다.

트리스탄은 다시 신비스런 미소를 지었다.

"내 생각에는 나보다 스테판이 더 곤란했을 것 같소."

뷰티의 귀에 대고 트리스탄은 계속 속삭였다.

"당신도 알다시피, 스테판과 내가 전에 큰 마상(馬上) 시합에서 만

나 서로 경쟁을 했는데, 모든 면에서 내가 그를 앞질렀오. 사냥을 나가도 내가 더 훌륭한 사수였고, 기수였지. 그는 나를 칭찬해 주었고 존경했었오. 나도 그런 그를 사랑했지. 왜냐면 모든 걸 떠나, 나는 그의 자존심과 사랑의 깊이를 잘 알고 있었오. 우리는 훌륭한 단짝이 되었고, 항상 내가 리더노릇을 했오."

트리스탄은 계속 말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왕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의무가 있었오. 사흘밤 동안 그와 나는 사랑을 했오. 아마 더 긴 시간이었는지도 몰라. 그 때 그는 어린애가 어른에게 대하듯 내게 복종을 잘했었지. 그런 다음 서로 헤어졌고 편지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오. 그나마 전쟁이 터지자 소식마저 두절되었오. 스테판의 왕국은 여왕의 왕국과 동맹을 맺었고, 나중에 여왕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쳤지. 그래서 나는 노예가 되었고 스테판과 나는 여왕의 성에서 이상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었오. 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덕망있는 주인에게 주어지길 기다리고 있었고, 여왕의 젊은 친척 스테판은 연회석상에서 그녀의 오른쪽에 말없이 앉아 있었오."

트리스탄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더 곤란했었을 거요.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 하지만 그를 보았을 때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어..."

뷰티는 트리스탄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을로 끌려간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때 마을은 그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방법이었나요?"

뷰티는 될수록 부드럽게 물었다.

"난 모르오. 거기엔 그것 이상의 뭔가가 틀림없이 있다는 점도 사실이오…"

트리스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내 당황한 사람처럼 다시 고백했다.

"당신이 꼭 알아야만 한다면…, 그래. 난 겁이 났오."

그러나 그의 말은 너무나 조용했고, 어딘지 뷰티가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마차는 길을 따라 하염없이 굴러갔다. 호송관들이 대장에게 어떤 명령을 받기 위해 앞으로 말을 달려 나갔다. 노예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그들은 모두 너무나 고분고분했고, 두려운 나머지 입에 문 가죽 재갈을 풀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마차가 끊임없이 천천히 움직여대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어두운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절망의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뷰티!"

트리스탄이 말했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서로 떨어지게 될 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오. 온순하게 행동하며 복종해요. 그것은 결국…"

트리스탄은 아무 확신도 없이 말을 멈췄다.

"성에 있을 때보다 더 나쁠 리는 없을 거요."

뷰티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트리스탄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거의 굳어 있었다. 아름다운 눈동자만이 경직된 표정을 상쇄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뷰티는 그의 턱에 자란 옅은 금빛 짧은 수염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그녀의 입술을 맞춰주고 싶었다.

"당신은 우리가 서로 헤어지게 된 후, 나에게 몇마디 말할 기회를 갖게만 되더라도 나를 찾아 계속 보호해줄 건가요?"

뷰티가 간절히 속삭였다.

"오, 당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하지만 트리스탄, 나는 착하게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이상 복종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트리스탄, 우린 노예에 불과해요."

"무슨 뜻이오?" 트리스탄이 물었다. "당신 말을 들으니, 당신이 무섭게 느껴지는군."

멀리서 왁자지껄한 함성이 들렸다. 낮은 언덕을 타고 그 소리는 무겁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마을 쪽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외쳐대는 소리였다.

뷰티는 트리스탄의 가슴에 자신의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트리스탄의 따스한 체온이 알몸을 타고 그녀에게 전해졌다. 뷰티는 두 다리 사이로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가슴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 트리스탄의 성기도 다시 발기되어 솟아올랐지만,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뷰티는 손이 묶여있어 그것을 만져줄 수도 없다는 것이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왔다.

트리스탄 역시 멀리서 함성이 점점 커져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차가 소리에 이끌리듯 속도를 내어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성에서 복종해야만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여왕과 왕자에게 공물로 보낼 때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나쁜 노예들이지요…"

"우리의 벌은 우리가 불복종한다면 더 심해질 거야."

트리스탄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그의 말을 배신하는 또 다른 뭔가가 감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 지 기다려봐야 하오." 트리스탄이 말했다. "기억해둬, 뷰티. 결국 그들이 우리를 이기고 말거요."

"트리스탄, 당신 스스로 이런 벌을 자초하고선, 이제와서 복종하겠다는 뜻이예요?"

뷰티는 울고있는 줄리아나 부인과 왕자를 성에 남겨놓고 떠나올 때처럼 가슴 속 아득한 전율을 느꼈다. '나는 아주 나쁜 계집이야, 그래.' 뷰티는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다.

"뷰티, 모든 것은 그들의 희망대로 될 거요. 의지가 강한 불복종의 노예들도 끝내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요. 현실을 똑바로 파악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는 일이오."

"그렇게 쉽게 복종을 결심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군요."

"당신은 끝까지 그들 앞에 저항할 용기가 있오?"

트리스탄이 그녀에게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즈막하고 절박했다. 트리스탄이 그녀에게 다시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목언저리에 와 닿는 그의 입김이 따스했다. 뷰티는 군중들의 함성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그 소리는 야수굴에서 기어나오는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섬뜩했다. 그녀의 나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뷰티, 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어."

두려움과 위협감을 주는 함성이 나는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트리스탄이 조용히 말했다. 환호와 외침의 대혼란을 이룬 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트리스탄의 보라빛 푸른 눈이 갑자기 강인한 왕자에게조차 두려움으로 여겨질 안광으로 빛났다.

"성에 있을 때도, 난 뛰라면 뛰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기라면 기는 것이 더 쉬웠오.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할 때, 거기에서 난 일종

의 어떤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지."

"트리스탄,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점점 더 모르겠어요."

트리스탄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뷰티는 말을 계속했다.

"왜 우리는 모두 나쁜 노예가 되어야 했나요."

반역적이고 용감하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며 뷰티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나신을 트리스탄에게 밀착시켰다.

경매시장

마침내 마차가 멈추었다. 뷰티는 묶인 하얀 팔과 헝클어진 머리가 뒤엉킨 사이로 간신히 마을을 훑어볼 수 있었다.

두터운 벽마다 설치된 대문은 모두 열려있고, 푸른 들판 위로 사람들은 더욱 많이 모여들었다. 가죽 채찍을 맞으며 노예들은 신속히 마차에서 내려 들판 위에 모두 집합하였다. 우왕좌왕 하는 사이, 뷰티는 트리스탄과 떨어졌다. 변덕이 심한 한 호송관이 트리스탄을 채찍으로 거칠게 몰아쳤다.

재갈이 다른 노예들의 입에서도 모두 풀어졌다.

"조용히 해."

호송대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마을에서 노예들은 말을 하면 안된다. 말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더 잔인한 맛을 본 다음 재갈이 물려질 것이다."

호송대장은 말에 탄 채 노예들의 주위를 돌면서, 그들을 한 곳으로 밀집시켰다. 그리고 묶은 손을 풀고 목덜미에서 손을 내리는 노예는 용서치 않겠다고 윽박질렀다.

"마을 사람들은 너희들의 건방진 목소리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짐을 짊어진 짐승에 불과하다. 그 짐이 노역이건 쾌락이건간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계속 손을 목에 대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멍에를 쓰고 연장을 달고 밭을 갈아야 하는 지독한 노역으로 이용할 테다."

뷰티는 심하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앞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이젠 트리스탄의 모습도 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주위엔 바람에 마구 날리는 긴 머리카락과, 푹 꺾은 머리통, 그리고 눈물뿐이었다. 재갈이 풀려진 노예들은 울음을 감추기 위해 나즉이 흐느껴야 했고, 그들은 자꾸 벌어지는 입을 꽉 다물려고 안간힘을 썼다. 호송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혹하리 만큼 날카로왔다.

"움직여! 머리를 쳐들어!"

호송관들의 거친 명령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뒤쪽 어딘가에 있었다. '그가 가까이 곁으로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벌써 트리스탄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노예들은 이렇게 먼 곳까지 쫓겨와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마차는 무정히 되돌아 갔는가.'

자신을 포함한 노예들이 시장으로 끌려가는 거위떼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거의 동시에, 말을 탄 호송관들이 노예들을 덮쳐, 채찍을 마구 휘두르며 출발을 종용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해, 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뷰티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거의 뛰다시피 걸어가야 했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채찍이 당장이라도 그녀의 알몸을 휘감아 길바닥으로 날려보낼 듯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갔다.

"빨리, 더 빨리, 머리를 들어."

허공을 가르는 채찍소리와 함께 호송관들이 소리쳤다. 바로 옆을 지나는 거친 말발굽을 보았을 때, 뷰티는 전에 성안 승마길에서 채찍으로 넓적다리와 장딴지를 얻어맞을 때와 똑같은 전율을 느꼈다. 정신없이 뛰면서도 그녀는 젖무덤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묵직한 고통이 온몸을 타고내리는 아픔을 참아야 했다.

뷰티는 군중들을 확실히 볼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마을 사람들이 노예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 밖으로 물밀듯이 쏟아져나왔다. '우리가 저 인파 속으로 끌려가야 하다니. 오,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뷰티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가 마차 안에서 품었던 불복종의 결심마저 산산히 부서져내렸다. 그녀는 너무나 무서웠다. 가능한 한 빨리 마을을 향해 도로를 달렸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채찍은 언제나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제 노예들의 맨첫줄로 밀치고 들어가 뛰고 있었다. 이젠 더이상 그녀를 거대한 군중으로부터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깃발이 흉벽 위에서 펄럭였다. 노예들이 점점 가까이 오자 군중은 팔을 흔들면서 미친 듯 환호했다. 뷰티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나를 보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구나."

그녀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트리스탄은 어디에 있지? 왜 나는 저 무리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달아날 수는 없을까?' 그러나 그녀가 주춤거리자마자 채찍이 등짝을 내리갈겼다. 눈을 부릅뜬 호송관이 앞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정신없이 휘둘러대는 채찍이 뷰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퍼부어졌다. 오른쪽에 있던 빨간 머리의 작은 여자가 애처로이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어떤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막막했다. 작은 여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흐느꼈다. 피부가 거무튀튀하고 머리가 검은 남자가 그녀를 위로해주기

는 커녕 경고의 눈초리를 주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고통만 더 할 뿐이야."

뷰티는 왕자의 왕국으로 향하던 길고 고된 여정을 다시 떠올렸다. 어떻게 왕자가 그녀를 마을로 통과해서 데리고 갔는지, 거기서 그녀는 왕자의 선택된 노예로서 얼마나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는가. 하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랐다.

노예들이 마을 관문에 가까이 다가들자 군중들은 그들에게 길을 내주며 양옆으로 퍼져나갔다. 뷰티는 공들여 만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나막신을 신은 여자들과 생가죽 부츠를 신고 가죽으로 된 소매없는 짧은 상의를 입은 남자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눈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번들거렸다. 더구나 남자들의 얼굴은 두렵게 느껴지리만큼 강건했다. 그녀는 그런 광경에 놀라 숨이 막혔고, 눈을 감으며 고개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노예들은 막 마을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트럼펫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군중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만지고 밀고, 머리를 끌어당기려고 아우성을 치며 손을 뻗쳤다. 뷰티는 불쑥 나타난 손바닥이 거칠게 그녀의 얼굴을 문지르는 것을 느꼈다. 넓적다리까지 그들의 손이 다가와 철썩철썩 때려오곤 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조롱섞인 웃음소리, 환호와 감탄,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귓속으로 정신없이 파고들었다.

눈물이 뷰티의 얼굴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의식할 수 없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무로 만든 높고 좁은 집들이 시장터를 에워싸고 빽빽히 들어서 있었다. 꼭대기에 교수대가 있는 높은 목재 연단 하나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문과 발코니로 나와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제치며 환호했고, 광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비참한 노예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

까이 접근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노예들은 연단 뒤에 설치된 우리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뷰티는 연단 위로 통하는 흔들흔들한 나무계단과 교수대 위에 매달려 있는 긴 가죽 채찍을 보았다. 건장한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그 옆에 버티고 서 있었다. 또 한번 트럼펫 소리가 울려퍼지자, 노예 우리의 문이 닫혔다. 군중들이 우르르 주위를 에워쌌다. 우리에는 단지 가늘고 긴 판자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손은 울타리를 뚫고 노예들의 몸을 마구 만져댔다. 뷰티의 엉덩이가 꼬집히고, 긴 머리가 거칠게 잡아당겨졌다.

그녀는 트리스탄을 찾으러 필사적으로 밀치며 가운데로 들어갔다. 나무계단 아랫쪽으로 난폭하게 끌려가는 트리스탄의 모습이 얼핏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안돼. 나도 그와 함께 팔려가야 해."

그녀는 소리치며 앞으로 거칠게 밀치고 나갔다. 그러나 한 호송관이 그녀를 붙잡아 다시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군중들의 아우성은 여전히 요란스러웠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빨간머리 여자는 이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뷰티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숨겨주기라도 하듯 꼭 껴안아 주었다. 그녀는 아주 큰 분홍빛 유두가 달린 아름답고 풍만한 가슴을 갖고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붉은 머리칼이 흘러내렸다. 의전관이 모든 준비를 끝내자, 군중들은 다시 환호를 터뜨렸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뷰티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결코 성에 있을 때와 상황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는 좀더 심한 벌을 받으며 복종하도록 길들여지겠죠 뭐."

"아니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호송관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킬까봐 그녀는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속삭였다.

터질듯이 요란한 트럼펫 소리가 세번째 울려퍼졌다. 연속적으로 길게 메아리치는 그 소리에 갑자기 군중들은 조용해졌다. 광장을 불안하게 채우고 있던 침묵을 깨고, 한사람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나왔다.

"자, 이제부터 봄철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군중들은 환호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하고, 놀라서 뷰티는 스스로 숨쉬고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다. 떨리는 자신의 가슴을 의식하자, 그녀는 더욱 두려워졌다. 주위의 군중들을 쭉 훑어보았다. 그녀의 나체를 보면서 뭐라 속삭이는 사람들의 입술과 미소가 그녀의 시야에 갑자기 확대되어 다가왔다.

남자노예들은 호송관들에게 더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가죽 채찍으로 그들의 드러난 성기를 때리고, 차렷자세를 시켜놓고 손으로 고환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예들에게는 즉시 매질이 끔찍하게 가해졌다. 트리스탄의 등이 뷰티 쪽으로 향해 있었다. 뷰티는 호송관이 트리스탄의 다리 사이를 거칠게 문지르며 희롱하고 있을 때, 단단한 그의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을 볼 수 있었다. 트리스탄의 그런 모습에 그녀는 그와 은근히 정사를 벌인 지난 일을 아프게 후회했다. 그가 차렷자세를 취하지 않고 반항한다면 그 처벌은 오직 그녀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경매 시작을 선포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모두들 경매의 원칙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비로운 여왕 폐하께서 힘든 노동에 이용하라고 보내주신 이 버릇없는 노예들은 이제 합당한 값에 새로운 영주와 주인들에게 삼 개월 동안 팔리게 될 겁니다. 이 비천한 노예들은 또 주인이 허락한다면 언제나 벌받는 장소에

끌려나와 자신들의 마음을 개선할 뿐 아니라, 군중들의 즐거움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트리스탄을 희롱하던 호송관이 그에게서 떨어졌다. 떨어지면서도 그는 장난을 치듯이 채찍으로 트리스탄을 때리며 미소를 지었다. 연단 위에선 의전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여러분은 이제 이 노예들에게 일을 시켜야 할 엄숙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의 불복종을 조금이라도 묵인하면 안되고, 결코 사소한 무례까지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마을 안에선 자기의 노예를 언제라도 원하는 값에 맘대로 팔 수 있습니다."

빨간머리 여자의 드러난 가슴이 뷰티에게 밀착되어왔다. 뷰티는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려고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다리 사이의 촘촘하고 빳빳한 그녀의 음모가 뷰티에게 느껴졌다. 축축하면서도 열기가 있었다.

"울지말아요."

뷰티는 그녀를 위로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난 완벽해질 거예요. 정말 완벽한 복종을 할 거예요."

그녀는 겁에 질려 말하면서 또 흐느껴 울었다.

"어쩌다 복종을 하지 않았어요?"

뷰티는 빠르게 그녀의 귀에다 속삭였다.

"난 몰라요."

그녀는 푸른 눈을 크게 뜨면서 계속 울었다.

"난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불쌍하게 울기만 했다. 연단 위엔 의전관의 연설이 계속되었다.

"여러분이 이 비천한 노예들을 벌줄 때마다 여왕 폐하의 명을 받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요. 여러분이 때리면 그건 폐하의 손으로 때리는 것이며, 여러분이 꾸짖으면 그건 폐하의 입술로 꾸짖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중앙훈련소로 보내져야 합니다. 노예들을 잘 먹여야 하고, 수면시간도 주어야 하고, 또한 항상 심한 채찍질을 당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무례함이나 반역은 특히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펫소리가 다시 크게 울렸다.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대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댔다. 울타리 너머로 몸을 굽히며 한 젊은이가 빨간 머리 여자의 넓적다리를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곁에 있던 호송관이 다가와 그 남자를 좋은 소리로 꾸짖고나서, 이내 자기의 손을 그 여자의 축축한 음부 밑으로 슬쩍 밀어넣었다.

트리스탄이 연단 위로 끌려올라갔다. 머리를 높게 쳐들고, 손은 목덜미에 묶여진 채였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쩐지 위엄이 있었다.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호송관들이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 높은 교수대와 거기에 매달린 가죽 고리 밑으로 둥근 회전판이 있는 것을 뷰티는 처음으로 보았다. 그 위에서 푸른 우단으로 된 조끼를 입은 키가 크고 으시시한 사내가 트리스탄을 강제로 올려놓았다. 그는 트리스탄의 두 다리를 툭툭 차 다리를 쫙 벌리고 서 있게 했다. 트리스탄을 마치 가장 간단한 명령도 수행하지 못하는 노예처럼 취급했다.

"트리스탄이 동물처럼 취급 당하고 있어."

그를 쳐다보면서 뷰티는 중얼거렸다.

뒤에서 한 경매인이 페달을 돌리자 회전판 위의 트리스탄이 빠르게 빙글빙글 돌아갔다. 뷰티는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과 금발머리, 그리

고 거의 감겨진 푸른 눈을 쳐다보았다. 땀이 그의 단단한 가슴과 배 위로 번들거리며 흘러내렸다. 호송관들이 원했던 대로 그의 성기는 충분히 크고 굵었다. 너무 넓게 벌어져 있어선지 긴장한 그의 두다리가 떨렸다.

욕망이 뷰티의 내부에서 꿈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트리스탄을 동정하면서도, 뷰티는 그녀의 신체기관들이 부풀어오르고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고동치는 욕망을 느꼈다. 그러면서 또한 끔찍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나를 저들 앞에 저렇게 홀로 서 있게 할 순 없어. 이토록 비참하게 팔려갈 수는 없어, 없단 말이야.'

사방에서 큰소리로 외치며 경매가 시작되었다. 회전판이 돌아갈수록 트리스탄의 모습이 점점 보잘 것 없이 보였다.

"예외적으로 튼튼한 노예요."

의전관의 목소리보다 훨씬 높고 굵직한 경매인의 외침이 왁자지껄한 대화 속을 파고들었다.

"사지가 길지만 튼튼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 일을 시키기에 안성마춤이고, 밭노동이나 마구간 일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뷰티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며 주춤거렸다. 경매인은 보통 채찍보다 더 탄력있고 긴 가죽 채찍을 손에 들고 트리스탄의 성기를 찰싹찰싹 때렸다.

"강하고 세심한 기관, 서비스도 잘하고 인내력도 대단한 노예요."

광장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쿡쿡 튀어나왔다. 경매인이 트리스탄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아래로 잡아당기자 허리가 휘청 꺾였다. 허리를 굽혀놓은 채 회전판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훌륭한 엉덩이요."

경매인이 소리치며 채찍을 다시 휘둘렀다. 트리스탄의 피부에 시뻘건 채찍 자국이 새겨졌다.

"탄력있고, 또한 부드러운 노예요."

손가락으로 그의 살을 여기저기 찌르며 경매인이 계속 소리쳤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이며, 열심히 복종할 노예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보세요."

뷰티는 비참한 트리스탄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노예입니다. 자, 이제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입찰가를 불렀다. 입찰가가 불려지기 무섭게 더 높은 가격이 쏟아져나왔다. 가까운 발코니에 앉아 있던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입찰가를 불렀다.

뷰티는 저들이 그렇게 대단한 부자들이라는 것에 의아해 했다. 폐하를 위해 일하는 직조공들, 염색업자들과 은세공자, 누구든 노예들을 살 수 있었다. 심지어 투박하고 지저분한 앞치마를 두른 촌스러운 부인까지도 푸줏간 문턱에 서서 입찰가를 외쳐대고 있었다.

회전판은 천천히 끊임없이 돌아갔고, 경매인은 적당한 언변을 섞어가며 경매가를 자꾸 치솟게 만들었다. 그가 막대기로 트리스탄의 엉덩이를 이리저리 찔러보고, 항문을 쑤셔도, 트리스탄은 얼굴을 무섭게 붉히며 자신의 불행을 토로할 뿐 조용히 순종하고 있었다. 갑자기 광장 맨 뒷쪽에서 현격한 차이로 다른 입찰가를 앞지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렸다. 뷰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발끝으로 쭈뼛 섰다. 한 남자가 연단 앞으로 뛰어나왔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흰머리에 비해 그렇게 늙어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그 머리는 그에게 정연하고 평화로운 특별한 아름다움을 풍기게 했다.

"정말, 여왕의 연대기 편찬자께서 이 건장하고 젊은 종마를 원하십니까?"

경매인이 소리쳤다.

"자, 이보다 더 쓰실 분 없습니까? 이 훌륭한 왕자를 사실 분은 더 쓰시오. 자, 어서, 어서요. 틀림없이… "

또 한사람이 입찰가를 외쳤다. 그러나 곧바로 연대기 편찬자는 더 높게 입찰가를 매겼다. 너무나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에 뷰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가 부른 입찰가는 너무나 높아서 다른 경쟁자들은 손을 들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자, 팔렸습니다."

경매인은 마침내 큰소리로 외쳤다.

"여왕의 연대기 편찬자이시며 일등 역사가이신 니콜라스 경에게 거액 금화 스물다섯닢에 팔렸습니다."

뷰티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을 때, 트리스탄은 연단에서 계단 아래로 끌려내려와 그 연대기 편찬자에게 맡겨졌다. 그는 침착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으며 트리스탄을 조용히 검사했다. 그리고나서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트리스탄에게 광장을 빠져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총총걸음으로 앞장서 걸었다. 군중들은 그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트리스탄을 향하여 떠밀고 욕해댔다. 망연히 끌려가는 트리스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뷰티는 갑자기 머리채를 움켜쥐는 손길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제 그녀가 팔려갈 차례였다.

경매대에 선 뷰티

'안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 뷰티는 마음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지만, 채찍이 그녀의 알몸을 사정없이 휘감자, 이내 두다리를 접으며 주저앉았다. 연단의 회전판까지 끌려온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반항하고 불복종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사방에서 팔을 쳐든 군중들이 뷰티의 앞에서 허옇게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고 있었다. 작은 꼬마들까지 더 잘 보려고 껑충껑충 뛰며 법석을 떨었다.

뷰티는 금방이라도 무거운 마음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 했다. 부드러운 생가죽 장화를 신은 경매인이 발로 차서 그녀의 두다리를 벌려 세웠다. 그녀는 몸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가슴 속으로 소리죽여 흐느끼며 떨었다.

"아름답고 젊은 공주요."

경매인이 소리치며 갑자기 회전판을 돌리자 뷰티는 거의 앞으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수천명의 군중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그것도

모자라 창문과 발코니로 고개를 내밀었다. 흉벽을 따라 병사들이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도 그녀의 흐린 시야에 들어왔다.

"금실 같은 머리카락과 잘 익은 앞가슴이요."

경매인은 그녀를 팔로 거칠게 끌어안으며 가슴을 꽉 눌러도보고 젖꼭지를 살짝 꼬집어보기도 했다. 꼭 다문 입술 속으로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편으론 가슴 밑바닥에서 욕망이 조금씩 격동함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경매인이 트리스탄이 했던 것처럼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뷰티의 허리는 트리스탄이 했던 대로 아래로 굽혀졌다. 그녀의 유방이 밑으로 쳐지고,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뷰티는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흥분을 느꼈다. 다시 가죽 채찍이 드러난 그녀의 엉덩이에 가해지자 군중들의 환호는 더욱 높아졌다. 경매인이 그녀의 얼굴을 앞으로 들어올리자 박수와 웃음소리가 환호성 속에 섞여 들려왔다. 계속 허리를 구부린 채 뷰티는 회전판과 함께 빙글빙글 돌았다.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훌륭한 집안에 잘 어울릴 겁니다. 누가 이 이쁜이를 밭에다 내다놓겠습니까."

"아니요, 그 노예는 밭에서 일을 시켜야 하오."

누군가가 군중 속에서 외치자, 더 큰 환호와 함께 웃음이 터져나왔다. 경매인이 채찍으로 다시 그녀를 때리자, 뷰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꽉 틀어막았다. 턱을 하늘로 향하게 쳐들며 거칠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뷰티는 참고 서 있어야만 했다. 갑자기 그녀의 음부 속으로 가죽으로 싼 막대기가 들어왔다.

"오, 안돼. 그것만은... "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그곳은 축축한 분비물로 적셔지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선 그 막대기를 더

세게 문질러주기를 갈망했지만, 그녀는 꿈틀거리며 막대기로부터 몸을 빼냈다. 군중들은 열광하고 있었다. 그녀는 엉덩이를 뒤틀며 경매인의 희롱에서 벗어나려했던 동작이 저속하고 선정적이었다는 것을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깨달았다.

경매인이 다시 막대기를 축축하고 뜨거운 뷰티의 그곳에 찔러넣었다.

"고상하고 우아한 아가씨요. 귀부인이나 귀족의 유희감으로 적합합니다."

경매인이 소리치자, 더 많은 박수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뷰티는 자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성에 살 때도 결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나신을 노출시킨 적이 없었다. 경매인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리자, 허공에 둥실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가죽 채찍이 다시 그녀의 무기력한 종아리와 허벅지에 감기는 것을 느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뷰티는 속수무책 그의 손에 맡겨졌다. 모든 통제기능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비되었다. 꽉 다문 이빨로 비명을 뱉어내며, 미친 듯이 발버둥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가죽 채찍이 그녀의 음부를 때리며 핥고 지나갈수록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환호하는 소리도, 비명소리도 이젠 그녀의 귓속에 멍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뷰티는 자신이 고통을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떨쳐버리려 발버둥치고 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거친 호흡과 흐느낌을 섞어 입술 아래로 흘렸다. 그리고 뷰티는 지금 자기의 행동이 바로 구경꾼들이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모습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군중들은 트리스탄에게서보다 그녀에게서 더 많은 구경거리를 보고싶어 했다. 그녀의 저항이나 의지

와는 어차피 관계없는 일이었다. 트리스탄도 가버렸고, 아무도 그녀의 편에 있는 자는 없었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다. 채찍에 맞은 엉덩이는 곡선을 그리며 굽어졌다. 경매인이 축축해진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자, 고통뿐만 아니라 쾌락의 물결도 온몸에 넘쳐흘렀다.

뷰티가 몸부림을 치며 경매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는 놀란 듯 눈을 부릅뜨고선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채찍을 높이 쳐들고 그녀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때려댔다. 그녀는 흐느끼며 위로 뻗은 팔 속에 자신의 얼굴을 묻으려고 애썼다.

"우리는 하루종일 이 어린 공주를 데리고 놀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군중들은 계속 그녀를 괴롭히며 더 많은 볼거리를 구경할 수 있길 원했지만 경매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예쁜 아가씨에게 매서운 손길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데, 얼마에 입찰을 보시겠습니까?"

그는 뷰티를 비틀며, 맨발바닥을 마구 때렸다. 팔사이에 감춘 머리를 쑥 끄집어내어 그녀는 얼굴을 군중들에게 내밀었다.

"자, 아름다운 가슴, 부드러운 팔, 기분좋은 엉덩이, 그리고 오, 신들에게나 어울릴 이 달콤하고 조그만 쾌락의 축축한 늪."

입찰가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너무 빨리 가격이 뛰어올라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시야로 뷰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젊은이들은 다투어 연단 바로 앞까지 몰려들었다. 두 명의 젊은 여자들이 손가락질을 해가며 뭐라 속삭였고, 저 쪽 지팡이에 의지해 있는 한 노파도 뷰티를 요리조리 뜯어보고나선 입찰가를 부르기 위해 쭈글쭈글한 손을 높이 들어올렸다.

뷰티는 다시 자포자기한 상태로 떨어졌다. 그녀는 반항의 태도로 보이지 않게 소리죽여 울었다. 흐느낌만이 그녀 자신에 대한 유일한

위안이자 대답이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녀의 다리가 점점 넓게 벌어졌다. 경매인은 트리스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엉덩이를 가죽 막대기로 벌려서 항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뷰티는 비명을 지르며 이빨을 다물었다. 당장이라도 경매인을 발길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몸만 무의미하게 뒤틀었다.

경매인은 제일 높은 입찰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적당한 말로써 군중들의 욕구를 부추겼다. 마침내 그녀는 혼미한 상태에서 굵은 목소리로 소리치는 경매인의 말을 들었다.

"여관집 주인인 〈사자 간판집〉의 제니퍼 로클리 부인에게 거액의 금화 스물일곱닢에 이 생기있고 아름다운 작은 공주가 팔렸습니다. 아마 이 공주는 호된 매로 잘 다스려야 할 겁니다."

로클리 부인의 교훈

군중들은 뷰티가 사슬에서 풀려나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박수를 쳤다. 두손은 여전히 뒤로 묶여져 있었고 젖가슴은 앞으로 더욱 튀어나왔다. 가죽 재갈이 그녀의 입속에 강제로 넣어져도 뷰티는 태연했다. 재갈은 머리 뒤에서 꽉 묶여졌고, 손목도 머리 뒤에 묶인 채였다. '그래,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자.' 뷰티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밧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자신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도 없었다. 뷰티를 산 여인은 연대기 편찬자가 트리스탄을 유심히 살펴보았듯이 뷰티를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약간 삼각형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앞이마 위의 머리끈으로 손질한 머리외에 그녀의 검은 머리는 온통 등 뒤로 단정치 못하게 넘겨져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뷰티는 부유한 여관 주인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키가 큰 그녀가 고삐처럼 묶은 밧줄을 잡아당기자 뷰티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줄을 어깨에 둘러메고 그녀가 서둘러 걸음을 옮기자 뷰티도 뒤따라 끌려갔다.

사람들이 뷰티에게로 일제히 몰려와 밀고 찌르며, 쓰라린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얼마나 못된 여자였냐, 가죽 채찍맛이 어떠했냐는 등 묻기도 했고, 그들은 또 뷰티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뷰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온몸이 끊임없이 떨렸고, 마음은 아무 생각없이 텅 비어가는 듯 했다. 그 여인은 너무 빨리 걸어가고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뷰티도 걸음을 빨리 옮겨야 했다. 다시 눈물이 그녀의 눈을 자극했다.

그들은 작은 거리로 들어가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다시 조그만 자갈이 깔린 텅빈 골목길을 지나갔다. 유리로 된 창문과 밝게 색칠한 셔터문이 있는 검은 목조건물 아래서 방향이 바뀌었다. 사방에 있는 작은 간판들이 그 마을의 분위기를 알려주었다. 이상하게도 침묵이 뷰티를 엄습해왔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아주 조그만 육체적 고통들이 더 밝게 타올랐다. 두뺨을 거칠게 스치며 밧줄이 머리를 세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입에 물려진 재갈 속으로 시름에 겨운 한숨을 내쉬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인적이 드문 작은 가게들, 붉은 우단 조끼와 넓고 붉은 스커트를 입고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는 키 큰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등 뒤로 느슨하게 내려진 길고 검은 머리, 이러한 전체적인 광경을 생각하며 뷰티는 문뜩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전에 일어났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고,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뷰티는 어떤 면에서 이곳의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고, 한편으론 고향처럼 친밀감이 느껴졌다. 시장 안의 타는 듯한 공포도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분명 나체였다. 넓적다리도 엉덩이도 매를 맞아 아직도 화끈거렸다. 뷰티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다리 사이에는 항상 그 무섭고 비밀스런 흥분이 존재했다. 그녀의 숨은 욕망은 잔인하게도 가죽 채찍

에 시달리면서도, 또 그 부드러운 감촉에 아직도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달콤한 흥분이었다. 햇살에 달구어진 자갈 위를 걷는 그녀의 맨발은 채찍의 상흔조차도 싫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막연하게나마 그 키 큰 여인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게 되었다. 뷰티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했다. 성에 살 때도 그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것은 두려움만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녀는 전라의 속박된 노예이며 더구나 불복종으로 벌을 받고 있는 노예로서 잔인하게 이 골목길을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 키 큰 여인은 반항심을 미리 꺾어버리기 위해 이처럼 짐승같이 거칠게 그녀를 다루고 있다고 뷰티는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뷰티는 그 여인에게 마음 한구석이 사로잡혀드는 느낌이 들었다.

뷰티는 눈길 가는 대로 벽을 쳐다보았다. 창문 여기저기서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았다. 다시 정면을 보자 팔짱을 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길 건너 편에서도 한 젊은이가 창가에 앉아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키스를 보냈다. 조잡한 옷을 입고, 활처럼 다리가 휜 한 남자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로클리 부인."

그는 뷰티에게 눈길을 주지않는 척 지나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아무렇지도 않고, 모든 게 평범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뷰티를 혼란시켰다.

그녀는 자갈이 깔린 아주 큰 또 다른 광장으로 끌려갔다. 광장의 중앙에는 공동우물이 하나 있었고, 사방이 여관간판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곰의 간판도 있었고, 닻의 간판, 십자검의 간판도 있었지만, 가장 멋진 것은 3층건물 창문아래 걸려있는 도금된 사자 간판이었다. 그러나 뷰티가 놀란 것은 발목과 손목이 가죽 고리에 묶인 채 그 간

판 밑에서 흔들거리는 발가벗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잘익은 사과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빨건 음부를 고통스럽게 노출시키고 간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성 안에 있을 때 벌받는 모습과 흡사했다. 뷰티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가장 두려워 했던 벌이었다. 매달린 여자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음부를 보게끔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로클리 부인을 보자, 신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렸다. 뷰티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로클리 부인이 뷰티를 끌고들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쳐다볼 수도 없었다. 뷰티는 여관의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날씨는 따뜻했지만, 큰 방은 오히려 서늘한 편이었다. 벽난로 속에서 불이 약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드러운 광택이 빛나는 수십개의 탁자와 의자들이 타일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벽을 따라 큰 나무통들이 줄세워져 있었다. 벽난로 한쪽 끝에는 긴 선반이 있었으며, 반대 쪽에는 조잡해 보이는 작은 무대가 있었다. 뷰티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데에 잠깐 시간이 걸렸다. 어느 정도 어둠에 익숙해지자 뷰티는 그 방안에 많은 전라의 노예들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가진 발가벗은 한 남자노예가 한쪽 귀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나무 손잡이를 이빨로 문 채 무거운 솔을 움직여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 곁에 금발의 여자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보다는 자비롭게도 손으로 탁자와 의자들을 닦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갈색머리의 젊은 여인도 무릎으로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또 다른 두 남녀 노예는 난로 맨 끝에서 무릎을 꿇고서, 뒷창문에서 비쳐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접시를 열심히 닦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뷰티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와 동작은 지극히 복종적이었다. 걸레를 들은 작은 여자노예가 서둘러 뷰티의 발 가까이에서 바닥을 계속 닦을 때, 그녀는 그 여자 노예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근래에

심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나무 회초리를 가져와."

로클리 부인이 한 남자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뷰티를 앞으로 끌어내어 쓰러뜨렸다. 뷰티는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신음소리를 냈다. 로클리 부인이 재갈과 손에 묶은 줄을 풀고나서 뷰티의 알몸을 때릴 때, 그녀는 복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로클리 부인의 다른 손이 뷰티의 다리 사이를 더듬으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그녀는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부인의 손이 젖은 그녀의 음부 사이로 들어왔다.

부인의 손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질 때 뷰티는 고통스럽게 몸을 떨었다.

뷰티는 잠시나마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나무 회초리의 표면이 다시 그녀의 엉덩이를 살며시 눌러왔다. 상처가 후끈거리며 아팠다.

뷰티는 긴장한 채, 이곳저곳 몸검사를 받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져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매질을 기다려야만 했다.

의외로 매질이 없었다. 로클리 부인은 험하게 인상을 지었다.

"너는 저 간판에 매달린 예쁜 공주가 안보이느냐?"

부인이 물으면서, 뷰티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끄덕이게 움직여댔다. 뷰티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복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린 여자의 몸뚱이가 이리저리 조금씩 돌아갔다.

"저 아이 대신 매달리고 싶으냐?"

로클리 부인이 냉정하고 엄격한 음성으로 물었다.

"날마다 뱃속을 굶주리게 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탐내면서

저기에 매달려 있고 싶으냐?"

뷰티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면 경매대 위에서 보였던 무례함이나 반항은 앞으로 조금도 허락치 않을 것이다. 무조건 복종하며, 주인의 신발에 입을 맞추어야 하며, 저녁을 먹을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깨끗이 접시를 핥아먹어야 한다."

부인은 다시 뷰티의 머리를 억지로 끄덕이게 했고, 그녀는 이상한 흥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스스로 머리를 끄덕였다. 뷰티의 아랫부분이 탁자의 나무결에 닿아있어 감촉이 부드러웠다. 부인의 손이 그녀의 유방을 거머쥐고 애무하자 젖꼭지가 부풀어오르며 뷰티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지?"

로클리 부인이 묻자, 뷰티는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못견딜 때까지 이제 맞을 것이다. 이유는 한가지 뿐인데, 그렇게 맞아야만 너는 괴로워하며 내 손끝만 닿아도 기겁을 하고 달려들어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노예로서 여름내내 매일 그렇게 고통스런 상태로 지내게 될 거야.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 너는 서둘러 뛰어와 내 발끝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복종한다면 너는 저 간판 밑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부인의 손은 여전히 뷰티의 유방을 주무르면서, 다른 손은 뷰티의 머리를 만지며 대답을 기다렸다. 아주 느리게 뷰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부드럽게 말하며 부인은 뷰티를 머리가 문쪽으로 향하게 엎어놓았다. 그녀는 뷰티의 턱을 들어올려, 창문을 통하여 매달려있는 불쌍한

여자를 볼 수 있게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나무 회초리로 뷰티의 엉덩이를 다시 내리치고나서 상처를 부드럽게 눌러 엉덩이가 더 뜨겁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뷰티는 미동도 않은 채 누워있었다. 자갈깔린 골목길에서 느꼈던 이상한 정적이 다시 밀려왔다. 뷰티는 그런 고요를 음미하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리 사이에서 주체할 수 없는 야릇한 흥분이 고개를 들었다. 정적 속에서 그녀는 그 쾌감을 진하게 느꼈다. 두려움도, 불안도 그 은밀한 흥분 속에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 젖무덤이 부풀어 오르고 아랫부분이 축축히 젖어갔다.

"자, 더 들어봐. 내가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너는 나를 위해 움직이는 거야. 몸을 뒤틀고, 신음소리도 내야해. 피하려고 애쓰지마.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야. 너는 내게 무조건 순종해야 해. 매질을 당할 때마다, 네가 받은 벌을 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는 태도를 내게 보여야 해."

뷰티는 놀랐다. 성에서도 그녀에게 이처럼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부인이 이렇게 그녀를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뷰티는 생각했다. 입장을 바꿔, 뷰티가 여관을 운영하며 반역한 한 노예를 금화 스물일곱닢에 샀다해도 그녀는 똑같이 그렇게 노예를 다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라면 노예 자신이 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해 때리기보다는 철저히 노예정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노예가 몸을 뒤틀고 신음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상하게도 지극히 일상적이고 편안한 생각이 뷰티의 머리 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문 밖으로 깔린 작은 자갈 위로 햇볕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서늘하고 어두운 여관의 분위기를 이해하려 했

다. 그리고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겠다는 판단이 어렴풋이 머리 속에 새겨졌다.

나무 회초리가 그녀를 내리쳤다. 처음이면서도 쉽게, 뷰티는 크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매질이 계속 빗발치자 뷰티는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몸을 뒤틀고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엉덩이가 들썩일 때마다 밑에 있는 탁자가 삐그덕거렸다. 그녀는 젖무덤이 나무 표면에 닿을 때마다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이 정도라면 로클리 부인을 충분히 기쁘게 해주지 않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뷰티는 자신의 귀로도 명확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신음소리를 높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내려 탁자 위에 떨어졌다. 몸부림칠 때마다 턱이 바닥에 닿아 아팠고, 긴 머리는 어깨 옆으로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회초리의 감각은 너무나 아팠다.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젠 충분하지 않나요, 부인. 그만, 그만 하세요.' 뷰티는 몸부림치며 그렇게 외쳐대고 싶었지만, 그냥 마른침을 삼키듯 목구멍 속으로 넘겨버렸다. 성안에서도 결코 이런 시련을 겪어보진 못했다.

매질이 멎었다. 나직이 토해내는 흐느낌만이 침묵 속에 느껴졌다. 뷰티는 애원하듯 탁자 위에서 꿈틀거렸다. 로클리 부인의 손이 쓰라린 뷰티의 엉덩이를 가볍게 문지르자, 그녀는 이빨을 꽉다문 채 신음했다.

"아주 잘했어."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자, 이젠 일어서서 다리를 벌리고 서봐."

뷰티는 서둘러 순응했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탁자 위에서 내려와 가능한 한 넓게 다리를 벌리고 섰다. 온몸이 욱씬거리고 떨렸다. 쳐다보지 않고도 그녀는 희미한 어둠 속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로클리

부인을 의식할 수 있었다. 넓고 흰 소매자락 밖으로 나온 손에는 긴 나무 회초리가 쥐어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목뒤로 하고, 턱을 바닥에 댄 다음 저 벽까지 기어갔다 와, 빨리."

뷰티는 그대로 따랐다. 팔꿈치와 턱을 바닥에 댄 채 기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색하고 비참하게 보여질까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뷰티는 벽까지 기어갔다가, 서둘러 로클리 부인의 발밑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헐레벌떡 그녀의 발끝에 입을 맞추었다.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아."

로클리 부인은 매정하게 명령하며, 뷰티의 머리카락을 잡고선 둘둘 말아올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핀을 꺼내 머리를 고정시켰다.

"로저, 그 물양동이와 세탁솔을 가져와라."

부인의 말에 검은머리 남자노예는 조용하게 움직이며 즉시 복종했다. 비록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녔지만 그의 행동은 우아하게 보였다. 그 역시 엉덩이에 매를 맞은 자국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똑바로 눈을 뜨고 여주인의 발끝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물러났다. 검은 털이 그의 분홍빛 항문 주위에 무성했고, 남자 엉덩이치고는 오히려 아름답도록 둥글었다.

"이제 너는 저 세탁솔을 이빨로 물고 바닥을 닦아야 한다.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청소할 때는 언제나 다리를 계속 벌리고 있어야 한다. 다리를 모으고 있는 것이 보이거나, 바닥에 입을 대고 고꾸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간판 아래 매달려질 것이다. 알아듣겠니."

뷰티는 즉시 부인의 신발 위에 입을 맞추었다.

"아주 잘했다. 오늘 저녁 병사들이 몰려와 너에게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할 거다. 그 때는 그들이 너의 그 곳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의 명령에 복종하고 겸손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뷰티는 세탁솔을 이빨에 물고 일을 시작했다. 머리를 앞뒤로 움직여가며 타일 바닥을 열심히 문질렀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계속 일을 했다. 일에 열중할수록 아픔이 점점 사라졌고, 머리는 맑아졌다.

만약 병사들이 뷰티를 좋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또 그녀를 만족시켜줄 때, 뷰티가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았다. 부인이 정말 그녀를 매달지 궁금했다.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까.' 뷰티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로클리 부인 생각을 하자마자 뷰티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매정함과 날카로운 면을 좋아해서일까, 그러나 성에 있을 때 여주인 줄리아나 부인의 칭찬에도 뷰티는 좋아한 적이 없었다. 로클리 부인의 매질 속에 어떤 작은 희열이라도 숨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뷰티 자신도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뷰티는 될수있는 대로 깨끗하게 바닥을 닦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의 앞에 있는 문이 열리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이내 로클리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뷰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했다.

"오, 대장님."

뷰티는 무례한 짓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눈을 치켜올렸다. 그녀의 위에 금발의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가죽장화를 신고 있는 그의 허리에는 보석이 박힌 단검과 채찍이 벨트에 달려 있었다. 그의 키는 매우 컸다. 넓은 어깨를 제외하고

는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을 때 그의 초록빛 눈에 잔주름이 그려졌다. 그녀는 당혹해하며 애써 무관심한 척 바닥을 다시 문질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뷰티의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오늘밤에 분명히 병사들을 다 데리고 오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일찍 당신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부인."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뷰티는 목이 꽉 잠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 앞에 보이는 가죽장화를 애써 무시하며 뷰티는 계속 일을 했다.

"나는 이 작은 아가씨가 팔려가는 것을 보았소."

그는 뷰티의 주위를 한바퀴 돌았다. 뷰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주 귀여운 반역자였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걸 보고 놀랐소."

"나는 반역자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요."

로클리 부인이 차갑게 대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 아인 특별한 점이 있지요. 내 생각엔 당신이 오늘 저녁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

뷰티는 머리를 쳐들고 그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햇빛에 적당히 그을린 구리빛 얼굴이 강인해 보였고, 턱에는 짧은 수염이 돋아나 있었다. 로클리 부인이 눈을 내리뜨라고 호통쳤지만, 그는 뷰티의 무례함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장갑 낀 손을 뒤로 접은 채 흰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지었다.

기구한 로저의 짤막한 이야기

로클리 부인은 뷰티를 일으켜 세워, 그녀의 손을 거칠게 등뒤로 비튼 다음 뒷문으로 끌고나갔다. 과일나무와 풀이 무성한 넓은 마당으로 접어들었다.

지붕도 없는 헛간의 나무바닥 위에서 발가벗은 노예들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다. 소매를 걷어올린 한 여자가 머리 위 나뭇가지에 양손을 묶어놓은 채 비눗물 통 속에 다른 여자노예를 세워놓았다. 그 거친 여자는 마치 소금에 절인 저녁거리용 고기를 손질하듯 노예의 알몸을 문질렀다.

뷰티도 그녀처럼 무릎까지 차는 비눗물 통 속에 들어갔다. 그녀의 양손이 머리 위 무화과나무에 묶여지자, 로클리 부인은 로저를 불렀다.

금세 어디선가 로저가 나타났다. 이번엔 똑바로 선 자세였고, 손엔 여전히 세탁솔을 들고있었다. 그는 즉시 뷰티에게로 다가왔다. 따뜻한 물을 그녀의 온몸에 끼얹고, 여기저기 문지르기 시작했다. 로저의 손과 솔이 다리 사이를 문지를 때 뷰티는 움찔했다. 꺼칠한 솔이 매

맞은 자리와 상처난 살갗을 지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로클리 부인은 먼저 목욕을 끝낸 여자노예를 때려 내보내고 나서 자신도 여관 안으로 사라졌다. 한쪽 구석에서 잠에 취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오직 뷰티와 로저뿐이었다.

"내가 물으면 대답할래요?"

뷰티가 살짝 속삭였다. 주전자 속의 따뜻한 물을 뷰티의 머리 뒤로 부을 때 그의 검은 피부가 그녀의 몸에서 매끄럽게 미끌어졌다. 그들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빛은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

"예. 그러나 아주 조심하세요. 들키면 군중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할 거예요. 나는 회전판 위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은 정말 싫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성에서 여기로 보내진 노예는 우리가 처음이라 생각되는데."

"내가 여기에 온 지는 몇년 됐지요. 지금 나는 내가 있었던 성을 거의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공주와 몰래 달아나다 붙잡힌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꼬박 이틀 숨어있다 잡혔죠."

"그 공주는 어떻게 되었죠?"

뷰티가 다급히 물었다.

"그녀도 나와 함께 여기에 왔다가, 잠시동안 지내다 다시 성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나는 결코 다시 소환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여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어요. 성으로 되돌아가 왕실사람이 되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와, 나보고 다시 자기의 노예가 되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만약 자기가 나를 노예로 잘 길들이기로 약속하면 여왕도 쾌히 허락하실 거라더군요. 그녀는 아마 노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잔인한 주인일 거예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주인의

무릎 위에서 발가벗고 뒹굴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백마 위에서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더구나 발가벗은 나를 말에 태워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도망치려 하자 그녀는 호송대장을 시켜 나를 꼼짝 못하게 했지요. 그리고 말에 탄 채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즐거운 표정이더군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뷰티는 분노했다.

"혹시, 그녀는 항상 머리를 땋고있지 않나요?"

"예. 내가 듣기로는 그녀는 그것을 풀지않는 데요, 머리를 풀면 한 때 그녀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그녀의 이름이 쥴리아나 부인이 아닌지요."

"예,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성에 있을 때 내 주인이었어요. 대단한 고문자였지요."

뷰티는 쥴리아나 부인의 예쁜 얼굴과 단정하게 땋은 머리를 생각하며, 그녀의 채찍아래서 고통받았던 기억을 되새기자 치가 떨렸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해요. 로클리 부인이 부엌에 있는 것 같아요."

나직이 속삭이는 그의 얼굴에 온후한 웃음이 새겨졌다.

"서둘러야 합니다. 대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호송대장

로클리 부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뷰티의 묶인 손을 풀고, 머리를 대충 말려주었다. 그런 다음 다시 손목을 뒤로 붙들어 매고 여관 안으로 데리고갔다. 그들은 곡선의 좁은 나무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로클리 부인은 참나무로 만든 문을 열고 뷰티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거칠게 무릎을 꿇고 뷰티를 앉게 했다.

"여기 그녀를 대령했습니다, 대장님."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뷰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무릎을 꿇고 앉은 채 가만히 있었다.

눈에 익은 가죽장화와 난로 위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빛, 그리고 경사진 천장 아래있는 나무침대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뷰티의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그 대장은 검고 긴 나무탁자 옆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잘생긴 구릿빛 얼굴과 숱이 많은

금발머리, 푸른 눈동자. 그도 뷰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두 눈길이 마주치자 뷰티는 끌려들듯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나약한 마음이 무섭게 그녀를 엄습해왔다. 그녀의 내부에 숨어있던 어떤 부드러움이 점점 확산되어 머리와 가슴을 적셨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대장은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모아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더니 발로 뷰티의 다리를 툭툭 차 넓게 벌려 놓았다.

"스스로 너를 나에게 보여 봐."

미소도 짓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는 뷰티를 자유롭게 서 있게 했다. 굴욕감만 느꼈을 뿐, 뷰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대장은 그녀의 복종을 확신하고서 다시 의자에 앉았다. 뷰티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나 크게 뛰고있어 그가 듣지나 않을까 겁이 났다.

"양손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서 너의 그 작은 문을 벌려. 나는 천부적인 너의 자질을 보고싶다."

뷰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를 응시하며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만 더욱 크게 뛰고있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 뷰티를 안아 들어다 나무테이블 위에 거칠게 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그녀를 쳐다보았다. 뷰티는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장갑을 낀 그의 손이 그녀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몸을 뒤틀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벌써 그녀의 음부를 벌려놓고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항의 몸부림으로 엉덩이를 흔들었지만, 그의 손으로 애무 받고 있는 그곳의 문은 축축하게 젖어가며 점점 넓어지기만 했다. 그녀는 헐떡거리며, 얼굴을 돌렸다. 그가 바지를 벗는 소리가 나고, 이내 그의 단단한 성기가 그녀

의 넓적다리에 뜨겁게 닿는 감촉을 느꼈다. 뷰티는 거친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엉덩이를 들어 그에게 받쳤다.

곧 그의 부풀어오른 성기가 뜨겁게 그녀의 몸속으로 미끌어져 들어왔다. 그것이 그녀의 그곳에 너무나 꼭 맞았기때문에 뷰티의 음부는 더욱 축축하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장이 쓰라린 뷰티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탁자 위에서 그녀를 들어올렸다. 뷰티의 팔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리는 그의 허리를 휘감고 있었다. 그는 두손으로 그녀를 들어 그의 위에 올려놓은 다음 앞뒤로 움직이게 했다.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신음소릴 내질렀다. 대장은 그녀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했다.

뷰티는 그가 자기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은 것도 모를 지경이었다. 오직 허리를 꿈틀거리며 뷰티는 온몸에 넘쳐흐르는 쾌락을 느낄 뿐이었다. 자신의 입을 그의 입속에 포갠 채 뷰티는 무중력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 가벼웠다. 위로 솟았다 떨어지고, 솟았다 떨어지며 뷰티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분출에 신음소리를 높게 내질렀다. 그녀는 온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절정감을 느꼈다.

오르가즘은 계속되었고, 그는 신음하는 뷰티의 입술을 빨면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목구멍 깊숙히 신음소리를 지르며, 그의 절정감을 뷰티의 몸속 깊이 쏟아부었다.

그의 몸이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방안은 갑자기 침묵으로 돌변했다. 그는 뷰티를 어루만지며 일어섰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흥분이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뷰티는 가늘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몸속이 텅비어버린 듯한 허탈감이 뷰티에게 느껴졌다.

대장은 뷰티를 다시 바닥 위에 세웠다. 양손은 목뒤에 놓여졌고, 다리는 그의 다리가 사이로 파고들며 벌려놓았다. 달콤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서 있어야 했다. 눈앞엔 흐릿한 불빛의 흔들림 외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뒤로 물러났다.

"양손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그는 부드럽게 뷰티에게 말했다. 그리고 안락의자에 다시 앉았다.

"나에게 너의 음문을 보여 봐라."

뷰티는 몸서리쳤다. 정력은 고갈되었지만 아직도 뜨거운 다리 사이를 내려다보았다. 뷰티는 나른한 근육 속으로 다시 스며드는 마르지않은 욕망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의식할 새 없이, 그녀의 손가락이 음문에 닿았다. 축축하고 미끈미끈한 음문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뷰티는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문을 열고, 내게 드러내보여라."

팔꿈치를 의자 팔거리에 얹어놓고 손바닥으로 턱을 괸 채 그가 말했다.

"그래, 그거야. 좀 더 넓게, 더 벌려."

그녀는 자신의 음문을 더 크게 벌렸다. 한때 반항한 죄로 끌려온 자신이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뷰티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직된 생각조차 육체에 급속도로 번지는 나른하고 황홀한 쾌감때문에 금방 잊혀져갔다. 너무 넓게 음문을 벌리고 있어 아플 지경이었지만 뷰티는 그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핵, 그것을 들어올려."

그녀는 그의 말을 따랐다. 음핵에 손가락 끝이 닿자 신음소릴 낼 정도로 흥분되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손가락을 옆으로 움직여."

그녀는 즉시 그의 말에 복종했다. 가능한한 우아하게 보이게끔 그녀는 손을 움직였다.

"이제, 입을 벌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쑥 내밀어."

그녀가 엉덩이를 움직이자, 또 다시 쾌락의 물결이 거세게 일렁거렸다. 그녀는 얼굴과 가슴, 목구멍까지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교성이 방안에 가득했다. 뷰티의 엉덩이가 점점 올라가며 앞으로 움직였다. 젖꼭지가 작고 딱딱한 분홍빛 돌맹이처럼 팽창되었다. 뷰티는 자신의 교성이 점점 더 커지며 애원하고 있는 듯한 울부짖음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렇게 달콤하게 이지러지는 욕망은 어느 때라도 다시 시작되었다. 음부가 손가락에 닿기 무섭게 부풀어 오르고, 음핵이 작은 심장처럼 심하게 뛰고, 젖꼭지의 핑크빛 살갗이 더욱 짙어갔다.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분출을 억제할 수 없었다. 대장의 손이 그녀의 목을 살며시 감쌌다. 뷰티는 바로 앞에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몸서리치며 엉덩이를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다. 뷰티는 눈을 깜박이며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의 단도손잡이였다. 굵은 에메랄드와 루비, 금과 같은 보석들로 꾸며진 손잡이였다. 그는 그것을 아래로 내렸다. 뷰티는 축축한 질 속에 차가운 금속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으음, 으으…"

그녀는 신음하며 그 손잡이가 그의 성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하게 그녀의 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손잡이를 천천히 움직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음핵을 자극하자 황홀한 쾌감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는 그것을 계속 움직이며 그녀를 애무했다.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허리를 뒤로 젖혔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벌려진 뷰티의 입은 그대로 굳어져버렸

다. 그녀는 그 대장의 얼굴까지도 시야에서 흐릿하게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뷰티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녀의 엉덩이에는 아직도 격렬한 떨림이 있었고, 질 속에서는 열기가 조용히 헐떡거렸다. 뷰티는 일어나 앉았다. 대장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노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관에 오면, 너는 내 것이다. 어디에 있든간에 내게 와서 내 발끝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

뷰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손목을 뒤로 묶은 다음 그 작은 방에서 끌고나갔다. 그녀는 꾸불꾸불한 작은 계단을 밟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머리에 현기증이 일어났다. 그는 이제 그녀를 떠날 것이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그에게서 떨어지기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크고 부드러운 장갑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때렸다.

뷰티는 여러 명의 병사들이 술을 마시는 여관의 서늘한 어둠 속으로 끌려왔다.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어디선가 알몸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채찍소리, 그리고 어떤 불쌍한 노예의 신음소리와 흐느낌이 희미한 어둠 속에 뒤섞여 들려왔다.

그러나 어느새 그녀는 여관 앞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대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등 뒤로 양손을 잡아. 그리고 무릎을 높게 들고 내 앞에서 걸어가야 한다. 앞만 똑바로 봐라."

처벌장에서

햇살이 눈부시게 그녀의 눈 속으로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 가능한 한 다리를 높게 올려 걸으며 뷰티는 광장으로 끌려 들어갔다. 게으름뱅이들과 수다장이들, 우물 옆 넓은 돌 가장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광장에 모였다. 말들은 여관의 문앞에 붙들어매져 있었고, 여기저기에 전라의 노예들도 보였다. 어떤 노예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떤 노예는 뷰티처럼 무릎을 높이 쳐들고 걷고 있었다.

대장은 또 한차례 그녀를 때리며 돌려세웠다. 거리는 꽤 붐볐다.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흥정하기 바빴다. 이 모든 주위의 광경을 전에도 본듯한 친숙한 느낌이 다시 뷰티의 머리 속을 어지럽혔다. 기어다니다시피 움직이며 가게들의 유리창을 청소하는 전라의 노예들, 채찍을 들고 등에 바구니를 맨 노예를 몰고가고 있는 한 여인, 벌거벗긴 채 초죽음이 되어 벽에 다리를 벌리고 묶인 노예들, 모두 뷰티의 눈에는 평범하고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마을 젊은이들은 지나가면서 남자노예의 발기된 성기를 툭툭 쳐보거나, 가엾고 수줍은 여자노예의 음부를 꾹꾹 찔러보기도 했다.

한차례 격렬한 매질이 뷰티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광장을 가로질러 마을 반대편 시장 쪽으로 갔다. 텅빈 경매대 주위에는 여전히 사람들로 들끓었다. 식당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냄새와 길가에서 파는 포도주 냄새가 뷰티의 코를 자극했다. 포목점에선 옷감들이 물결처럼 길게 늘어져 펄럭였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전라의 노예들이 갖가지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작은 빗자루로 부지런히 청소를 하는 노예가 눈에 띄었다. 그들이 걸음을 서둘러 출입구를 지나갈 때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나르는 또 다른 노예 두 명이 있었다. 벽쪽에는 한 가냘픈 여자노예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유난히 그녀의 음모가 반짝이며 드러나 보였다. 얼굴은 빨갛고 눈물 투성이였다. 단단하게 발목이 묶인 두다리는 나란히 벽 위로 뻗어있었다.

골목길을 지나 그들은 또다른 광장으로 들어섰다. 뷰티는 그제서야 멈추라는 대장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허리춤에 끼우고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뷰티는 또 하나의 높은 회전판을 보았다. 경매장의 그것과 비슷했다. 그 위엔 꽁꽁 묶인 노예 한 명이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경매인이 했던 것처럼 발페달로 회전판을 빙글빙글 돌리며, 적당한 위치에 돌아올 때마다 노예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갈겼다. 그 불쌍한 희생자는 근육이 알맞게 울퉁불퉁한 멋있는 남자노예였다. 양손은 등뒤로 꽉 묶여있었고, 턱은 높게 치켜져 짧고 거친 나무 기둥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다. 그는 참혹한 매질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었다. 군중들은 경매할 때처럼 소리치며 야단법석이였다.

매질을 하던 사람이 이제 벌이 끝났다는 표시로 가죽 채찍을 높이

쳐들고 허공을 휘젓자, 그제서야 그 노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먹다 남은 과일조각과 허섭쓰레기들이 벌의 댓가로 그 노예에게 던져졌다.

그 광장도 다른 곳처럼 음식점과 주점들이 번성했고,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했다. 높은 창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창턱과 발코니 난간에 팔을 괴고 소리치며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회전판 매질이 유일한 벌은 아니었다. 오른쪽 구석에 높은 나무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쇠고리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가죽끈이 길게 내려져 있었다. 각각 검은 리본 끝에 노예 한사람씩, 머리가 높이 치켜들리도록 가죽끈에 묶여있었다. 그리고 모두 천천히 기둥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들 주위에는 네 명의 감시자가 끊임없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고, 바닥은 그들의 맨발 발자국을 따라 동그랗게 길이 나 있었다. 여기저기서 마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해대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뷰티도 멍하니 노예들을 보고 있었다.

"저기로 가!"

방금 대열에서 풀려나 채찍을 맞으며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진 한 여자노예가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대장이 명령했다. 뷰티는 순종하며 기둥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를 묶어."

대장이 한 호송관에게 소리치자, 그 호송관은 뷰티를 세워놓고 그녀의 목에 가죽목걸이를 채워 턱이 위로 쳐들리도록 했다. 뷰티는 흐릿한 시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대장의 모습을 보았다. 기둥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 가죽끈은 무거웠다. 원의 행렬이 다시 움직였다. 가죽끈이 뷰티의 목을 잡아 당겼다. 그녀는 가죽끈에 끌려가지 않으려 빨리 걸었다. 그러나 걸음이 엇갈리면서 얼마 걷지 못해

넘어지고 말았다. 이내 감시자의 채찍이 그녀를 덮쳤다. 뷰티는 다시 일어났다. 자기 앞에서 걷고있는 노예의 헝클어진 머리를 쳐다보면서 그녀는 눈을 따갑게 하는 먼지와 햇볕을 의식했다. '처벌장' 뷰티는 주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곳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던 경매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대장이 자신을 직접 이리로 끌고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대장이 싫증이 났거나 아니면 호기심으로라도 그녀가 벌받기를 원했다면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 뷰티는 원을 그리며 돌 때마다 팔을 허리에 차고, 두다리를 굳게 벌리고 서있는 대장의 모습을 잠시동안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가죽 채찍이 다시 그녀의 알몸을 내리쳤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채찍이 엉덩이를 스쳤을 때 뷰티는 아무 생각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만족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왔다.

그녀의 내부에는 긴장감도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익숙해진 쾌락의 고통, 대장의 음경에 대한 욕망, 가죽 채찍소리등 이런 생각들만 걷고 있는 그녀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가죽 목걸이에 걸린 그녀의 턱이 세게 잡아 당겨졌다. 무릎이 휘청 꺾이며 땅바닥에 처박혔고, 채찍이 그녀의 등을 때렸다. 그러나 전에 느꼈던 그런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무서움은 없었다.

가까이에 모인 사람들의 환호에 환상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렸다. 매질은 계속되었고, 경매장에서 처럼 군중들은 환호를 지르며 벌을 받고 있는 노예들을 집적거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을까, 목이 마르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녀의 시련이 끝났다. 누군가가 빠르고 익숙한 솜씨로 목걸이를 푼 다음, 뷰티를 대열에서 끌어냈다. 엉덩이가 욱신욱신 쑤셨고, 다음 매질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부풀어올라 있었다. 그러나 매질은

없었다. 그녀는 등뒤로 팔이 꺾여진 채 계속 서있었다. 대장의 큰손이 그녀를 돌려세웠다. 그의 얼굴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뷰티의 머리와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뷰티의 입에 그의 입술을 포갰다. 그의 혀가 뷰티의 입속으로 밀려들어갔다. 그런 다음 대장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뷰티는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 키스에서 뷰티는 몸속 깊이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완전히 약해진 자신을 깨달았다. 그 약해짐이란 채찍의 아픔이나 극도의 피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자, 가자."

뷰티를 돌려세워, 그녀의 쓰라린 엉덩이를 부드럽게 광장 끝으로 밀며 대장이 말했다.

그들은 목에 칼을 쓴 노예들에게로 다가갔다. 그 노예들은 조롱하고 매를 때리는 주위의 군중들로부터 몸을 뒤틀며 괴로와했다. 그리고 뷰티는 나무 밑에 일렬로 서있는 밝은 색깔의 천막들을 뒤돌아보았다. 출입구가 달린 천막은 모두 열려있었다.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천막 출입구마다 한명씩 서 있었다. 뷰티는 어두운 천막의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군중들을 유혹하는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안에 아름다운 왕자가 있어요, 손님. 단돈 십펜스입니다."

"아름다운 작은 공주가 있어요, 십오펜스에 즐기세요."

"노예를 사실 능력이 없으세요. 단지 십펜스로 최고의 재미를 즐기세요. 부인, 알맞은 왕자가 있습니다. 십오펜스에 여왕처럼 될 수 있어요."

뷰티는 남자와 여자들이 천막을 하나씩, 때론 함께 들락날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가장 평범한 마을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즐거움

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뷰티는 생각했다. 맨끝의 천막 앞에 더러운 전라의 노예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누구에게나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 뒤에서 나무가지에 손이 묶여 있었다.

"시간당이나, 일당으로 가장 겸손한 봉사를 받으시려면 이 예쁜 것들을 고용하십시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손에는 가죽 채찍과 회초리가 구색에 맞게 들려있었다.

뷰티는 계속 걸으면서 이런 광경과 외침에 애처롭게 열중해 있었으므로, 대장은 큰 손으로 자꾸 그녀를 가볍게 벌주었다.

마침내 그들이 여관에 도착하여, 뷰티는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갔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손은 등뒤로 묶인 채 그녀는 졸면서 생각했다. '당신은 나의 영주요, 주인입니다.'

뷰티는 그 대장의 노예였다. 그가 시키면 대로를 달리며 벌을 받으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노예였다. 그가 그녀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앞가슴을 더듬으며 다시 거칠게 그녀를 가졌을 때, 뷰티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면서 '주인님, 주인님.' 하고 속삭였다. 뷰티는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 말은 신음소리나 비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입은 점점 벌어졌고, 양팔을 들어올려 대장의 목을 끌어안고서 몸부림쳤다. 그의 두눈은 깜박였고,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대장은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그녀를 황홀의 벼랑으로 몰아갔다.

뷰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동안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벌받는 장소에서 채찍으로 맞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대장이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그녀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따뜻한 손이 흥건히 젖어있는 그녀의 음부에 놓였고, 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그곳을 벌리고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몸으로 더욱 바싹 다가섰다. 대장의 튼튼한 팔다리는 부드럽고 곱슬곱슬한 털로 덮여있었다. 그의 가슴이 그녀를 짓눌렀다. 거칠게 면도한 그의 턱이 그녀의 빰에 스쳤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작은 창문으로 쏟아져들어오는 짙은 오후의 햇살을 쳐다보다 눈을 감았다. 마을의 희미한 소음들, 거리에서 들려오는 힘없는 목소리, 여관 아래에서 터져나오는 지루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달래주는 조용한 콧노래처럼 뷰티의 귓속으로 흘러들었다. 난로 위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대장은 뷰티를 꼭 껴안고 마주보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니콜라스의 집에 있는 트리스탄

아주 멍하게 트리스탄은 뷰티의 말을 생각했다. 아직도 경매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았다. 트리스탄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비명을 질러대며 군중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 들어왔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나쁜 노예라면, 우리가 이 곳 참회의 장소로 판결을 받고 왔다면, 우리는 왜 모든 것에 순종해야만 하는가?' 트리스탄의 귓속으로 그녀의 질문들이 메아리쳤다. 내내 찔리고 매맞고 돌아가며 몸검사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작고 고상한 모습이 그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주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주인은 그보다 일인치 정도 더 키가 커보였다. 그는 정연하면서도 야윈 얼굴을 갖고 있었으며, 숱이 많은 하얀머리는 어깨 위로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그는 하얀머리에 비해 너무 젊었으며, 큰 키와 냉혹한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소년처럼 맑고 순진해 보였다. 그의 푸른 눈은 유난히 빛났다. 그는 마을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너무 옷을 잘차려 입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여왕의 연대기 편찬자 니콜라스라고 불렀다. 그는 또 긴 손, 트

리스탄을 앞서가라고 손짓하던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트리스탄은 그 광장의 끝에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등짝에 가해지는 거칠은 채찍의 아픔을 느꼈다. 양쪽에 문을 닫은 작은 술집들의 텅 빈 골목을 그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경매하는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골목은 한결 적막했다. 자갈 위를 걸어가는 트리스탄의 발자국 소리와 그의 뒤를 따라오는 주인의 부츠 발자국 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뒤에서 주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강한 매질이 가해졌고, 아주 나직이 속삭이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무릎을 높이 쳐들어. 그리고 머리를 더 높게 들고."

트리스탄은 그가 시키는 대로 자세를 똑바로 갖추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접어들수록 점점 어두워졌다. 끝이 뾰족한 높은 지붕들이 머리 위로 솟아있었다. 트리스탄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둘은 깨끗하게 풀먹인 옷을 입고 있어서 바삭거렸고, 그들의 눈은 트리스탄을 주의깊게 훑어보았다. 두사람이 곁에 다가설 때 채찍이 다시 트리스탄을 내리쳤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혼자 웃으며 말했다.

"아름답고, 튼튼한 노예입니다. 나리."

젊은이가 중얼거리자 주인은 트리스탄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 자리에 세웠다. 젊은 그들이 트리스탄을 보기 위해 멈추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너는 걸어가는 법도 배우지 못했나?"

주인이 소리치며 트리스탄의 턱을 강제로 치켜들었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온힘을 다해 반항하려는 자신을 억제했다. 그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자, 너는 나를 위해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주인은 트리스탄을 강제로 길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다. 여전히 그는 오른손에 가죽 채찍을 들고 트리스탄의 얼굴을 잡아 위로 치켜올렸다. 트리스탄은 주인을 응시했다. 무력감과 수치심이 가슴 속을 가득 메웠다. 젊은 사람들이 곁에서 자기들끼리 뭐라 중얼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일어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무릎을 높이 들고."

트리스탄은 일어섰다. 채찍이 넓적다리를 철썩철썩 때렸다. 그들이 출발하자, 두 명의 젊은이가 옆으로 비켜 물러섰다. 트리스탄은 그들이 계속 자신을 주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채찍 소리가 날카롭게 트리스탄의 등짝에서 부서졌다. 더위와 혼란에 트리스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서 있었다. 채찍은 신체의 어느 부분을 가리지 않고 마구 트리스탄을 휘감았다.

'나는 뷰티에게 뭐라 말했었던가? 나는 이 마을로 끌려와 저항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던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트리스탄은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짐작할 수 없었다. 트리스탄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던져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그의 눈을 찔렀다. 아직 흐르지 않고 맺혀있던 눈물이 울컥 쏟아질 듯했다. 끝없이 자갈이 깔려있고, 햇볕이 튀어오르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멈추어라."

그가 명령하자, 트리스탄은 고맙게 여기는 듯, 순종했다. 트리스탄은 그의 손이 자신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끄는 것을 느꼈다. 뒤에서 몇사람의 발자국소리와 함께 남자의 웃음소리가 낮게 들렸다. 주인이

따라붙는 그들을 뒤돌아보았다.

"경매장에서도 볼거리가 많을 텐데, 어째서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냐?"

"아, 물론 볼거리가 많이 있지요, 나리. 하지만 우리는 저 노예의 다리와 성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살테냐?"

주인이 물었다.

"우리는 살 돈이 없어요, 나리."

"그래. 이리 와봐."

주인이 젊은이들을 부르며 트리스탄을 그들을 향해 돌려세웠다.

"내가 이 노예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마음껏 구경해도 좋다."

트리스탄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그들의 뭉툭하고 노란 생가죽 부츠와 다 낡은 바지를 내려다보았다.

"원하면 만져봐도 괜찮아."

젊은이들이 트리스탄에게로 몰려들었다. 주인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옆구리에 차고 있는 가죽 채찍이 번들거렸다. 젊은이들의 손이 트리스탄의 맨살 이곳저곳을 더듬었다. 채찍자국이 난 엉덩이의 상처가 쑤셔왔다. 곧 그들이 트리스탄의 성기를 만지며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트리스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꿈틀거렸다. 그러자 젊은이 중 하나가 트리스탄의 성기를 때리며 위아래로 마구 움직였다.

"이것 좀 봐, 돌같이 딱딱하네."

트리스탄은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목구멍으로 마른침을 삼키며 그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또 한 젊은이가 트리스탄의

엉덩이를 밀면서 곁에 서 있는 주인에게 항문을 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이지."

주인의 말에 트리스탄은 주저앉을 듯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트리스탄의 엉덩이를 들추어 엄지손가락으로 쑥 들이밀었다. 트리스탄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비틀었다.

"원한다면, 그를 때려라."

주인이 다시 냉정하게 말했다. 한 젊은이의 손에 채찍이 쥐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트리스탄은 한쪽으로 몸을 뒤틀었다. 그 다음 순간, 채찍이 트리스탄의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주인의 채찍질보다 훨씬 더 강했다.

트리스탄의 뒤에 있던 젊은이가 팔을 뻗어 그의 턱을 자기쪽으로 잡아당겼다.

"채찍을 맞은 기분이 어때? 당신 주인이 때렸을 때만큼 좋았었지."

"그 정도면 됐네."

주인이 끼어들었다. 그가 앞으로 나서자 젊은이들은 예의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트리스탄의 전율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트리스탄은 알 수 없었다. '뷰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트리스탄은 생각했다.

멀리서 군중들의 함성과 트럼펫 소리가 들려왔다. 거리에도 사람들이 제법 붐볐다. 주인이 트리스탄의 얼굴을 만지며 살펴보았다. 손가락으로 흐트러진 트리스탄의 머리칼을 들어올렸다. 놋쇠로 만든 벨트의 커다란 바클과 채찍을 든 왼손의 반지가 햇볕에 번쩍거렸다. 비단결 같은 그의 손가락 감촉에 트리스탄은 부끄럽지만 억제할 수 없이

자신의 음경이 갑자기 움직이며 발기되는 것을 느꼈다.

"집안으로 들어갈 땐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거라."

왼쪽 편 문을 열며 주인이 트리스탄에게 부드럽게 명령했다.

"너는 앞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해."

트리스탄은 무릎과 팔로 기어가며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루를 건너 혼잡하고 작은 방을 지났다.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형 저택 같았다. 작은 벽난로 위로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고, 벽에는 십자모양으로 칼을 걸어놓았다. 실내는 희미했지만 트리스탄은 벽에 걸려있는 그림액자도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전라의 노예들에게 강제로 여러가지 일을 시키고, 이상한 모양으로 서 있게 한 채 고상하게 즐기고 있는 귀족들과 귀부인들의 모습을 담은 비싼 그림들이었다. 좁은 복도로 주인과 트리스탄이 접어들었다. 트리스탄은 자신이 인간이기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동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왕자로서 이 작은 부의 세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속하고 잘 길들여진 짐승으로 기어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없이 불안한 생각들을 하면서 트리스탄은 아름다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문을 통해서 뒤로 들어가."

주인이 다시 명령했다. 트리스탄은 뒷쪽에 있는 벽장으로 들어갔다. 깨끗하게 옷을 입은 작은 여인이, 트리스탄이 그녀의 옆을 지나자, 빗자루를 얼른 들고 옆으로 물러섰다.

트리스탄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지금껏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 속의 노예들처럼 쾌락의 궁전의 노리개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로 고통받는 전라의 노예였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희롱을 당해야 했다. 마음의 동요 때문에 트리스탄은 점점 호흡이 거칠고 답

답해졌다.

트리스탄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기름램프의 빛나는 불빛아래서 새로운 방의 부드러운 카페트 위를 기어갔다. 정지하라는 말에 그는 주저없이 멈추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램프 불빛에 반짝이는 책들이었다. 모로코 가죽과 금으로 장식된 책들이 온통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모두 훌륭하고 비싼 책들이었다. 선반 위 여기저기에, 그리고 커다란 참나무로 만든 책상 위에는 기름램프가 타오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양피지로 덮여있었고, 잉크병들과 깃촉펜들이 보였다. 트리스탄은 벽에 걸린 여러가지 그림들을 훑어보고나서 곁눈질로 구석에 있는 침대를 보았다.

그러나 트리스탄이 무엇보다 놀란 것은 희미한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있는 여자였다. 트리스탄으로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여자를 많이 알고 있지 못했다. 성에 있을 때 알고 있는 두 서너 명의 귀부인들 뿐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빠르게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트리스탄을 보자, 그는 눈길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책상에서 일어났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스커트 자락이 앞에서 너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팔목이 여느 주인들처럼 희고 길었으며 손도 우아해 보였다. 전체적으로 몸집이 아담했다. 트리스탄은 감히 얼굴을 들고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짙은 갈색머리를 가리마를 타서 잔잔한 물결처럼 등 뒤로 내려뜨리고 있었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몇군데 남아있었다.

트리스탄은 두려웠다. 그녀도,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주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작고 적막한 방에 나체로 있는 자신의 몰골이 못견디게 두려웠다.

“그를 좀 보아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인의 목소리처럼 아름답게 방에 울렸다. 그녀는 손을 트리스탄의 턱밑에 넣고 일어서게 했다. 엄지손가락으로 젖은 트리스탄의 뺨을 문지르자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여전히 트리스탄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양손을 목뒤로 걸친 채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기를 괴롭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그녀는 트리스탄을 일으켜세운 다음 시선을 그의 성기에 고정시켰다.

"다리를 벌려. 설마 그렇게 서 있을 바보는 아니겠지."

그녀는 느리지만 엄격하게 말했다.

"아니, 아주 넓게. 내가 그 튼튼한 넓적다리의 근육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 그 정도도 좋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야 한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약간 웅크린 자세로 말이다. 그러면 앞으로 너에게 잔소리도 필요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너는 만인이 보는 회전판 위에서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말에서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온몸에 전율이 가늘게 일었다. 램프 불빛을 받은 그녀의 흰 손이 그의 음경으로 다가들었다. 그녀는 쥐어짜듯 그것을 움켜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부드럽게 그것을 애무했다. 트리스탄은 헐떡거리며 안에서 폭발하는 흥분이 밖으로 터져나올 것 같았다. 램프의 불빛이 점점 그의 시야에서 깜박거리며 희미하게 흐려져갔다.

"흠잡을 곳이 없군요. 아주 훌륭해요."

그녀가 그의 주인에게 말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무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비용도 그렇게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였고요. 왜냐하면 그가 제일 먼저 경매에 부쳐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그가 만약 마지막으로 경매에 부쳐졌다면 아마 입찰가가 두배는 족히 되었을 겁니다. 저 다리와 그 속의 힘, 그리고 이 어깨를 살펴보세요."

그녀는 두손으로 트리스탄의 머리를 뒤로 쓸어내렸다.

"철저하게 검사는 하셨겠죠."

"아닙니다. 지금 검사를 해보시죠. 그의 항문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트리스탄은 고통을 삭히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세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할수록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주인이 손을 뻗어 선반에서 가죽 외피로 쌓인 케이스를 내려 책상 위에 놓았다. 그녀가 트리스탄을 돌려세웠다. 얼굴이 책상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트리스탄의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게했다. 그리고 가능한 그의 다리를 넓게 벌렸다.

"엉덩이가 벌겋게 되지 않아 좋군요."

그녀의 손이 채찍을 맞아 얼얼한 엉덩이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고통의 물결이 트리스탄에게 다시 일어났다. 그는 가죽 케이스가 열리고 두개의 커다란 남근상이 꺼내지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남자의 성기만 했고,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다소 큰 것이었다. 그리고 남근상 끝에는 길고 숱이 많은 검은 털이 말꼬리처럼 달려 있었다. 그녀가 책상 위에서 빨간 병의 두껑을 열었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다 크림을 듬뿍 찍어내어 트리스탄의 뒤로 갔다. 트리스탄은 차가운 크림이 항문에 발라지는 것을 느꼈다. 트리스탄은 온몸에 소름이 끼쳐왔다. 저항하고픈 생각도 들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까마득한 막막함이 그를 엄습해왔다. 빠르고 부드럽게 그녀는 크림을 잘 문질러서 갈라진 틈 속으로 집어넣었다. 항문 속까지 크림이 발라질 때 트리스탄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주인의 냉정한 눈초리가 트리스탄을 향했다.

그녀의 스커트 자락이 트리스탄의 몸에 부드럽게 닿았다. 두 남근

상 중 작은 것이 트리스탄의 항문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몸서리치며 긴장했다.

"쉬… 긴장하지 마라. 엉덩이를 쑥 내밀어. 그렇지, 좀더 벌려 봐. 그래,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

아픔으로 인한 눈물이 트리스탄의 뺨에 흘렀다. 다리가 격렬하게 떨리면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그 크고 딱딱한 남근상이 항문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갔다. 항문이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했다. 트리스탄은 이 시간 만큼 고통스러웠던 적도 없었다. 남근상이 앞뒤로 움직였다. 항문이 꽉 메워지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트리스탄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아니, 어째서 눈물을 흘리지?"

그녀는 트리스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왼손으로 머리를 높게 치켜들었다.

"전에 한번도 남근상을 달아본 적이 없느냐?"

그녀가 물었다.

"이제부터 너는 항문에 남근상을 넣지 않고 있을 때가 드물 것이다. 자 다리를 넓게 벌려라. 니콜라스, 다른 남근상을 이리 줘요."

그녀가 주인에게 더 큰 남근상을 요구했다. 소리죽인 채 트리스탄은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행동도 나타낼 수 없었다. 그녀가 순하게 웃으며 또 다시 트리스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작은 남근상이 트리스탄의 항문에서 빠르게 빠져나갔다. 고통을 느꼈던 자리에 이상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크림을 더 찍어내어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항문을 비집어 열고서 깊숙히 문질러 넣었다. 큰 남근상이 항문을 비집고 들어오자 트리스탄은 신음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엉덩이를 뒤로 빼. 벌려, 벌리라구… "

트리스탄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당장이라도 저항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이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가며 항문을 넓혔다. 몸속 깊은 곳에서도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점차 처음의 심한 고통이 사라졌다. 항문이 점차 확대되었고, 움직임마저 부드러워졌다. 더구나 남근상에 달린 간질간질한 털이 엉덩이에 닿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쓰다듬는 것이 트리스탄을 흥분시켰다. 그녀는 남근상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트리스탄의 항문 속으로 열심히 넣었다 빼고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그것은 찬사의 말이었다. 트리스탄은 얼굴과 가슴 속에 열기가 자꾸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작은 남근상을 규칙적으로 자주 달고 있어야 하며, 큰 것은 필요하다고 보일 때 달게 할 것이다."

"좋습니다."

트리스탄의 주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커다란 기구를 트리스탄의 엉덩이에서 빼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주의 깊게 트리스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눈이 가볍게 깜박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 이제 말을 타고 농장으로 나가봐야 할 시간이 됐다."

주인이 트리스탄에게 말했다.

"나는 이미 네가 끌 마차를 한대 대기시켜 놓도록 명령해두었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가늠해 볼 겨를도 없이 주인의 단단한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나갔다. 걸음을 옮기자 남근상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트리스탄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며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인간 마차

'안돼, 이렇게 짐승처럼 장식을 달고 추한 몰골로 밖으로 끌려나갈 수 없어, 제발… ' 트리스탄은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저항하고 싶었지만, 서둘러 뒷쪽의 복도를 통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성벽이 양쪽으로 막고 있는 넓은 도로가 나타났다. 그 도로는 트리스탄이 주인과 함께 지나왔었던 곳보다 훨씬 넓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도로 주위에 서 있었고, 성벽 위에는 여유있는 모습으로 감시병들이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거리에는 말대신 노예들이 끄는 사륜마차와 이륜경마차들이 덜커덕거리며 지나다녔다. 트리스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을 사이도 없이 주인의 마차 앞으로 끌려갔다. 이미 마차를 끄는 노예들이 발이 꼭 묶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역시 엉덩이에 말꼬리 장식을 달고 있었다. 집안에 있던 여자가 뒤따라 나오자 주인은 그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뻗어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동시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트리스탄을 앞으로 밀어 마차와 가장 가까이에 짝을 채워주었다.

'안돼. 제발.' 성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수없이 트리스탄은 생각했

다. 그러나 저항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저항해야 한다는 믿음에 회의가 일었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있었다. 그들은 다른 노예들처럼 트리스탄의 입에도 길고 두꺼운 재갈을 꽉 물려놓았고, 어깨 위로 고삐를 매주었다. 트리스탄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고삐가 두 번 확 당겨지자 그것을 신호로 마차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리스탄의 곁에 있는 노예가 의기충천해 걸으며 무릎을 높이 쳐들었다.

"더 빨리, 트리스탄. 그 보다 더 빨리. 내가 가르쳐준 행진방법을 기억해."

주인이 외치며, 트리스탄의 넓적다리와 엉덩이에 채찍을 내리쳤다. 정신없이 트리스탄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뛰었다. 그들은 아주 멀리까지 여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주를 하듯이 달렸다. 마구를 단 채 노예들은 서로 빨리 달리려고 긴장해 있었다. 장딴지의 튼튼한 근육들이 탱탱한 가죽장화 위로 튀어나왔다. 고삐가 트리스탄의 머리를 더 높게 잡아당기며, 가죽 채찍이 허벅지를 후려치자 트리스탄은 신음을 내질렀다. 눈물이 더 많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신음소리가 재갈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 오히려 트리스탄은 다행이라 생각했다.

고삐가 다시 세 번 당겨졌다. 그리고 노예들의 발걸음이 일률적으로 점점 느려지며 속도가 줄어들었다. 턱까지 차오른 숨을 내쉬며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 트리스탄은 다른 노예들과 보폭을 맞추었다. 가죽 채찍이 트리스탄의 옆에 있는 노예를 내리쳤다. 활처럼 등을 굽히고 그는 무릎을 더 높게 들어올렸다.

"머리를 쳐들어, 트리스탄."

주인의 목소리가 트리스탄의 뒷덜미에 날카롭게 꽂혔다. 주인은 고

삐를 잡아당겨 그의 머리를 뒤로 낚아챘다. 중심을 잃고 트리스탄은 넘어질 듯이 휘청거렸다. 재갈 문 입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트리스탄은 빠르게 뛰었다. 남근상은 트리스탄의 몸 속에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았고, 온몸의 신경이 그곳에 가 있어,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육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갈을 문 채 트리스탄은 흐느껴 울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어 가면서 좀 더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애썼다. 뒤에서 주인과 그녀의 대화소리가 혼탁한 노예들의 호흡소리에 섞여 트리스탄의 귀에 들렸다 들리지않았다 했다. 귀가 멍해지면서 트리스탄의 몸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신이 점점 나약해지고, 의지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있었다.

그들의 무리가 한 모퉁이를 돌자 길이 넓어졌다. 몸속에 박힌 남근상이 움직일 때마다 트리스탄을 들어올리고 앞으로 밀었다. 채찍은 쉴 사이 없이 장딴지를 휘감았다.

여전히 숨은 찼지만, 속도가 느려져 트리스탄은 간혹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얼굴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겁기보다 미풍 속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높은 출입문을 지나 일행은 마을을 빠져나왔다. 아침에 트리스탄과 노예들이 들어온 곳은 아니었다. 마을을 나서자 초가집들과 작은 과수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넓은 경작지가 펼쳐졌다. 길 아래의 흙은 새롭게 파헤쳐져 있었다. 트리스탄은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대지의 부드러움을 음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동시에 두려움으로 온몸을 엄습해왔다. 트리스탄은 자신의 성기가 서서히 발기되면서 몸속 깊은 곳에서 꾸물꾸물 일어나는 야릇한 흥분을 숨길 수 없었다.

전라의 노예들이 밀밭에서 연장을 매고 기어다니며 일하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현기증과 함께 점점 더 까마득히 사라져가는 희망을 느꼈다. 다른 마차들이 트리스탄 일행을 지나칠 때마다 그는 더 자세히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작은 도로를 돌아들어가 높은 지붕과 굴뚝이 솟아있는 장원 쪽으로 부리나케 걸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가죽 채찍이 트리스탄의 등을 후려쳤고, 그럴 때마다 온몸의 근육에 경련이 일었다.

고삐가 갑자기 세게 당겨지며 노예들이 일제히 멈추었다. 고개가 뒤로 꺾여지며 트리스탄은 비명을 내질렀다. 두꺼운 가죽 재갈 때문에 다행히 비명은 밖으로 크게 새나오지 않았다. 마차가 갑자기 정지하자 뒤에서부터 날려온 먼지가 도로 위에 차분히 가라앉았다.

농장과 마구간

몇명의 벌거벗은 남자노예들이 트리스탄의 일행 쪽으로 다가왔다. 주인과 그녀가 뒤에서 내릴 때 마차가 잠시 삐그덕거리며 흔들렸다. 햇볕에 그을려 짙은 갈색의 얼굴빛을 한 노예들이 트리스탄 일행에게서 매어둔 마구들을 벗기기 시작했다. 엉덩이의 남근상도 빼어 마차에 그대로 달아놓았다. 트리스탄은 헐떡거리며 입에 물린 재갈을 풀었다. 온몸이 가벼웠다.

헐겁게 옷을 걸쳐입은 두 명의 젊은이가 손에 나무몽둥이를 든 채 나타났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트리스탄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마구간임에 틀림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곧 그들은 허리를 나무 들보 위에 굽힌 채 앞에 매달려 있는 가죽고리를 이로 물고 있어야 했다. 뱃가죽에 닿는 나무가 살갗에 배겼다. 트리스탄은 그 고리를 물자, 발바닥이 거의 땅에서 떨어졌다. 팔은 여전히 등뒤로 묶인 상태였다. 트리스탄은 입으로 고리를 물고 있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다른 노예들처럼 고리의 부드러운 가죽을 꼭 물고 늘어졌다. 쑤

시고 아픈 둔부와 다리 위로 따뜻한 물이 뿌려졌다. 트리스탄은 무엇에 대해서건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은 적도 거의 없었다.

마침내 노예들의 몸에 물기가 다 마르자 근육에 기름이 칠해졌다. 트리스탄은 목을 고통스럽게 쭉 뽑았을 때조차도 그것은 환희였다. 헝클어지고 초라한 머리에 햇볕에 탄 갈색 피부의 노예들이 아주 거칠고 빠른 손동작으로 매맞은 자리와 찢어진 상처를 꾹꾹 눌렀어도, 트리스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트리스탄은 고리를 물고 있으면서도 기뻐서 신음하는 소리를 사방에서 들을 수 있었다. 노예들의 신들은 다 벗겨졌고, 얼얼한 트리스탄의 발에도 기름이 발라지자, 그는 묘하게 욱씬거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 다음, 그들은 또 다른 기둥으로 끌려와 똑같은 방법으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채, 마치 진짜 말처럼 여물통에서 먹이를 핥아먹었다.

노예들은 게걸스럽게 먹어댔다. 트리스탄은 굴욕감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다. 얼굴을 그릇 속에 집어넣었다. 맛은 괜찮았다. 눈물이 울컥 눈에 고였고, 다른 노예들처럼 먹이를 핥아먹었다. 남자노예중 하나가 트리스탄의 머리카락을 들어올려 다정하게 쓸어내렸다. 마치 아름다운 말을 쓰다듬 듯이 그는 트리스탄을 어루만졌다. 엉덩이도 토닥거렸다. 다시 굴욕감이 가슴 속에 느껴졌지만 트리스탄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음식을 거의 다 핥아먹었을 때, 우유 한 사발이 다시 트리스탄의 얼굴 앞에 밀어넣어졌다. 우유까지 다 핥아먹고, 신선한 물을 약간 마시고나자 고통스러웠던 다리의 근육이 모두 풀려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채찍을 맞은 자리는 화끈거리고 엉덩이의 상처는 벌겋게 부풀어올라 있었다. 남근상 때문에 넓게 벌려진 항문이 여전히 뻐끔이 벌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팔이 뒤로 묶여 있는 여

섯 노예 모두 똑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그들이 똑같지 않을 수 있을까.

트리스탄의 머리가 들려지고 긴 가죽줄이 달린 또 하나의 고리가 입에 억지로 부착되었다. 그리고 재갈이 물려지고 또 다시 어디론가 끌려갔다. 여섯 노예 모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피부가 검은 한 노예를 따라 과수원 쪽으로 뛰어갔다.

그들은 굴욕감으로 투덜거리며 신음하며 빠르게 걸었다. 발밑에서 풀이 짓밟혀 쓰러졌다.

누군가에게 머리가 잡힌 채, 트리스탄은 입에 달린 고리가 제거되는 것을 느꼈다. 위로 뻗은 나무가지가 태양을 막으며 푸른 그늘을 만들었다. 트리스탄은 곁에 있는 부인의 아름다운 붉은 색 공단옷을 보았다. 그녀는 남자노예가 했던 것처럼 트리스탄의 머리를 잡고 들어올렸다. 트리스탄은 잠깐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몹시 하얗고, 검은 눈동자가 맑게 반짝였다. 그러나 그는 즉시 눈길을 밑으로 내렸다.

"너는 부드러운 입을 갖고 있느냐?"

그녀가 물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주위의 다른 노예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주했지만, 고개를 돌려 트리스탄은 명확히 살펴볼 수도 없었다. 부인이 트리스탄의 얼굴을 풀더미 속으로 밀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트리스탄 앞에 놓여있었다.

"네가 부드러운 입을 가졌다면 저 사과를 입으로 물어서 다른 노예들이 하는 것처럼 저기 있는 바구니에 흠집 하나 내지않고 담아보아라."

그녀가 트리스탄의 머리를 놓아주며 말했다. 그는 사과를 물고 미친듯이 바구니로 걸어갔다. 다른 노예들이 빨리 일을 했기에 그도 속

도를 맞추기 위해 서둘렀다. 부인의 치맛자락과 부츠 뿐만아니라 멀리 서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트리스탄은 필사적으로 일을 했다. 정신없이 사과를 찾아 날랐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사과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트리스탄은 주춤거렸다. 갑자기 남근상이 그의 항문에 거칠게 박혔다. 주춤거리며 앞으로 밀려나면서 트리스탄은 긴 막대기에 연결된 남근상이 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둘러 다른 노예들의 뒤를 쫓아 과수원 더 깊숙히 들어갔다. 다시 사과를 물고 트리스탄은 바구니 쪽으로 나왔다. 그 남근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트리스탄은 열심히 움직였다.

바구니에 사과가 가득 차고 노예들이 사과를 물고와도 헛일이었다. 다시 노예들은 양팔이 묶인 채 마구간을 향하여 빠르게 걸어갔다. 마구간에 들어서려할 때 트리스탄은 갑작스런 두려움에 주춤했다. 예외없이 채찍이 등짝을 내리치자 트리스탄은 건초가 깔린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노예들은 하나씩 집합시켜 놓은 다음, 길고 굵은 들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팔꿈치가 앞으로 나온 채 두 손을 들보에 모두 묶었다. 다리는 넓게 벌리고 앉아있어, 음경과 고환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렇게 다섯 명의 노예가 빠르게 묶여졌다. 트리스탄은 자신도 그들처럼 똑같이 벌을 받길 기다렸다. 자신만 남겨져 있는 것이 더욱 두려웠다.

트리스탄은 기어서 제일 첫번째 노예가 있는 쪽으로 끌려갔다. 제일 첫번째 노예는 그 마차를 리드해 이끌던 노예였다. 체격이 튼튼하고 금발머리였다. 트리스탄이 다가가자 그 노예는 몸을 뒤틀며 좀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 애썼다. 트리스탄은 자신이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고환을 먼저 혀로 잘 씻어내."

뒤에 서 있는 말구종의 딱딱한 목소리가 트리스탄을 재촉했다. 그

는 서둘러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 트리스탄이 입을 벌리자 그 노예는 엉덩이를 앞으로 움직였다. 부드러우면서 짭짤한 피부가 트리스탄의 혀끝에 느껴졌다. 그리고 고환을 들어올려 입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굴렸다. 그런 다음 다시 핥으며 그것을 입속에 품으려 애썼다. 따스한 살결과 짭짤한 소금기가 트리스탄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 노예 또한 트리스탄이 그곳을 핥을 때마다 꿈틀거리며 환희에 몸부림쳤다. 유난히 근육이 발달한 그의 다리가 최대한으로 위로 치솟았다. 트리스탄은 그의 음낭을 모두 입안에 넣고 빨면서 살살 깨물기도 했다. 그리고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트리스탄은 약간 뒤로 물러난 다음, 그것을 입속에 물고 음모가 있는 부분까지 정신없이 빨아대며 내려갔다. 입을 앞뒤로 움직이다가 트리스탄은 그 노예가 자발적으로 리듬에 맞춰 음경을 입속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뒤에 서있던 말구종이 트리스탄의 엉덩이에 남근상을 디밀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성기가 트리스탄의 입속을 들락날락하며 이빨에 스칠 때마다 엉덩이의 남근상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굵고 축축한 음경 때문에 점점 더 황홀해졌다. 부드러운 음경끝이 트리스탄의 입 천장에 와닿았을 때, 그는 창피한 줄도 잊은 채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똑같이 리듬에 맞추었다. 트리스탄의 허리가 아래위로 꿈틀거리며 요동쳤다. 한참 절정을 만끽하는 순간 노예의 그것이 트리스탄의 목구멍에 사정을 했다. 그러나 흥분해 허공에 떠있는 듯한 트리스탄의 기분은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 그는 그 액체를 목구멍 속으로 삼켜버렸다.

트리스탄은 제자리로 끌려왔다. 핥아먹을 수 있도록 포도주 한 접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다음 노예에게로 끌려갔다. 그는 이미 흥분하여 벌써 몸을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런 노동을 한바탕 치르고 났을 때, 트리스탄은 턱이 얼얼했다.

목구멍에도 통증이 몹시 느껴졌다. 이제 버티고 선 말구종의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굴욕적이고 괴로운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시켜주길 트리스탄은 간절히 바랬다.

말구종은 트리스탄을 그 들보에 다른 노예들처럼 묶었다. 그리고 그는 노예들을 마구간에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트리스탄이 노예들을 만족시켜 주듯이 그를 만족시켜 줄 노예는 없었다. 어찌할 도리없이 트리스탄은 엉덩이를 뒤틀며 부드럽게 소리죽여 신음했다.

마구간은 이제 조용했다. 노예들은 거의 잠들어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증기처럼 열린 문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트리스탄은 언뜻 잠이 들었다. 꿈결에 깨어났다. 옆에 있는 노예의 조용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넌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 해."

그는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노예들처럼 그의 얼굴도 아름다웠다.

"한 사람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새로 들어온 노예가 있으면 그가 항상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출되지만, 그 뽑힌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만 해."

"그래, 알겠어."

트리스탄이 비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다시 잠드는 것 같았다. 트리스탄은 혹시나 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궁금해 한 점을 물었다.

"우리 여주인의 이름이 뭐야?"

"쥴리아 부인. 그러나 그녀가 내 주인은 아니야."

그는 맥없이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쉬라구, 편하지는 않지만, 너는 휴식이 필요한 거야. 내 말

들어."

"내 이름은 트리스탄이야. 넌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니?"

"두 해 정도 되었어."

그가 계속 속삭였다.

"내 이름은 제라드야. 나는 성에서 도망치려고 마음먹고 거의 다른 왕국 경계선까지 달아났었어. 그러나 도망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않아 한 떼의 농부들이 몰려와 나를 붙잡아갔지. 그들은 결코 도망치는 노예들을 도와주지 않아. 나는 그들의 오두막 집에서 옷을 훔쳤었지. 그들은 그 옷을 벗기고 나를 다시 데려갔지. 나는 3년간 마을에서 지내도록 판결을 받았어."

"부모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니? 그들이 너를 여왕에게 보낼 땐 복종하도록 가르쳐 주었을 텐데."

"그래, 나는 여왕을 몹시 무서워했어,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거야."

"그 후로 다시 시도했었니?"

"아니. 나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노예 중에 하나야. 나는 공공의 마구간으로 즉시 팔렸어. 니콜라스 주인과 쥴리아 부인이 나를 자주 빌려갔지. 나는 매일 부유한 남녀 주인들에게 받쳐졌어. 지금 나는 여왕 전하의 관대함을 받아 하루빨리 성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울지않을 거야. 힘들게 정신없이 부림을 당하지 않으면 아마 나는 항상 걱정에 빠져있을 거야. 가끔씩 나는 안달이 나서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치지만 솜씨좋은 매질이 나를 진정시켜 놓더군. 나의 주인은 내가 언제 매를 필요로 하는지까지 알고있다구. 나는 당신 주인의 마차처럼 멋진 마차를 끄는 것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마구들과 고삐를 좋아하며, 그는 딱딱한 가죽 채찍을 휘두르시지. 그는 바로 여왕의 연대기 편찬

자이셔. 때로 그는 나를 세워놓고 머리를 문질러보거나 꼬집어 보곤 하지. 그러면 즉각 내 감정도 흥분되지. 그는 내 음경에 대한 재량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를 괴롭혀 놓고난 다음, 그것을 보고 한참 웃어대지. 그를 존경해. 한번은 그가 나에게 이륜 짐마차를 끌게하고 자기는 그 옆에서 걸어가기도 했지. 나는 그 작은 짐마차들을 증오해. 그러나 너의 주인과 함께 있으면 자랑스러웠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지."

"그게 왜 아름다웠지?"

트리스탄은 그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말꼬리털과 그의 옆을 걸어가는 주인의 호리호리하고 우아한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햇볕을 받아 빛나는 저 아름다운 흰 머리. 진지해 보이는 야윈 얼굴, 그리고 그윽하고 깊은 눈동자.

"몰라,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그저 바쁘게 움직일 때가 좋아. 한번은 시골로 저녁산책을 가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왔지. 모든 여자들이 대문 앞에 나와 그에게 인사를 했어. 가끔씩 너의 주인은 내 머리카락을 목뒤로 들어올려 쭉 펴놓기도 했지. 그는 내 머리가 뒤로 제쳐지도록 고삐를 높게 매고, 내 장딴지를 여러차례 찰싹거리며 때렸지. 그것은 내가 매를 맞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좋아했기 때문이야. 길을 걸을 때, 저벅저벅 내 옆에서 걸어가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은 내게서 가장 유쾌한 일이야. 내가 다시 성에 가게될지 어떨지 걱정도 안해. 너의 주인, 그분께서는 언제나 나를 요구하시거든. 다른 노예들은 그를 무서워해. 엉덩이가 붉어져 마구간으로 돌아온 노예들은 그가 다른 사람의 두배를 더 때린다고 말하더군. 그러나 나는 그를 존경해"

그는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곧 잠들어버렸고, 트리스탄은 아주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서, 그가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넓적다리가 아파왔다. 트리스탄은 그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트리스탄과 그 일행들이 다시 마차가 있는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하늘은 거의 어둑어둑했다. 마구들과 남근상이 다시 그들의 몸에 채워졌다. 트리스탄은 몸에 마구들이 채워지고 있는 제라드의 모습을 보았다. 장비가 몸에 더 잘 채워지도록 하려는 듯이 그는 머리를 쳐들고 부츠 신은 발을 쿵쿵 구르고 있었다. 그리고 남근상이 트리스탄의 몸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가죽끈이 온몸을 세게 옥죄었다. 덜커덩거리며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빠르게 도로를 내려가 농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트리스탄은 비탈길을 올라갈 때 벌써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야트막한 고개를 넘자 마을의 흉벽이 아련하게 나타났다. 북쪽과 남쪽 탑에서는 벌써 불빛이 빛났다.

묵직하고 굵은 남근상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는 것처럼 트리스탄은 고통스럽게 느꼈다. 끊임없이 가죽채찍을 맞긴했지만, 한번도 꾸짖음은 당하지 않았다.

주인의 집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트리스탄은 갑자기 제라드의 말을 생각해보았다. '그가 다른 왕국으로 도망쳤을 때 거기서 그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부모는 여왕의 능력이 무한하기에 복종한 댓가로 보상을 받게 되고, 또 지혜도 키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트리스탄은 탈출하려는 생각은 아직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더욱 불안스럽게 만드는 생각이었다.

주인집 문 앞에 마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트리스탄의 몸에서 마구들과 가죽끈이 풀어지고, 다른 노예들은 빈

마차를 끌고 그대로 채찍을 맞으며 공동마구간 쪽으로 끌려갔다. 트리스탄은 우두커니 서서 제라드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다.

부인이 트리스탄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그의 머리를 쳐들고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내릴 때 이상하게도 트리스탄은 뜨거운 전율이 몸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리, 이리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흰 린넨 손수건으로 트리스탄의 이마와 뺨을 닦아주었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트리스탄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음경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트리스탄이 끼고 있던 남근상을 급하게 빼는 바람에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트리스탄은 경계의 눈초리로 그녀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리고나서 집안으로 사라졌다. 트리스탄은 떨면서 높이 솟은 뾰족한 지붕과 그 위에 반짝이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쳐다보았다. 주인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주인 손에는 평상시처럼 굵은 가죽 채찍이 들려있었다.

그는 트리스탄을 말없이 돌려세운 다음 포장된 도로를 따라 시장쪽으로 다시 걸어가게 했다.

여관에서 보낸 병사들의 하룻밤

멎시간 동안 뷰티는 잠을 잤다. 그리고 호송대장이 종치는 줄을 잡아당기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명령도 하지 않고 옷을 입었다. 그녀가 완전히 두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벽난로의 불빛 속에서 그는 아직 벨트를 잠그지 않은 채 뷰티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빠른 몸짓으로 대장은 허리에서 벨트를 풀어 옆으로 휙 내던졌다. 뷰티로선 그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얼굴빛이 경직되어 있으면서도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뷰티의 음부는 즉각 그의 요구를 알아챘다. 그녀는 몸속에서 부드럽게 액체가 흐르듯 움직이던 정열이 심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장은 뷰티를 일으켜세웠다. 목덜미를 다시 누르며 그는 무릎을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세로 있게 했다. 가죽채찍으로 뷰티의 다리 사이를 호되게 때리며 불룩한 치골을 자극할 때,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다시 강한 채찍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뷰티는 복종한다는 뜻으로 거기에 입술을 대고 엉덩이를 아래위로 흔들어댔다. 또 다시 매질이 가해졌으나,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때려 거의 애무하듯이 그녀의 살갗을 스쳤다. 뷰티는 바닥에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입을 벌린 채 헐떡거렸고, 엉덩이를 더 높이 들어올렸다.

대장이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얼얼한 엉덩이를 큰 손으로 감싸쥐고서 천천히 돌렸다. 뷰티는 숨이 콱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의 엉덩이가 그의 손에 의해 들려졌다 내려졌다 했다.

"엉덩이를 더 흔들지 못해."

나즈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대장이 명령했다. 이마가 마루바닥에 닿도록 그는 뷰티의 엉덩이를 높이 쳐들었다. 젖무덤도 울렁울렁 흔들렸다. 신음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녀가 성에서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엉덩이를 흔들었다.

대장이 채찍으로 그녀의 작은 언덕을 때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뷰티의 음부를 문지르기 무섭게 축축히 젖으며 커졌다. 점점 더 크고 빠르게 원을 그리며 뷰티는 엉덩이를 흔들었다. 채찍이 그녀를 세게 치면 칠수록 음부는 더욱 흥건히 젖어갔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때리는 채찍소리도, 자신이 내질러대는 울부짖음에 가까운 신음소리조차도 깨달을 수 없었다.

드디어 채찍질이 끝났다. 대장은 난로 옆에 있는 작은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이 후로, 이 방을 쓸고 닦고, 침대보를 갈고, 불을 피우는 일따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 여관 마당에서 주둔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뷰티는 즉시 빠르고 조심스럽게 기어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대장이 그 방에서 나가자, 로저가 양동이와 쓰레받기, 걸레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침대보를 가는 방법, 난로에 장작을 잘 타도록 쌓는 요령, 재를 치우는 방법등, 자질구레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뷰티에게 가르쳐줬다. 뷰티가 고개만 끄덕거릴 뿐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 생각이 들지않았다.

대장은 '매일'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그녀를 매일 고용하겠다는 뜻이었을까! 그녀는 사자 간판집 소유일지 모르지만, 그 여관의 최고 숙박인에게 선택된 것이었다.

뷰티는 일을 잘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를 가지런히 손질해놓고, 탁자를 닦았다. 항상 무릎을 꿇고, 반드시 일어서야 할 때만 일어서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시 방문이 열리고 로클리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뷰티의 머리를 잡고서 채찍으로 그녀를 계단 아래로 몰고 내려갔다. 뷰티는 대장이라는 존재로 해서 마음을 한결 편안히 가질 수 있었다.

뷰티는 엉성하게 나무로 만든 큰 욕조 속에 들어가 서 있었다. 횃불이 여관문과 헛간 옆에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로클리 부인이 포도주를 섞은 물로 뷰티의 질을 대충 씻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뷰티의 엉덩이에다 크림을 발랐다. 이쪽 저쪽으로 몸을 굽히게 하고, 다리를 쪼그려앉게 한 다음, 뷰티의 음모에 비누칠을 해 깨끗이 씻어냈다. 대충 몸에 물기가 말라가도 부인은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도 않았다.

몸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고, 뷰티의 머리 빗질이 다 끝났을 때, 부인은 욕조 가장자리에 발을 올려놓고 뷰티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녀의 넓적다리를 몇 번 찰싹 때렸다. 부인은 뷰티를 밀어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리게 했다. 헐떡거리면서도 뷰티는 침착하려 애썼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했다. 호되고 조급한 명령조차도 없었다. 뷰티는 로클리 부인을 쳐다보았다. 부인의 얼굴엔 냉담한 미소만 서려있었다. 갑자기 부인은 뷰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가까이 다가섰다.

"그래, 너는 나의 작은 말썽꾸러기가 되려고 했지. 나는 아침식사 때의 휴식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네 작은 엉덩이를 못살게 굴었고 말야."

"아마 당신은 여전히 그럴테지요."

뷰티는 아무 생각도 의도도 없이 작게 말해 버렸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뷰티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로클리 부인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입가에는 억지로 미소를 억누르고 있었다.

"아침에 나는 다른 모든 노예들과 함께 너를 볼 거야. 대장이 가고, 여관이 조용해지면, 매를 맞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노예들만이 있는 아침에 말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지않고도 입을 열도록 가르쳐주지."

그러나 표정과는 달리 부인은 유달리 정답게 속삭였고, 안색이 붉게 감돌았다. 그녀는 대단히 예뻤다.

"이제, 빨리 걸어가."

부인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여관의 그 큰 방에는 벌써 병사들과 다른 술꾼들로 꽉 차 있었다. 난로에는 불꽃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활활 타올랐고, 고기 굽는 쇠꼬챙이에서는 양고기가 꿰어져 구어지고 있었다. 노예들은 머리를 숙이고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며 많은 백랍 술병에 포도주와 술

을 따라주기 바빴다. 뷰티는 무거운 승마용 부츠를 신고 칼을 차고 있는 거무틱틱한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노예들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접시를 내려놓고, 엎질러진 음식물을 훔쳐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기어다니며 바닥에 걸레질을 하였다. 혹은, 장난으로 톱밥 속으로 집어던진 동전을 되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럴 때마다 뷰티는 번들거리는 전라의 엉덩이들과 어슴푸레 빛나는 노예들의 음모를 보았다.

희미한 모퉁이에서 류트를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템버린으로 박자를 맞추고 호른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며 류트소리와 잘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음악소리는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함에 묻혀 자세히 들을 수도 없었다. 병사들과 술꾼들은 여기저기서 술을 달라고 외쳤고, 더 예쁜 노예들이 시중들게 해달라고 윽박질렀다.

뷰티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지 몰랐다. 왼편에서는 갑옷조끼를 입은 건장한 수비대 장교가 옅은 분홍빛 머리를 가진 공주를 질질 끌고가 탁자 위에 세워놓았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녀는 빠르게 춤을 추었고, 시키는 대로 깡충깡충 뛰기도 했다. 앞가슴이 미친듯이 흔들렸고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채 빛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섬세한 사지를 가진 또 하나의 여자노예가 병사들의 거칠은 무릎 위에 올려져 엉덩이를 찰싹찰싹 맞았다. 그 여자노예가 얼굴을 황급하게 손으로 가리려하자, 한 구경꾼이 그녀의 손을 우악스럽게 꼭 붙들었다. 벽에 붙은 물통에서는 더 많은 전라의 노예들이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쑥 내민 채 손님들에게 뽑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방 한구석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붉은 곱슬머리를 가진 한 아름다운 남자노예가 몸집이 큰 병사의 무릎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었다. 그 병사가 노예의 발기된 성기를 슬슬 문지르자, 서로 입을 맞추며 얽혔

다. 노예는 대충 깎은 그 병사의 턱수염을 핥아댔고, 그의 턱을 살살 깨물기도 하다가 입술을 열고 다시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썹이 강한 욕망 때문에 찌푸려졌다. 그는 마치 거기에 묶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어찌할 수 없이 앉아 있었지만, 병사의 무릎이 움직이면 그의 둔부도 치켜올려 졌다. 그 병사는 남자노예가 펄쩍펄쩍 뛰도록 장난스럽게 그의 넓적다리를 찔러보기도 했다. 그는 병사의 목을 느슨하게 끌어안고, 오른손은 숱 많은 병사의 머리 속에 집어넣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구석에 있는 한 검은 머리 여자노예는 두다리를 넓게 벌리고 손으로 발목을 잡은 다음 빙빙 돌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끌렸다. 그 때 그녀의 부드러운 음부에 병사들이 술을 들이부은 다음 허리를 굽혀 곱슬곱슬한 그녀의 음모로부터 장난스럽게 그 술을 핥아 먹었다. 갑자기 그녀가 물구나무를 서며 다리를 위로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한 병사가 그녀의 음부에 술을 부어 흘러 넘치게 했다.

뷰티가 술병과 김이 나는 음식이 담긴 양은접시를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로클리 부인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뷰티의 얼굴은 멀리 있는 대장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돌려졌다. 대장은 벽에 기댄 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의자 위로 다리를 쭉 뻗은 채 눈을 뷰티에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로클리 부인은 뷰티에게 음식을 나르도록 지시했다. 뷰티는 음식을 높이 쳐들고, 대장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앞에 있는 식탁에 놓았다. 팔꿈치에 몸을 의지하고 비스듬히 누워 대장은 뷰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치 그들 둘만 있는 양 그는 뷰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고 떠들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댔다. 허리에 차고 있는 대장의 금빛 나는 단검이 촛불에 번쩍였다. 깨끗하게 다듬은 입술 위의 짧은 털과 눈썹도

금발머리와 함께 촛불에 빛났다. 그녀의 머리를 어깨 뒤로 들어 올려 아래로 쓸어내리던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목과 팔에 닿았을 때, 뷰티는 몸을 부르르 떨며 두 다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을 느꼈다. 그녀는 얼굴로 피가 확 쏠려짐을 느꼈다. 사방의 병사들도 그녀를 보기 위해 얼굴을 돌렸다.

"여왕 전하께 충성을 다한 나의 병사들을 위해, 건배."

대장이 뷰티를 껴안은 채 소리쳤다. 그러자 병사들이 즉시 발을 세게 구르며 요란스럽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누가 제일 먼저 할테냐?"

대장이 다시 소리쳤다.

뷰티는 흥분된 음부에서 분비물이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병사들이 뷰티 주위로 몰려오자,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욱 두려워졌다. 몸집이 크고 우락부락한 한 남자가 그녀 앞으로 일어서 다가왔다. 뷰티를 꼭 껴안고 대장에게서 데려갈 때, 그 남자는 엄지손가락을 부드럽게 그녀의 보들보들한 겨드랑이 아래로 밀어넣었다. 가쁜 숨결이 뷰티의 목구멍 속에서 헐떡였다.

다른 병사들의 손이 뷰티가 두 다리로 그 남자의 허리를 감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머리가 뒤로 젖혀져 벽에 닿는 것을 느끼자, 머리를 받쳐들기 위해 손으로 뒷덜미를 감쌌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오른손을 내려 자신의 반바지를 풀어내렸다.

뷰티는 그에게서 마구간 냄새와 술냄새, 그리고 햇볕에 갈색으로 짙게 탄 피부와 생가죽의 상큼한 냄새를 맡았다. 그의 음경이 뷰티에게로 돌진하여 그녀의 팽창된 음순을 벌릴 때, 그의 검은 눈이 잠시 떨렸다 잠겼다. 뷰티도 극도로 흥분되어 엉덩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더 큰 이름없는 감정 속에 녹아 사라졌다. 그녀는 계속하여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도 뷰티의 겨드랑이 밑으로 끼운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어두침침한 주위에서 뷰티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시끄럽던 소리도 가물가물 멀어져갔다.

그 남자의 음경에서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몸 속으로 쏟아질 때, 뷰티는 모든 분별력을 잃었고, 입이 벌이진 채 자신도 모르게 환희의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전라의 몸으로 얼굴이 붉게 물든 채, 그녀는 술집의 바로 한가운데서 쾌락을 맛보고 있는 것이었다.

뷰티는 다시 병사들의 손에 번쩍 들어올려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식탁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올려졌다. 그리고 무릎을 넓게 벌리고, 양손으로 유방을 받쳐들었다. 굶주린 한 병사의 입이 그녀의 젖꼭지를 빨아대자, 뷰티는 활처럼 등을 굽히며 젖가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시선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 탐욕스런 입은 이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애무하면서, 혓바닥으로 젖꼭지를 거칠게 빨아당겼다.

또 다른 입이 이번에는 그녀의 왼쪽 유방에 달라붙었다. 뷰티는 젖무덤을 핥고 있는 그 두 입에다 자신의 몸을 최대한으로 밀착시키려 애썼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온몸에 격렬하게 감돌았다. 또 다른 손들이 그녀의 다리를 점점 넓게 벌리자, 흥건한 음부가 식탁 위에 거의 닿았다. 여러 개의 손이 그녀의 몸을 더듬어댔다. 그녀의 팔은 강제로 등 뒤로 꺾어진 채 꼼짝할 수 없었다. 잠시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해 들었지만, 그녀는 젖가슴을 미친 듯 빨아대는 입들로부터 몸을 떼어낼 수 없었다. 다리는 더 넓게 벌려졌고 얼굴이 뒤로 젖혀졌다. 뷰티는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옴을 느꼈다. 그러자 벌려진

그녀의 입속으로 남자의 성기가 쑥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털이 북슬북슬하게 나 있는 복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병사들이 자기 유방을 빨던 것처럼 뷰티는 온힘을 다해 그것을 빨았다. 다시 두려움은 썰물처럼 사라지고, 뷰티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다.

그녀의 질 속이 격렬하게 전율했고, 분비물이 넓게 벌려진 넓적다리 사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득한 쾌감이 요동치며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속에 있는 음경은 감칠나게만 할 뿐 그녀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뷰티는 목구멍이 막혀질 정도로 그것을 깊게 빨아 들였다.

그녀의 입안에 흥건한 액체가 뜨겁게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의 젖꼭지를 애무하고 있는 두 입은 여전히 거세게 빨아대면서, 이따금 젖꼭지를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그녀의 아랫도리가 공허하다고 생각할 때, 뷰티는 뭔가가 흥분된 그녀의 그곳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음부에 축축하게 젖은 얇은 피막을 살살 문질러 댔다. 그리고 굶주린 그녀의 질 속으로 그 물건이 쑥 들어왔다. 그것은 거칠고, 보석이 박힌 단검의 손잡이었다. 뷰티는 분명 대장의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그것에 철저히 복종해야 했다.

그녀는 엉덩이를 위로, 더 위로 밀어올리면서, 소리죽여 부드럽게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또 다시 그녀는 오르가즘을 느꼈다. 여관 안의 모든 모습과 소리, 냄새까지도 그녀를 흥분 속으로 몰입시키는 것 같았다. 그 단검의 손잡이가 그녀의 모든 것을 좌우하며 오르가즘을 지속시켰다. 뷰티는 계속해서 교성을 질러댔다. 식탁 위에 누운 채로 몸을 비틀며 그녀는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위에 있는 희미한 대장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단검 손잡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그녀를 고양이처럼 몸부림 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수많은 손들에 의해 허공에 번쩍 들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불룩한 술통 위에 얹혀졌다. 그녀는 눅눅한 술냄새를 맡았다. 머리카락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형형색색의 여관이 거꾸로 보였다. 고개가 뒤로 젖혀진 입속으로 또 하나의 음경이 들어왔다. 억센 손이 그녀의 넓적다리를 술통 굴곡부에 붙인 채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흠뻑 젖어있는 그녀의 질 속으로 또 하나의 음경을 들이밀었다. 그녀는 휘어진 허리의 고통도, 무게도, 몸의 균형도 느낄 수 없었다. 눈 앞에 있는 음낭과 풀어헤쳐진 바지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젖가슴은 여러 손들에 의해 주물러지고, 빨려지고 했다. 뷰티는 손을 더듬어 입에 성기를 밀어 넣은 그 사람의 엉덩이를 찾았다. 아래와 위의 두 음경이 동시에 반복운동을 시작하자, 그녀는 온몸을 통해 타는 듯한 쾌락의 극치를 맛보았다. 그것은 두다리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였다. 두 젖가슴은 더욱 단단하게 팽창했고, 그녀는 자신의 몸 전체가 구멍이 뚫린 성기가 되어있는 것 같은 착각에 젖었다.

뷰티는 억세고 튼튼한 어깨에 두 팔을 의지한 채 앞마당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를 끌고가면서도 갈색머리의 한 젊은 병사는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애무를 했다. 푸른 풀밭 위에는 목욕통 속에 들어가 있는 노예들의 모습이 불빛 아래 보였다.

그녀의 발이 따스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다가와 에워쌌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앉아 손에 든 포도주를 입으로 뿜어 뷰티를 자극하며 몸을 씻어 주었다. 솔과 수건으로 그들은 장난스럽게 그녀의 알몸을 문질렀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시큼하고 시원한 포도주로 그녀의 입을 충족시켜 주고, 입을 맞추려고 서로 경쟁했다. 뷰티는 그 사람들의 얼굴, 웃음, 그리고 가장 굵직한 성기를 가진 남자의 부드러운 피부를 기억하려 했지만, … 그것은 쓸모

없는 짓이었다.

그들은 뷰티를 무화과나무 밑 풀속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 그녀를 붙들고 가던 갈색머리 그 젊은 병사가 뷰티의 몸에 올라타며 꿈꾸듯이 정신없이 그녀를 애무했다. 뷰티도 엉덩이를 들썩이며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질로 그의 음경을 꼭 조여 주었다. 그는 그녀의 알몸 위에서 노예처럼 미친 듯이 큰소리로 헐떡거렸다.

몇 시간 뒤였다.

뷰티는 두 팔로 대장의 목을 감고서 가슴에 기댄 채, 반쯤 졸면서 그의 무릎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대장이 기지개를 켜며 건너편 사람에게 말할 때, 넓은 가슴이 울리는 진동을 뷰티는 느꼈다. 그가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만지며 쓰다듬었다. 그의 팔은 굉장히 크고 힘있게 느껴졌다.

가끔씩 뷰티는 눈을 떠 담배연기 자욱한 실내를 둘러보았다. 다소 전보다 조용하고 질서가 있어 보였다. 대장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도망친 공주'라는 말소리가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도망친 공주'... 뷰티는 졸음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할 수가 없었다. 뷰티는 다시 눈을 감고, 대장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었다. 그러자 대장은 그녀를 더 꼭 끌어안았다.

'대장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야비하고도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를 생각했다. 햇볕에 탄 얼굴의 깊은 주름살들과 빛나는 눈빛을 뷰티는 좋아했다. 그가 그녀에게 조심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도 그들의 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뷰티는 대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혼자 미소를 지어보았다. 그녀는 벌거벗고 떨고 있는 노예에 불과했고, 아무리 비정하고 짐승같지만 그는 그녀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은 트리스탄에게로 향했다. 자신을 반역자라고 트리스탄에게 말한 일이 떠올랐다. 연대기 편찬자 니콜라스와 함께 있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뷰티는 궁금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아마 로저라면 내게 어떤 소식을 가져다줄 지도 몰라.'

뷰티는 이해하기 힘든 이 마을에서도 그 나름대로 비밀정보 루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트리스탄이 무사한지 꼭 알아보고 싶었다. 그를 단지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뷰티는 트리스탄을 꿈꾸며, 다시 수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

▼ ▼ ▼

대연회

그 무서운 마구들을 차지 않았는데도 트리스탄은 여전히 그것들을 걸치고 있는 듯 몸이 무거웠다. 도로 끝을 향해 빠르게 걸어갈 때, 그는 불쑥 전라의 자신의 몸이 너무나 보잘 것 없게 느껴졌다. 많은 마차들이 요란스럽게 그의 곁을 지나갔다. 마차를 끄는 노예들은 다 각다각 소리를 내며 머리를 높이 쳐들고 급히 걸어갔다. 트리스탄 자신이 끌던 마차와 똑같은 꼴이었다. 여전히 그는 아무 생각도 머리 속에 뚜렷이 떠오르지 않았다. 막막한 두려움과 주체할 수 없는 욕망만이 가슴 속에 불안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명심하고 있는 사실은, 잘 생긴 주인 니콜라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그 주인이 바로 자신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밝은 불빛이 정면으로 뻗은 도로를 비췄다. 그들이 마을 끝에 거의 다 도착해, 마지막 건물 주위에서 왼쪽으로 돌았을 때 트리스탄은 시장이 아닌, 넓은 장소를 보았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고, 횃불과 간데라 불빛들이 가득했다. 트리스탄은 술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취한 큰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몇 쌍의 사람들이 팔을 끼고 춤을 추

었으며, 포도주가 가득 담긴 부대를 어깨에 멘 술장사꾼들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새로 온 사람들에게 술잔을 디밀며 술을 권했다.

트리스탄의 주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동전을 한 닢 꺼내주고 술잔을 받아 트리스탄 앞에 들이대며 포도주를 핥아먹도록 했다. 그는 주인의 친절에 감격해 하며 그것을 허겁지겁, 그러나 가능한 한 맵시있게 마셔댔다. 트리스탄은 금방 목구멍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트리스탄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경매인의 말이 생각났고, 확실히 이곳이 그 공공의 벌주는 장소임을 깨달았다.

노예들이 목에 칼을 쓰고 한쪽 구석에 일렬로 정렬해 있었고, 또 다른 노예들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텐트 속에 묶여있었다. 텐트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안내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다. 기둥 둘레에는 손이 묶여있는 노예들이 네 명의 채찍꾼들에게 벌을 받으며 기둥 주위를 원을 그리며 뛰어다녔다. 여기저기에서 한 쌍의 노예들이 먼지 속을 뛰어 돌아다니며, 그들 앞에 던져진 어떤 물건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젊은 남녀들이 주위에서 그 노예들을 부추겼다. 노예들에게 어떤 내기를 걸고 서로 이기길 바라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른쪽 건너편에선 멀리 성벽을 배경으로,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며 마차가 굴러왔다. 그 위에는 독수리 날개 표시를 한 노예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벌개진 넓적다리와 엉덩이는 군중들로부터 날아오는 사과 찌꺼기와 생계란의 표적이 되었다.

트리스탄이 놀라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서 있자, 주인이 그를 재촉하여 걷게 했다. 주인도 사방을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여자노예가 흥분되어 얼굴을 붉히며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성적인 극치감에 가장 먼저 도달한 시합의 우승자였고, 다른 여자노예들은 그들 쪽에 내기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곳의 가장 관심거리는 한 노예가 올라 앉아 채찍을 맞고있는 높은 회전판이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트리스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 공공의 회전판을 얘기하며 위협을 주던 안주인의 말이 기억났다.

트리스탄은 어느새 그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울부짖고 고함치는 많은 구경꾼들 속으로 밀고 들어가 주인은 트리스탄을 목 뒤로 손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노예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은 나무 층계로 끌려올라가 채찍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었다.

믿기지 않는 듯 트리스탄은 주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주인은 곧장 그를 줄 맨 뒤로 데려갔다. 무릎을 꿇고 앉자, 트리스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눈에서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커다란 북소리가 터져나왔고, 군중들이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얼굴을 마주보려고 미친 듯이 몸을 뒤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쓰러져 그의 부츠에 입을 맞추었다. 군중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트리스탄에게 비소를 던졌다.

"저 불쌍하고 못난 놈 같으니라구."

그러자 다른 사람이 조롱했다.

"너는 성에서 향기나는 물에 목욕하던 것이 그립지? 여왕 전하께서 너를 무릎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귀여워 하시며 가볍게 때려 주더냐?"

"저 물건 좀 보게, 저것은 훌륭한 여주인이 필요로 하겠는 걸."

"그 녀석 쓸만하군, 너는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겠지."

한 남자가 트리스탄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트리스탄은 그의 부츠가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오늘 저녁에 가장 멋진 광경을 보여줄 거라는 데에 10 펜스를 걸겠어."

"그런데 누가 그걸 판가름 하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10펜스에 그가 진짜 엉덩이를 움직일까?"

다음 노예가 연단 위로 올라가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다음 노예, 또 다음 노예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트리스탄의 차례였다.

트리스탄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단 쪽으로 다가갔다. 무릎이 떨리고 머리에 현기증이 일었다. 트리스탄은 어떻게든 이 난관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 그의 마음이 자비롭게 변하길 기대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밀치고 들어왔다. 한 여자노예가 비명도 지르지 않고 채찍을 맞으며, 오히려 회전판에 발을 쿵쿵 구르며 날뛰었다. 광장이 다시 북치는 소리에 의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그 여자노예의 매질이 끝나자 다음이 트리스탄의 차례였다. 두 명의 건장한 안내자가 그를 계단 위로 밀어올렸다. 트리스탄은 혼신의 힘을 다해 반항하려 애썼다.

"족쇄를 채우지 마!"

트리스탄은 주인이 엄하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다.

족쇄는 채워지지 않았고, 트리스탄은 미친듯이 버둥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은 쭉 뻗어져, 높은 나무 위에 턱을 올려놓았다. 다리를 쫙 벌리고, 안내자의 거친 손이 이끄는 대로 트리스탄은 두 손을 등 뒤로 꼭 붙였다.

그 다음 트리스탄은 혼자였다. 회전판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커다란 가죽 채찍을 들고 있는 덥수룩한 머리의 우두머리가 회전판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는 꿀같은 크림을 한웅큼 찍어내며 소리쳤다.

"한번도 채찍 맛을 본 적이 없는 풋나기구먼. 금발머리와 튼튼한 다리에 비해 살결이 연하군. 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구경거리를 보여줘야지."

그는 회전판을 반쯤 돌려 트리스탄의 엉덩이에 크림을 철썩 묻히자, 군중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환호했다.

"그 녀석은 크림이 많이 필요할 거요."

그는 트리스탄의 엉덩이에 크림을 골고루 문질러 발랐다. 굵직한 북소리가 연달아 울려퍼지며 트리스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트리스탄은 앞에 펼쳐진 광장 전체의 모습과 무슨 일이 일어나길 몹시 바라면서 입을 헤벌리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불쌍한 노예들은 여전히 오월제의 기둥 주위를 돌고 있었고, 목에 칼을 쓴 노예들은 사람들이 쿡쿡 찌르며 괴롭히자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자, 이제 시작하자. 네가 이 군중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마련해 줄 때까지 이 채찍이 너의 엉덩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두머리는 트리스탄의 턱을 치켜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즉시 군중들 속에서 조롱섞인 웃음과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젊은 노예야. 네가 전에 엉덩이를 흔들어 본 적이 없더라도, 여기서는 그 멋진 엉덩이를 흔들어야 한다. 여긴 바로 그런 곳이니까."

회전판이 돌아가는 동시에, 채찍이 트리스탄의 엉덩이를 거세게 내리쳤다. 트리스탄은 몸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트리스탄의 몸이 회전판 위에서 돌아가며, 채찍이 그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치자 군중들은 미친듯이 소리치며 환호했다. 트리스탄

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고통이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온몸으로 번졌다.

"더 세게, 더 세게 치시오!"

군중들이 소리쳤다.

"엉덩이를 흔들어."

트리스탄은 애써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채찍을 맞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눈꺼풀이 크게 열렸다. 벌어진 입에서 속수무책으로 아픔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채찍이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날아들자 트리스탄은 넘어질 뻔 하다가 겨우 몸을 추스리고 똑바로 섰다. 그리고 트리스탄은 매를 맞을 때마다 굶주린 성기가 갑자기 꿈틀거리며 욕망으로 떨고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광장의 수많은 색채와 모양들이 모두 진흙덩이처럼 뒤범벅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매를 맞으며 돌아가는 몸뚱이가 그 자체로 흩어져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트리스탄은 받았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잡으려 발버둥치지 않았다. 어차피 채찍은 트리스탄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강한 채찍질을 이겨내려 몸을 비틀며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군중들은 트리스탄을 보며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대며 환호했다.

"엉덩이를 흔들어라!"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트리스탄은 정신이 자꾸 멍해지는 것 같았다. 반짝이는 불빛이 군중들의 외침소리에 흔들리는 듯 희미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온몸이 채찍 자국으로 벌겋게 부어올랐다. 군중들이 환호성을 외칠 때, 나무 막대기 같은 트리스탄의 딱딱한 성기가 경련을 일으켰고, 채찍질은 쉼없이 계속되었다. 채찍의 날카로운 마찰음이 군중들의 소리에 섞여 광장을 퍼져나갔다.

성안에 있는 그 무엇도 트리스탄의 정신을 그렇게 빼앗아 놓은 적

은 없었다. 모든 것이 되려 무감각하게 트리스탄의 마음을 텅 비워놓은 듯 했다. 트리스탄은 완전히 버려진 듯한 씁쓸한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끔찍스러웠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의지, 영혼까지도 짓뭉개버린 채 군중들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성기를 달고, 피멍 든 근육을 다 드러낸 몰골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마차를 끄는 말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아우성치는 만인의 유희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 트리스탄은 눈을 감고 맥없이 생각에 잠겼다.

"두 손을 다리 사이로 내려, 네 물건을 가려라."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아무 생각 없이 트리스탄은 자존심을 완전히 접어버린 채 그의 말에 복종했다. 허리를 굽히며 성기를 감싸쥐자 군중들은 발을 구르며 격렬하게 웃어댔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먹다 남은 사과와 빵 부스러기 등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엉덩이와 등, 어깨에는 날계란이 날아와 깨어졌다. 군중들이 던지는 물건이 트리스탄의 성기에 명중 되었을 때, 그들은 비명같은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더욱 흥분했다.

이제는 동전들이 빗발치듯이 날아와 경매대 받침판을 때렸다.

"그래, 아주 훌륭했어. 좀 더 잘해봐. 자 돈 내고 이 노예를 때려보세요."

우두머리가 외쳤다. 한 젊은이가 트리스탄 곁으로 다가와 떨어진 동전들을 주워모았다. 그리고 작은 자루에 그 돈을 넣고 끈으로 묶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놀라 헐떡거리자 그 젊은이는 트리스탄의 입속으로 돈자루를 쑤셔박았다. 사방에서 박수를 치며, 훌륭한 노예라고 외쳐댔다. '내가 어떻게 채찍으로 매를 맞고, 귀찮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길 좋아 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또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겠

는가.'

트리스탄은 나무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밝은 횃불의 불빛을 벗어나 회전판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트리스탄은 기어서 군중 속으로 빠져나가다, 이윽고 주인의 장화를 보았다. 작은 포도주 판매소의 나무로 된 카운터에 기대어 있는 주인을 트리스탄은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표정도, 말 한마디도 없이 트리스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자루를 트리스탄의 입에서 빼내, 오른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본 다음 옆으로 던졌다. 여전히 그의 눈길은 트리스탄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머리를 숙이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머리가 먼지투성이인 땅바닥에 닿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광장의 시끄러운 소리들도 한덩어리로 뭉쳐져 멍하게 트리스탄의 귓속에 박혔다.

부드러운 주인의 손이 트리스탄을 들어올렸다. 바로 앞에는 간이 목욕실이 있었다. 솔과 목욕물통을 든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 주인은 트리스탄을 이끌고 목욕탕 앞으로 가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주인에게서 동전 한 닢을 고맙게 받아들었다. 그리고 트리스탄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물통 속으로 집어넣고 쪼그려 앉도록 했다. 성에서 지낼 때, 무관심한 대중들이 보는 한 귀퉁이에 앉아 목욕을 한다는 것은 트리스탄으로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트리스탄은 만족스러웠다. 따뜻한 물이 그의 몸 위에 끼얹어질 때, 트리스탄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매맞은 상처와 살갗 곳곳에 끈끈하게 묻어 있는 계란과 먼지를 씻어냈다. 음경과 고환도 따뜻한 물에 잘 담겨졌다.

목욕이 끝난 다음, 즉시 기름이 발라졌다. 항문에도 기름칠이 잘 되었다. 손가락이 들락날락해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트리스탄은 여전히 항문을 벌리고 남근상을 끼고 있는 느낌이었다. 트리스탄의 머

리가 말려지고, 빗질도 했다. 심지어 음모까지 빗질을 했다. 모든 행동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트리스탄은 순식간에 주인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인은 트리스탄에게 도로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기어가라고 명령했다.

욕망의 침실

트리스탄이 도로까지 기어왔을 때, 주인은 그를 멈추게 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저하지 않고 트리스탄은 주인의 장화에 입을 맞추고 나서, 그가 시키는 대로 도로 위를 걸어갔다. 트리스탄은 전에 걸어가도록 명령받았을 때처럼 양손을 목 뒤로 올렸다. 그러나 주인은 불현듯 그의 손을 잡아 도로 내려놓은 다음, 트리스탄에게로 다가와 입을 맞추었다. 트리스탄은 갑작스런 주인의 행동에 너무 당황하여 키스에 응해주지도 못했다. 그러나 주인은 더욱 열정적으로 그의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의 뜨거운 혀를 받아들이기 위해 크리스탄은 입을 벌렸다. 그리고 자신의 음경이 주인의 몸에 닿지않도록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뒤로 뺐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몸에서 힘이 빠지며 온힘이 자신의 성기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주인은 그의 입을 점령하고 정신없이 애무해댔다. 트리스탄은 숨을 몰아쉬며 시험삼아 팔을 들어올려 주인을 포옹했다. 뜻밖에도 그는 전혀 제지하려 들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공단으로 된 소매가 짧은 그의 웃옷의 부드러운 감촉과 비단결같

은 머리채를 느꼈다. 그것은 거의 트리스탄을 황홀경으로 몰고갔다.

트리스탄의 음경이 실룩거리며 커져갔다. 몸속에 내재해 있던 통증이 불붙는 정열로 고동치는 것을 트리스탄은 느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다시 걷게 했다. 트리스탄을 돌려세워 손을 목뒤로 얹게 했다.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

주인이 조용히 명령하며, 트리스탄의 뺨에 키스했다. 고통과 흥분이 뒤섞여있어 트리스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두 서너 대의 무개마차가 도로를 따라 달려왔다. 크게 원을 그리며 광장을 돌아서 다시 그들 곁을 빠르게 지나갔다. 음경 끝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은종을 달고, 번쩍이는 마구들을 차고 있는 노예들이 마차를 끌었다. 붉은 벨벳으로 만든 두건과 망또를 두르고 긴 은빛 가죽 채찍을 든 부유한 마을의 귀부인이 노예들을 다루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여전히 주인의 키스 때문에 흥분돼 있었다. 주인이 그의 곁으로 성큼 다가왔을 때 트리스탄은 회전판 위에서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주인은 트리스탄의 어깨를 만졌다. 트리스탄은 피곤한 나머지 움직이려 애쓸 수도 없었다.

트리스탄의 목덜미를 더듬고 있는 주인의 손길에, 그는 온몸이 점점 흥분되어 들먹거렸다. 음경이 고통스럽게 팽팽해지며, 트리스탄은 그런 느낌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반쯤 감긴 눈으로 횃불과 간데라의 불꽃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제 광장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들은 멀리 벗어나 있었다. 주인이 너무 바투 붙어서 걸었기 때문에 그의 웃옷 소매자락과 머리결이 트리스탄의 엉덩이와 어깨에 닿았다. 횃불이 켜진 문을 지나갈 때 그들의 그림자가 짙게 바닥에 드러났다. 그들의 키는 거의 똑같았고, 한사람은 벌거숭이, 또 한사람은 우아하게 옷을 입고 손에 채찍을 든 차이뿐이었다. 그림자에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똑같

았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열쇠로 문을 열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트리스탄은 즉시 복종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현관으로 들어서 트리스탄은 반들반들 윤이 나는 바닥 위로 기어 주인의 뒤를 따라 붙었다. 그가 방문 앞에 멈추자 트리스탄도 따라 멈추었다. 새로 꾸민 이상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벽난로 속에서도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벽쪽에는 참나무로 만든 커다란 침대가 붙어 있었다. 침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푸른 공단으로 지붕도 쳐져 있었다. 책도 많았다. 가죽으로 제본된 책뿐이 아니라, 오래된 두루마리 책들도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는 펜과 잉크가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었다. 다른 방들에 비해 훨씬 컸으며 어두웠다. 그러나 안락했다.

트리스탄은 이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졌다. 주인은 옷을 벗고 있었다. 트리스탄이 놀라서 쳐다볼 때, 이미 그는 옷을 다 벗고, 그것을 침대 머리맡에 잘 정리해 두고 있었다. 주인은 트리스탄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성기도 이미 트리스탄처럼 딱딱하게 발기되어 있었다. 그의 물건이 약간 더 굵긴 했지만 트리스탄보다 길지는 않았다. 그의 음모는 기름 램프 빛에 비쳐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머리카락과 똑같이 하얗고 빳빳했다.

그는 푸른 색 침대 덮개를 접어놓고 트리스탄에게 침대 속으로 올라 오라고 손짓했다.

트리스탄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잘 짠 린넨침대보를 보았다. 단단한 근육이 박힌 주인의 가슴과 팔이

불빛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인의 음경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다. 트리스탄은 곧바로 어두운 그의 눈을 흘끗 쳐다보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침대 쪽으로 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주인은 트리스탄을 마주 보면서 침대 덮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트리스탄은 등을 베개 있는 쪽으로 두었다. 주인은 팔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대담하고 강하게 그의 입을 되받아 빨면서 트리스탄은 양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흐느낌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억제할 수 없었다.

주인은 트리스탄을 살짝 뒤로 밀며 왼손으로 자기의 고환과 음경을 들어 올렸다. 트리스탄은 상체를 밑으로 내려서 즉시 그의 고환에 입을 맞추었다. 마구간에서 배웠던 대로 혀로 그것들을 핥으며 입으로 빨았다. 이빨로 살살 물기도 하면서 감촉을 느껴본 다음, 입으로 주인의 음경을 물어 잡아 당겼다. 트리스탄은 그의 음경 크기에 약간 놀랬다. 큰 남근상만큼 컸다. 주인이 자신을 위해 트리스탄을 지금껏 준비시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현기증 나는 생각이 갑자기 그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남근상을 항문에 찔러 넣듯이 주인의 성기가 그의 몸 속으로 들어 오는 생각을 했을 때, 트리스탄은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고 말았다. 주인의 음경을 빨고 핥으며 음미했다. 그리고 이 분은 노예 중의 하나가 아니라 주인이며, 하루 종일 말없이 명령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을 좌절시키던 바로 그 사람이란 생각을 되새겼다. 작은 소리로 신음하며 그의 성기를 빨고 있을 때, 트리스탄은 다리가 스르르 벌어 지면서 배가 밑으로 쑥 내려가며 엉덩이가 자발적으로 위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주인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트리스탄은 울고 있었다. 주인은 벽에 있는 작은 선반 위의 조그만 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단지 속의 크림은 순백색으로 걸쭉했다. 그리고 자기 음경을 가리

켰다. 즉시 트리스탄은 손가락에 크림을 약간 찍었다. 그러나 그의 음경에 바르기 전에 트리스탄은 음경 끝에다 입을 맞추고 약간 흔적이 남아 있는 물기를 음미했다. 음경 끝 작은 구멍 속으로 혀를 밀어넣으며 그곳에 있는 맑은 액체를 모두 한 곳으로 모았다. 그런 다음에 크림을 잘 문질러 발랐다. 심지어 고환에도 크림을 발랐으며, 굵고 곱슬곱슬한 하얀 음모에도 크림을 잘 문질러 반짝반짝 윤기가 돌게 했다. 이제 음경이 거무틱틱하게 발기되어 떨리고 있었다.

주인은 트리스탄에게 손을 내밀었다. 트리스탄은 시험 삼아 주인의 손가락 위에 더 많은 크림을 살살 칠했다. 그가 더 많이 바르라고 몸짓을 하자 트리스탄은 더 발랐다.

"돌아 서."

주인이 말했다.

뒤로 돌아설 때 트리스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항문 속에서 크림이 듬북, 그리고 깊게 문질러 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그는 양 손으로 트리스탄을 얼싸안고서 왼손으로 고환을 들어올려 축 쳐진 살을 음경에 갖다 붙였다. 그리고나서 그의 성기가 항문 속으로 들어올 때 트리스탄은 절망적인 애원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항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남근상을 항문에 끼어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항문이 찢어질 듯이 쑤셨다. 세게 밀어넣을 때마다 그의 음경이 점점 항문 속으로 깊게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주인의 손이 트리스탄의 음경을 세게 잡아 당기며, 귀두를 감싸쥘 때 주위에 묻어 있는 크림이 뒤틀린 살점 언저리로 삐죽삐죽 흘러내렸다. 트리스탄의 항문 속으로 음경을 밀어넣으며, 트리스탄의 음경을 꽉 쥐고 주인은 리듬에 맞춰 아래 위로 손을 움직였다.

트리스탄의 신음 소리가 방안에 메아리쳤다. 갇혔던 그의 모든 열정이 분출 되었으며, 엉덩이가 격렬하게 앞뒤로 움직였다. 주인의 음

경이 욕망의 물꼬를 터놓자 트리스탄의 성기는 격렬하게 액체를 밖으로 분출해 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나무 막대기처럼 항문에 끼워져 있는 주인의 음경에 트리스탄은 무력하게 매달려 있는 꼴이었다. 그리고 차츰 흥분의 물결이 가실 때 쯤 트리스탄의 음경이 다시 발기 되었다. 주인이 크림을 칠한 손으로 그 물건을 애무하며 발기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쉽사리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손놀림이 몹시 괴로왔다. 그는 낑낑거리며 풀려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 낑낑대는 소리는 오히려 쾌락 때문에 내는 신음소리와 너무 흡사했다. 주인은 손으로 트리스탄을 더욱 능란하게 다루었고, 그의 성기는 끊임없이 요분질을 쳐댔다. 트리스탄은 회전판 위에서 채찍을 맞을 때 질러대던 소리와 똑같이 짧고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침실에 남아 있는 무기력한 노예로서 다시 사정을 하게 될 때까지 주인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트리스탄의 음경은 주인의 미끈미끈한 손가락 속에서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해대는 주인의 동작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의 엉덩이가 둔부에 철썩철썩 와 닿을 때 트리스탄은 절정에 달하는 느낌이었다. 그가 몸을 떨면서 나지막하게 신음소리를 토하며 몸을 거세게 꿈틀거릴 때 트리스탄의 음경이 그의 꽉 쥔 손아귀 속에서 다시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느리고 더 깊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트리스탄의 넋을 빼앗아갔다. 그의 몸은 주인에게로 무너져 내렸고, 주인의 성기는 트리스탄의 몸 속에서 절정감을 만끽하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주인이 트리스

탄의 몸을 들어올려 베개 있는 쪽으로 밀었다. 트리스탄이 들어눕자 그도 옆에 누웠다. 그의 얼굴은 반대편으로 돌려져 있었고, 트리스탄은 졸면서 다 드러내 놓고 있는 그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응시했다. 트리스탄은 잠을 자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않았다.

침실 안에 주인과 단둘이 남아 있고, 그가 아직 자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기억 속에서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트리스탄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런 생각이 자꾸 트리스탄의 마음 속에 되살아 나자, 그는 혀가 입안에서 마치 말을 막 하려는 순간처럼 휘감겨지며 두 눈이 말똥말똥 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 1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촛불은 아름답고 희미한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몸을 앞으로 움직여 주인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놀랍게도 그는 트리스탄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의 등에서 허리, 엉덩이에도 입을 맞췄다. 마을에서는 노예의 주인이며, 성에서는 영주이거나 군주이며, 상처나 붉은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그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었다.

트리스탄은 그가 자신의 몸 밑에서 흥분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그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있는 갈라진 틈에 입을 맞추며 혀로 보라빛 나는 그의 항문 언저리까지 핥아 내렸다. 그는 꽤 흥미 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가 다리를 슬쩍 벌리자 트리스탄은 그의 엉덩이를 밀어 약간 더 넓게 벌렸다. 그리고는 그 작은 핑크빛 구멍을 핥으며, 깨물기도 하면서 시큼하며 이상한 맛을 음미했다.

트리스탄의 음경이 발기되어 침대보에 닿았다. 그는 조금씩 움직여 침대 아랫쪽으로 가서 주인의 다리가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그의 다리 위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트리스탄은 자신의 성기를 주인의

다리에다 대고 누르면서 그의 작은 핑그빛 항문을 핥으며 그 속으로 혀를 밀어 넣었다.

"원하면 나를 가져도 좋다."

트리스탄은 주인이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트리스탄은 침대 속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할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놀라움을 느꼈다. 트리스탄은 비단결 같은 그의 둔부를 애무하며 입을 맞추다가 몸을 들어 그를 끌어안으며 그의 목덜미에 입을 꼭대면서 손을 그의 하복부 쪽으로 슬며시 밀어 넣었다. 주인의 음경은 이미 빳빳하게 발기되어 있었고 그것을 꽉 쥐면서 트리스탄은 자신의 성기를 그의 몸 속으로 집어 넣었다. 꼭 끼었으며 할퀴는 듯하며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그는 약간 주춤거렸다. 그러나 트리스탄의 몸에는 아직 크림이 잘 발라져 있어 음경을 쉽게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었다. 트리스탄이 양손으로 그의 성기를 쥐고서 위로 밀어올리자, 주인은 얼굴을 여전히 베개에 묻은 채 거의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가 되었다. 밑에 깔린 그를 말처럼 몰아대면서 트리스탄은 배로 그의 부드럽고 흠 없는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도록 부딪쳐댔다. 주인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의 음경이 점점 더 단단하게 발기되더니 마침내 절정에 달한 듯 큰 소리로 외쳐대는 소리에 트리스탄은 그의 몸속에다 사정을 해버렸다. 그의 정액도 트리스탄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 내렸다.

그들은 그제서야 잠들 수 있었다. 트리스탄의 엉덩이는 흥분의 여운으로 부글부글 끓었고, 무릎 안쪽이 매맞은 자국때문에 간질간질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트리스탄은 머리 위에 있는 푸른 색 공단으로 된 침대의 지붕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의식이 몽롱해졌다. 주인이 침대 덮개를 끌어와 그들의 몸을 덮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주인은 팔을 트리스탄의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 놓았다. 트

리스탄은 자신의 몸이 자꾸 자꾸 침몰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졌다. 모든 근육과 살 속의 아픔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트리스탄, 영혼을 찾아서

트리스탄이 잠에서 깨어나 한 소년에 의해 빠르게 침대에서 끌려나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주인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그 소년은 부엌 바닥에서 남비에 담긴 아침식사를 트리스탄에게 먹이는 일을 즐기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는 서둘러 집 뒤에 있는 도로로 트리스탄을 몰고 나갔는데, 거기에는 두필의 훌륭한 노예 말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말의 고삐는 뒤에 있는 마구에 연결 되어 있었다. 그 마구는 또 다른 한 소년이 받쳐들고 있었는데 그는 첫번째 소년이 그 마구를 트리스탄에게 채우는 것을 재빠르게 도와주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트리스탄의 몸은 단단하게 굳어있어 그 두 소년은 그를 거칠게 다루어야만 했다. 그의 음경도 벌써 긴장하고 있었다.

말들이 전속력으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마차 외에는 근처에 다른 마차라곤 없었다. 트리스탄은 벌써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 첫번째 두 필의 말 뒤에 그의 위치가 정해졌다. 그리고 고환과

음경을 가죽 띠로 휘감아, 고환은 위로 올라가고 음경은 밑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했다. 힘이 센 손으로 이런 장식품들을 몸에 꼭 부착시키고, 양팔을 등 뒤에 붙들어 맨 다음 두툼한 벨트를 트리스탄의 엉덩이 주위에 매고 음경을 거기다가 위로 향하게 묶어놓았다. 트리스탄은 몸을 비틀며 자세를 갖추려고 애썼다. 남근상 하나가 엉덩이 속으로 삽입되었는데, 그것 역시 엉덩이 뒤에 있는 벨트에서부터 두 다리를 통해 앞의 벨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 의해 고정 되어서, 어제 보다는 훨씬 편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꼬리가 달려있지 않았고, 장화도 주어지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차라리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웠다.

엉덩이가 남근상을 지탱하고 있는 가죽 고리 위로 내려 덮이는 것을 느꼈으며, 그 때문에 엉덩이가 더 많이 찢어지고, 더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남근상 끝에 붙어 있는 말꼬리가 일종의 가리개 역활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구가 머리와 어깨 위에 채워질 때 트리스탄은 처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가죽 대환(帶環)의 두께는 얇고 정교했으며 윤이나게 잘 닦여져 있었다. 하나는 머리 위를 지나 얼굴 양옆으로 내려가 귀를 덮지 않고 귀 둘레에 맞도록 갈라져서 두껍고 헐렁한 목걸이가 달려 있는 목에 연결 되었다. 또 하나의 얇은 가죽 띠는 트리스탄의 코 위를 타고 내려와 얼굴의 3분의 1쯤에서 갈라져 머리를 돌아서 곧바로 입 근처까지 내려왔다. 그것은 트리스탄이 항의조로 울부짖기도 전에 입 속으로 밀려들어온 짧고 굵은 남근상이 있는 곳에 꼭 들어 맞았다. 그 남근상은 깊숙하게 입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트리스탄의 입을 꽉 메웠다. 그것을 깨물며 밑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핥았다. 숨은 그런대로 쉴 수 있었으나, 입은 항문처럼 아프고 넓게 벌려져 있었다. 그리고 양쪽 끝이 찢어질 듯이 벌려져 무엇

이 꿰뚫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트리스탄은 비참하게도 술에 취해 처량하게 울고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꼭 죄어지고 정리 되었으며 목걸이는 트리스탄의 목덜미에 죔쇠로 채워졌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의 고삐가 그의 어깨 위를 지나 뒤에 있는 죔쇠에 매어져 있었다. 마구가 잘 채워진 또 한 쌍의 고삐가 트리스탄의 복부에 매어져있는 가죽 벨트의 장식에 묶여 있었다.

대단히 정교하게 마구가 채워졌다. 두 필의 노예말이 움직이면 트리스탄은 곧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균형을 잃는다 해도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두 노예는 장딴지와 허벅지의 근육이 잘 발달된 숙달된 말이었다.

그들은 몸에 닿은 가죽의 감촉을 좋아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리를 쳐들었다. 트리스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째서 나는 저들처럼 마구를 찰 수 없는가? 나에게는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들이 빛나는 말꼬리를 달고서 머리를 높이 쳐들고 맵씨있게 보이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비천한 죄수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자를 박은 그들의 발에서 울리는 금속성 소리를 들으며 트리스탄은 맨발로 도로를 쾅쾅 밟아보았다. 몸을 뒤틀며 고삐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그 가죽 띠들은 단단히 매어져 있었으며, 엉덩이에 기름 칠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두 소년은 그런 트리스탄의 태도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주인이 긴 가죽채찍을 허리에 차고 나타나 준비가 다 되었냐고 물었다. 두 소년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대답했으며, 한 소년이 손바닥으로 보기 좋게 트리스탄을 한대 때렸고 다른 소년은 크게 벌어진 트리스탄의 입속으로 남근상을 더 세게 밀어 넣었다. 트리스탄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다가오는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소매 장식이 달린 짙은 보라빛 우단으로 만든 웃옷을 아름답게 입고 있었다.

마치 성의 왕자와 같이 멋있었다. 트리스탄은 어제 저녁에 벌였던 정사의 흥분이 되살아나 고통의 신음소리를 말없이 삼켜버리려 애썼다. 알 수 없는 절망의 흐느낌이 트리스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자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너무나 심하게 억제하고 있던 상태여서, 내적인 제어력이 모두 상실되어 버린 것 같았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끌어당겨 보았지만 완전히 무력한 자신을 깨달았다.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질 수조차 없었다.

주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거칠게 자기 쪽으로 돌린 다음 눈꺼풀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술의 부드러움, 머리와 피부의 상큼한 향기 때문에 트리스탄은 침실에서의 흥분이 되살아 났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었다. 트리스탄이 그에게 올라 타, 자신의 몸 밑에서 신음하도록 만들었을 때에도 그는 항상 주인이었던 것이다. 트리스탄의 음경은 발기되어 꿈틀거렸으며 다시 신음과 외침소리가 연신 입에서 새어나왔다.

곧이어 트리스탄은 주인의 맑은 목소리를 들었다.

"평소처럼 마을로 아침 순찰을 나갈 것이다."

말들이 즉시 출발했다. 트리스탄도 그들 뒤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주인은 바로 트리스탄의 곁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둘이 이 도로를 걸어내려가던 어제 저녁의 상황과 거의 똑같았는데, 지금의 트리스탄은 괴물 같은 가죽 띠와 남근상을 달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다. 주인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트리스탄은 그가 지시하는 대로 잘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보폭이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납작한 채찍이 트리스탄의 매 맞은 자국을 희롱했다. 그것은 트리스탄의 아래쪽을 문지르며 애무했다. 주인은 말없이 계속 걸었으며, 앞서 가는 두 사람은 길을

환히 알고있는 것처럼 마을 복판으로 통하는 넓은 도로로 향했다. 평일에 마을의 정경을 보기는 처음이라, 트리스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얀 앞치마, 나막신, 생가죽 승마바지가 보였다. 걷어붙인 옷 소매자락도 보였으며, 왁자지껄 유쾌하게 떠드는 소리도 트리스탄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사방에서 노예들이 노역을 하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알몸으로 문과 발코니를 문질러 닦으며, 가게 창문을 물로 청소하고 있는 공주들을 보았다. 여주인의 채찍을 맞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등에 바구니를 지고 뛰어다니는 남자노예들도 있었다. 열려진 한 대문 틈으로 엉덩이들을 벌겋게 내놓고 커다란 빨래통 주위에 모여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보였다.

일행이 한 모퉁이를 돌아서자 출입구 간판에 한 여자노예가 손이 묶인 채 매달려 있었다. 그 다음에 한 선술집에 다달았다. 그 안에는 노예들이 진입로를 따라 일렬로 서서 한 사람씩 작은 무대 위에서 수십명의 후원자들을 오직 즐겁게 해주기 위해 벌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모조 남근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앞에는 세명의 왕자가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엉덩이에는 견본 상품을 달고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트리스탄은 뜨겁고 먼지투성이인 햇볕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노예 중의 하나가 자신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채찍을 맞으며 불안하게 호흡을 몰아 쉬며 빠르게 걷는 것보다 그 편이 더욱 나쁠까?' 트리스탄은 주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매를 맞을 때마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지난 밤 모습을 떠올렸으며,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놀랐다. 서로 포옹을 했다고 해서 채찍질이 멈추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았어야 했다. 트리스탄은 채찍질이 더 세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트리스탄은 갑자기 주인이 자신에게 철저한 복종

을 바라고 있다는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일행은 다시 밀집해 있는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서둘러 지나갔다. 넓은 광장에 도착했을 때, 트리스탄은 여관 간판과 마차길과 높은 창문들을 보았다. 그 여관들은 모두 부유한 티가 나게 잘 장식되어 있었다. 창문들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트리스탄이 채찍을 맞으며 우물 주위에 있는 넓은 원진(圓陣)속으로 끌려 들어가자, 군중들은 말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었다. 놀랍게도 여왕의 호송대장이 한 출입구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호송대장이었다.

트리스탄은 그의 금발머리와 대충 면도한 구렛나루와 사색에 잠긴 듯한 그 푸른 눈을 기억했다. 진짜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고향에서 트리스탄을 데려간 사람도 그였다. 야영 주둔지에서 탈출 했을 때 트리스탄을 붙잡아 말을 탄 두 명의 병사가 운반하는 장대에 손과 발목을 묶어놓은 사람도 그였다. 트리스탄은 아직도 몸속으로 돌진하던 그 굵은 음경과 야영지를 지나 성에 도착할 때까지 저녁마다 자신을 때리도록 명령하면서 입가에 흘리던 그 조용한 미소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서로를 쳐다볼 때의 그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었던 순간도 트리스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잘 가, 트리스탄."

하고 그는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었다. 그리고 트리스탄은 자발적으로 그의 부츠에 입을 맞추며 말없이 그의 눈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었다.

트리스탄의 음경도 곧 그를 알아 보았다. 트리스탄은 그의 곁으로 다가서면서 갑자기 그가 자신을 보게되리라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호송대장은 사자 간판집의 열린 문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 트리스탄도 잠시 스쳐가며 그 광경을 보았다. 예쁜 빨간 색

스커트와 주름 접힌 흰 블라우스를 입은 아름다운 마을 여자 하나가 나무로 된 카운터 위에 있는 자기 노예의 볼기짝을 열심히 때려주고 있었다. 눈물 투성이가 되어 바깥 쪽을 응시하는 그 아름다운 얼굴은 바로 뷰티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주걱 모양의 가죽채찍 밑에서 괴로워하며 발버둥쳤다. 그러나 그녀는 트리스탄이 어제 저녁 회전판 위에 올려져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족쇄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일행이 그 문을 지나갔다. 대장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트리스탄은 말들을 정지시키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트리스탄은 여전히 서 있었으며, 음경은 가죽에 닿아 긴장되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인과 대장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즐거운 농담들을 교환했다. 그리고 대장은 그 말들을 칭찬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말의 꼬리를 위로 거칠게 잡아당기며, 윤기가 도는 검은 머리를 들어올려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그 노예의 벌건 넓적다리를 찌르자 머리를 높이 쳐들며 마구를 흔들었다. 대장은 웃었다.

"이곳에 오니 기분이 좋구만!"

대장은 분명히 흥이 난 듯이 손짓을 하면서 그 말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노예의 턱을 들어올려 보았다. 다음에는 남근상을 들어 몇번 강하게 위로 흔들어 대자 그 말은 발길질을 하며 다리를 기세좋게 움직였다. 대장이 궁둥이를 툭툭 두들겨주자, 다시 조용해졌다.

"니콜라스, 당신은 아시죠."

굵고 낮은 대장의 목소리에 트리스탄은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웠다.

"짧은 여행을 하실 때는 말을 타지 마시고 노예 말들을 이용하도록 내가 몇번이고 여왕 전하께 말씀드렸는데, 여왕 전하께서는 그것을 단지 마을의 소일거리 정도로 보실 뿐 진지하게 생각하시려 들지 않

는단 말입니다."

"여왕께서는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갖고 계시다네, 대장." 주인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이 노예를 본 적이 있는가"

놀랍게도 주인이 마구의 가죽 대환(帶環)을 잡아당겨 트리스탄의 머리를 뒤로 제꼈다.

보지는 않았지만 트리스탄은 대장의 눈길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참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몸에 달려있는 마구의 가죽 대환도 트리스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대장이 트리스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트리스탄에게서 삼 인치도 안되는 거리에서 멈추었다. 그 다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더욱 낮고 굵게 트리스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트리스탄!"

그의 따뜻한 큰손이 트리스탄의 음경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세게 죄면서 음경 끝까지 훑어보고 다시 놓았다. 선정적인 흥분이 트리스탄의 음경 끝에서 느껴졌다. 그는 트리스탄의 음낭을 애무하면서 손톱으로 꼭꼭 눌러보기도 했다.

트리스탄의 얼굴빛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대장의 눈길을 마주 볼 수 없었으며, 이빨로 그 큰 남근상을 게걸스레 먹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었다. 또한 턱이 움직이고 혀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되는 것처럼 가죽을 핥고 있었다. 대장은 트리스탄의 가슴과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둥그런 원을 이루고 있는 X자 모양의 나무에 묶여서 주위에 빈둥거리며 서 있던 병사들에게 음경을 희롱당해야만 했던 야영 주둔지의 영상들이 불현듯 트리스탄의 머리 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곁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내보이던 대장의 그 비밀스런 미소와 한쪽 어깨에만 걸쳐져있던 황금빛 망또의 이미지도 생각났다.

"그래, 그게 그의 이름이야."

주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게 중얼거리는 듯한 대장의 목소리보다 젊고 세련되게 들렸다. "트리스탄"하고 부르는 그의 소리를 듣는 게 트리스탄은 더 고통스러웠다.

"물론, 이 노예를 알지요."

대장이 말했다.

그는 크고 음침한 몸집을 약간 움직여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 지나가게 했다. 그들은 큰소리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여섯 달 전에 그를 성으로 데려 갔었지요. 그 녀석은 난폭한 놈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옷을 벗고 오라고 명령했더니 감시 소홀을 틈타 숲속으로 도망쳤지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잘 복종시켜서 여왕 전하의 발치에 갖다 놓아 드렸답니다. 그는 매일 야영지를 끌려다니면서 매질하는 의무를 가진 두 병사의 귀염둥이가 되더군요. 두 병사들은 지금껏 훈련시켜야 했던 어떤 노예보다도 저 녀석을 더 애지중지 했지요."

트리스탄은 말없이 몸서리치면서 신음 소리를 삼켜버렸는데, 재갈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웠다.

"오히려 화산같은 열정이란 편이 나을 걸요." 대장은 부드럽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바닥에서 음식물을 핥아 먹도록 그를 만든 것은 채찍질의 가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치뤄야 하는 의식 때문이었죠."

그 말은 진실이라고 트리스탄은 생각했다. 얼굴이 따끔따끔 쑤셨다. 그 두렵고 어쩔 수 없는 전라의 수치심이 또 트리스탄에게 엄습했다. 그는 쭉 쳐진 텐트들 앞에 새로 파헤쳐 놓은 흙을 내려다 보았다. 그들의 대화와 발자국 소리를 트리스탄은 걸어가면서도 들을 수 있었다.

"한 텐트만 더, 트리스탄." 혹은 그 매일 저녁 하는 인사말, 즉 "자, 가자 트리스탄, 야영지로 행보해야 할 시간이야, 그래 됐다 됐어. 이것 좀 봐, 가레쓰, 이 젊은 친구는 상당히 빨리 배우는군. 저프리, 내가 뭐래든가, 사흘만 지나면 족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든가?"

그들은 손으로 트리스탄에게 먹이를 먹이고 난 다음 정성스레 입을 훔쳐주었다. 그를 토닥거려주고 마실 포도주도 많이 주었다. 그 다음 어두워지자 트리스탄을 숲속으로 데리고 갔었다. 트리스탄은 그들의 음경을 기억하며, 누가 먼저 할까 다투던 것도 기억하며, 입에다 하는 게 더 좋을까, 항문에다 하는 게 더 좋을까 하고 싸우던 것도 기억하며 가끔씩 둘 중의 하나는 앞에서 또 하나는 뒤에서 해대던 것도 다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럴 때에 대장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노예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예의가 잘 갖춰진 노예 중의 하나였는데,"

대장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입에서가 아니라 그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트리스탄은 머리를 돌려 그가 예전처럼 지금도 핸썸한가를 보고 싶었다.

"여왕 전하의 동의를 얻어 스테판 경에게 사노예로 넘겨졌는데 이곳에서 다시 보게 되다니 몹시 놀랐습니다." 대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역력했다. "그 녀석의 버릇을 고쳐놓은 게 바로 나라고 여왕께 말씀올렸습니다."

그는 트리스탄의 머리를 들어올려 이쪽 저쪽으로 밀어 보았다. 트리스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긴장감과 함께 대장의 면전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지금껏 침묵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깨

달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트리스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낮게 신음 소리를 냈을 뿐이었다.

"무슨 짓을 했지? 나를 쳐다 봐! 여왕 전하의 비위를 거슬려 드렸나?"

그가 말했다.

트리스탄은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며 주인의 눈길을 피했다. 그의 눈을 마주보려 하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마구로 채워진 몸뚱아리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네가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분이 스테판이냐?"

트리스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흘끗 그의 눈을 쳐다보고는 얼른 눈길을 돌렸다. 그의 눈길을 견딜 수 없었다. 트리스탄과 대장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끈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트리스탄과 스테판 사이에는 아무 유대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스테판은 전에 네 애인이었지?" 대장은 곁에 있는 주인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트리스탄의 귀에 바짝 대고 다그쳐 물었다. "몇 년 전에 그가 왕국으로 들어 왔다며?"

트리스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더냐?" 그는 계속 물었다. "일반 병사들에게조차 네 엉덩이를 벌리라고 가르치더냐?"

"아니오!"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트리스탄은 재갈을 물은 채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그 말은 밖으로 조금도 새어나오지 않고, 머리 속에서만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너의 전 애인이 너를 부릴 만한 힘이 없어서였느냐?"

트리스탄은 눈을 돌려 대장을 직접 응시했다. 그리고 재갈을 물고서 미소를 지어보였다. 한숨이 느리게 터져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이 남근상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지만 트리스탄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대장의 얼굴은 트리스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왔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받아쥘 때 햇빛을 받고 있는 그의 풍채는 위풍당당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길이 서로 마주칠 때 대장은 트리스탄에게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래, 나의 인식은 완벽했어. 나는 마을에서의 완전한 신분하강을 원해왔었던 것이야. 나는 스테판의 사랑, 나를 지배하지 못한 그의 무능력 등을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미리 예정된 우리의 인연 속에서 그가 보여준 나약함 때문에 나는 그를 경멸한 거라구. 뷰티는 내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내 영혼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업자득이요, 내가 바랬던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에서의 상황도 내 위엄과 자존심 그리고 자아가 송두리째 짓밟혔던 병사들의 야영지처럼 거칠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혼잡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광장 한 복판에서 채찍질을 당해야 하는 벌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몹시 갈망해오지 않았던가. 순식간에 무조건 항복이라도 하듯이 트리스탄은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서서 매질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몸짓으로 엉덩이를 흔들어 댔다.

대장은 채찍을 거세게 휘둘렀다.

매질이 끝나도, 트리스탄은 애원하는 듯한 몸짓을 그만두지 않았다. 대장이 다시 매질을 가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트리스탄의 얼굴을 애무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보였다. 주인이 하던 대로 그는 트리스탄의 눈꺼풀에 입을 맞추었다. 트리스탄은 가슴 속에 있는 마

지막 매듭이 잘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쓰라린 고뇌 때문에 트리스탄은 대장의 발과 손 그리고 입술에 입을 맞출 수 없었다. 다만 그에게 자신의 고통스런 몸을 구부릴 수 있을 뿐이었다.

대장은 뒤로 물러나 팔을 주인에게로 내밀었다. 그들은 포옹을 하였고,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몸집이 건장한 대장 곁에 선 주인은 마치 잘 세공된 은검처럼 우아하고 더 가냘퍼 보였다.

"항상 그렇죠."하고 대장은 주인의 차갑고 영리해 보이는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순화시키려고 마을로 보냈던 소심하고 걱정스런 많은 노예들 중에는 죄를 정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순치시키기 위해 호된 시련을 필요로 한 나머지 벌을 자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요.' 이렇게 트리스탄은 애원하고 싶었다.

"사자 간판집에 있는 나의 작은 소녀 뷰티라는 애도 마찬 가지죠. 그녀도 내 욕망을 무섭게 불처럼 일으키는 전라의 굶주린 욕망의 화신이라 할 수 있지요."

뷰티. 대장이 그 여관 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는 여자는 바로 뷰티였다. 그가 그녀의 주인이었다.

주인의 눈이 트리스탄을 주시했다. 흐느낌 때문에 트리스탄의 몸이 들먹였다. 음경과 쑤시고 아픈 장딴지 속으로 경련이 일었다.

대장은 여전히 트리스탄의 곁에 있었다.

"젊은 친구, 내일 다시 보세,"

그는 트리스탄의 얼굴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혀로 처참하게 열려진 트리스탄의 입술을 핥았다.

다시 일행이 행진할 때 트리스탄은 슬픔에 잠겼다. 광장을 벗어나

다른 길을 통과하여 수많은 불행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쳐갈 때도 나지막한 트리스탄의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머리를 돌렸다. 불쌍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대장의 채찍질로 인해 너무 쑤시고 아픈 나머지, 트리스탄은 채찍이 스치기만 해도 이제는 펄쩍펄쩍 뛸 것 같았다. 다른 말들이 앞에서 그를 끌 때 울면서 버티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일행은 다시 좁은 거리를 통과했다. 거기에는 임대할 노예들이 손발이 묶인 채 벽에 걸려 있었다. 음모에는 기름칠이 되어 번들거렸고, 그들 머리 위의 회벽토에는 가격이 쓰여져 있었다. 조그만 한 가게 안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자가 옷단을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한 공터에서는 발가벗은 한 무리의 남자노예들이 징벌로 큰 바퀴를 발로 밟아 돌리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갓 구운 빵을 팔기 위해 쟁반을 받쳐들고 있는 노예들도 있었다. 그 빵은 주인의 집 오븐에서 구워낸 것이었으며, 노예들의 입에는 빵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바구니가 물려져 있었다. 트리스탄의 슬픔은 마을의 일상에 묻혀 버렸고, 누구 하나 그의 그런 슬픔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가엾은 한 여자노예가 벽에 묶여져 흐느껴 울면서 몸부림쳤다. 세 명의 마을 소녀가 하는 일 없이 한가롭게 그녀의 치골을 쓰다듬으며 희롱하고 있었다. 어떤 문간에서는 가슴이 풍만하고 나이가 지긋한 부인 하나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발가벗은 노예 한 명을 무릎에 올려 놓고 화를 내면서 큰 손으로 소리가 나도록 그를 때리고 있었다. 또, 양손으로 머리에 물병을 이고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여자노예는 주인이 곧 나타나 가죽끈이 달려있는 꽤나 큰 남근상을 그녀의 불그레한 음문 속으로 밀어넣었다. 순전히 그 노예로 하여금 주인을 잘 따르도록 길들이기 위해서 였다.

좀 조용한 거리로 들어섰다. 그 곳에는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윤기 나는 대문에는 놋쇠로 만든 고리쇠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높은 철제 선반 받침대에는 노예들이 여기저기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말 편자 소리가 벽 위로 점점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려왔고, 트리스탄은 더 분명하게 울음 소리를 냈다.

그는 장차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경직되어 보였으며, 사람들은 노예들의 울부짖음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모든 것을 견디며, 물결치는 욕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돌아서 다시 주인의 숙소로 왔다. 노예들의 숙소이기도 했다. 그들은 앞문을 지나쳤다. 그 문은 어떤 문 못지않게 화려했다. 그리고 비싸게 납틀을 박은 커다란 유리 창문도 지나쳤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고 작은 골목 길을 지나, 누벽(壘壁)을 따라 나있는 후방도로까지 갔다.

가죽 대환(帶環)과 남근상이 서둘러 벗겨졌다. 그리고 말들도 보내졌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발밑에 주저앉아 그 발에 온통 입을 맞추었다. 부드러운 모로코 가죽으로 된 장화의 발등, 뒷축 그리고 장식 레이스에까지도 입을 맞추었다. 트리스탄의 괴로운 흐느낌이 점점 더 크게 터져나왔다. '나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었는가? 그래, 나를 당신의 비굴한 노예로 만들어 보시오. 무자비하게 부려보라구요.'

트리스탄은 순간적으로 주인이 자신을 다시 벌받는 장소로 데려 가기를 바랬다. 그러나 주인은 단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트리스탄은 엉금엉금 기어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주인이 걸어갈 때 그는 쏜살같이 쫓아가 주인의 장화를 핥으며 입을 맞추었다. 트리스탄은 그를 따라 복도 아래까지 왔다. 마침내 주인은 그를

작은 부엌에 남겨놓았다. 트리스탄은 젊은 남자 시종들에 의해 몸이 깨끗히 씻겨지고 먹을 것을 제공 받았다. 이 집안에서는 한 사람의 노예도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트리스탄 혼자만 붙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트리스탄을 조그만 만찬장으로 데리고 갔다. 트리스탄은 신속하게 벽쪽으로 세워졌으며, 양다리와 두 발이 X자 모양으로 묶여진 채 그곳에 남겨졌다.

그 만찬장은 윤기가 돌도록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트리스탄은 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부유한 작은 시골집 방이었다. 트리스탄이 태어나 자란 성에서나, 혹은 여왕의 성에서도 결코 못보던 그런 방이었다. 천장에 있는 낮은 대들보에는 색칠이 되어 있었으며,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설 때 느꼈던 것처럼, 트리스탄은 벽에 묶여있는 자신의 꼴이 진짜 노예같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트리스탄의 두 발은 양초 칠을 한 바닥 위를 딛고 서 있었다. 그는 그 위에 몸무게를 지탱하고, 벽 뒤로 몸을 기댈 수 있었다. 그리고 음경이 수그러들어 편히 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트리스탄은 생각해 보았다.

하녀들이 빗자루와 자루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은 빨간 포도주로 쇠고기를 구울까, 백포도주로 구울까, 또 그 속에 양파는 바로 넣을까, 아니면 나중에 넣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트리스탄의 주위에서 먼지를 털고, 법석을 떨면서 지나갔지만, 그저 부드럽게 톡톡 쳐보는 것 외에 전혀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잠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만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트리스탄의 앞에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주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트리스탄의 음경을 쥐고 아래로 당겼다. 그러자 곧

그것이 커졌다. 그녀는 손에 죔쇠가 달린 검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저울추 같은 물건을 몇 개 들고 하녀들이 닫혀진 문 뒤에서 계속 떠들고 있을 때, 죔쇠들을 트리스탄의 음낭의 축처진 살갗에 달았다. 트리스탄은 아파서 몸을 움츠렸다. 그 추들은 고환이 조금만 움직여도 예민한 살점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고환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장이 손톱으로 하던 것처럼 꼬집어보면서 신중하게 트리스탄을 살폈다. 트리스탄이 아파서 움찔거려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는 트리스탄의 음경 밑에다 무거운 추를 하나 매달아 놓았다. 트리스탄의 성기가 끄덕끄덕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쇠추가 그의 고환에 닿아 차가왔다. 이런 물건들의 촉감과 움직임은 성기가 불룩하도록 일으켜세워 트리스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작은 방의 조명은 희미했다. 여주인의 모습이 갑자기 크게 트리스탄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굴욕적으로 작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너는 네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것들을 달고 있어야 해. 만약 그 추가 네 음경에서 미끄러져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발기되었던 너의 성기가 수그러들어 거기 채워져있던 고리가 빠져나올 때뿐이다. 그렇게 되면 네 음경에는 채찍질이 가해질 것이다, 트리스탄."

트리스탄은 그녀의 눈길을 응시할 수 없었으며,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짙은 청색 앞치마 밑으로부터 정교하고 흰 채찍을 높이 치켜들었다. 트리스탄은 거푸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의 음경을 채찍으로 이쪽저쪽 때려댔다. 트리스탄은 옆구리까지 아픈 충격이 가해져왔다. 트리스탄의 엉덩이가 그녀 쪽으로 들렸다. 몸에 달린 작은 추들이 마치 손가락으로 살갗을 늘리고 음경을 잡아 당기는 것 같

았다. 그러자 트리스탄의 성기가 자주빛으로 벌개지며 곧바로 발기되었다.

"이것은 단지 작은 본보기에 지나지 않아. 네가 이 집에 진열되어 있을 때, 너는 마땅히 네 실체를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트리스탄은 다시 고개를 끄덕거렸다. 머리를 숙이고 눈가에 고인 구슬같은 뜨거운 눈물 방울을 흘렸다. 그녀는 빗을 들고 트리스탄의 머리를 조심스레 빗겼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말쑥하게 손질하면서 이마에서 뒤쪽으로 빗겨 내렸다.

"너에게 꼭 말해줘야 할 게 있다. 분명 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자야. 그래서 내가 젊은 너에게 미리 알려 주는데, 너는 당장 팔리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트리스탄은 머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푸른 눈을 보고있었다. 트리스탄은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오! 그 분께서 너를 계속 소유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다. 네가 마을의 호된 징계를 더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침내 그가 원하던 노예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말이야. 그분은 여왕 전하의 연대기 편찬자이시다."

가슴 속의 흥분이 점점 커졌으며 음경 속에 흥분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가 마침내 원하던 노예를 찾았다."라는 말이 트리스탄의 머리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트리스탄을 작은 방에 내버려두고 불빛이 흐린 현관으로 나가, 어두침침한 계단 위로 올라가버렸다. 그녀의 포도주 빛의 스커트가 어둠 속에서 잠깐 밝게 보였다 사라졌다. 머리 속에서 얼킨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내려 할수록 더욱 헝클어지는 의식 때문에 트리스탄은 현기증이 났다.

마녀와 미녀

뷰티는 대장의 침실에서 아침 허드렛일을 하다가 갑자기 여주인 로클리에게 자신이 무례했음을 깨닫고는 당황해 하고 있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층계 쪽에서 대장의 방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주인의 명령에 거역하겠다던 자신의 결심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꼿꼿한 로클리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빳빳한 아마 옷감으로 만든, 푸른 리본들이 달려있는 블라우스는 너무나 가슴이 깊게 패어져 있어, 거의 젖꼭지까지 들여다 보였다. 잘 생긴 여주인 로클리의 얼굴에 심술궂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뷰티에게로 다가왔다. 뷰티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구석으로 몸을 움추렸다.

낮은 웃음소리를 흘리며 그녀는 왼손으로 뷰티의 긴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오른손으로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손잡이의 날카로운 끝을 뷰티의 음부 속으로 밀어넣었다. 뷰티는 울부짖으며 다리를 오므리려 하였다.

"너는 참 말도 많더구나!"

로클리 부인이 말했다.

뷰티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뷰티는 여주인의 장화에 입을 맞출 수도 없었고, 또 감히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던 트리스탄의 말이 생각났다.

로클리 부인은 뷰티에게 무릎을 꿇고 앞으로 가도록 시켰다. 뷰티는 다리 사이의 빗자루 때문에 자신이 작은 침실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다.

"저 층계를 내려가!"

여주인은 나지막하게 명령했다.

그녀의 잔혹함이 뷰티의 영혼에 사무쳤고, 흐느끼며 그녀는 층계를 내려갔다. 층계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일어서야만 했다. 박혀있는 빗자루 때문에 그녀의 부드러운 음순이 고통스럽게 할퀴고 긁혔다. 여주인은 곧 바로 따라 내려왔다.

주막은 텅비어 조용했다.

"내가 너를 손 볼 동안 다른 노예들은 아침 매질을 당하도록 체벌장으로 보냈다."여주인은 어금니를 물고 말했다. "너에게 노예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 잠시 가르쳐 주지.! 부엌으로 들어 가라!"

뷰티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성난 명령이 그녀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다. 누구도 예전에 그녀를 그렇게 다룬 적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성기는 이미 흥분으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햇살이 크고 깨끗한 방을 비추고 있었다. 뒤뜰로 나있는 두 개의 문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햇살은 고리에 걸려 있는 주전자와 그릇들을 비추었다. 커다란 사각형의 바닥에는 판목이 있었다. 이 판목은 뷰티가 처음 처벌을 받았던 바깥에 있는 술마시는 카운터와 거의 같

은 높이와 크기였다.

여주인 로클리는 뷰티를 자신의 발끝까지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올려 뷰티로 하여금 하얀 밀가루가 뿌려져 있는 판목으로 기어오르도록 하였다.

뷰티가 기대한 것은 매질이었다. 그녀의 성난 목소리로 보아 예전보다 훨씬 심한 매질이 되리라 뷰티는 짐작했다. 여주인 로클리는 뷰티를 눕히더니 머리 위로 손을 끌어 올렸다. 그리고 양손을 판목의 가장자리에 묶어 버리고 다리를 벌리도록 명령했다. 뷰티는 다리를 벌리려고 애를 썼다. 그녀의 엉덩이 밑에 있는 부드러운 판목 위에 뿌려진 밀가루는 비단 같은 감촉을 주었다.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절박한 울음소리를 내며 여주인 로클리에게 애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주인의 냉혹한 웃음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웃고 있는 여주인의 검은 눈을 바라보며 뷰티는 입술을 깨물었다.

"병사들이 네 젖가슴을 좋아 했지?" 로클리 부인이 물었다. 그리고 두손의 엄지와 검지로 젖꼭지를 꼬집었다.

"대답해 봐!"

"예, 주인님,"

뷰티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영혼은 손가락들 앞에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을 혐오했다. 젖꼭지 주변의 살은 오그라 들었으나 젖꼭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사타구니의 쓰라린 고통은 다리를 오므리도록 만들었으나 그것은 불가능 했다.

"주인님, 제발, 저는 다시는 결코… "

"쉿"

로클리는 그녀의 손으로 뷰티의 입을 막았다. 뷰티는 활처럼 등이

휘어진 채 계속 흐느꼈다. 묶여있는 것은 정말 괴로왔다. 그녀는 자신을 자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여주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려고 애썼다.

"노예들은 말을 해서는 안된다. 주인들이 물어 보기 전에는. 그리고 대답할 때는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그녀는 뷰티의 입을 막았던 손을 떼었다.

"알겠어요, 주인님."

뷰티가 대답했다.

단호한 손길이 다시 그녀의 젖꼭지를 잡았다.

"병사들이 이 젖가슴을 좋아했단 말이지?"

그녀는 다그치듯 계속해서 말했다.

"예, 주인님!"

대답하는 뷰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욕심 많은 작은 입도." 그녀는 손을 밑으로 내려 뷰티의 은밀한 그곳을 꼬집었다. 축축한 분비물이 흘러내렸다.

"예, 주인님,"

그녀는 헐떡이며 대답했다.

로클리는 마치 혀처럼 생긴 흰색의 가죽 끈을 들어올리더니 그것을 뷰티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왼손으로 뷰티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부분을 내리쳤다. 뷰티는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리 사이에서는 분비물이 엉덩이의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 내렸다. 로클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젖꼭지를 잡아당겨 세차게 때렸다. 가죽 채찍이 찰싹찰싹 소리를 내며 그녀의 앞 가슴을 계속 내리쳤다. 뷰티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송대장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가슴을 때리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뷰티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 가슴을 가

리고 싶다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가슴은 예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에 젖어 있었다. 뷰티의 몸이 꿈틀거렸다. 작은 가죽 채찍이 젖꼭지를 때렸고 부풀어 오르는 살결은 점점 더 딱딱해졌다.

로클리는 이제 오른쪽 가슴으로 옮겨가 똑같은 방법으로 젖무덤과 젖꼭지에 매질을 가하자 뷰티는 거의 광란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외침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움직임도 격렬해졌다. 마침내 젖꼭지는 계속되는 채찍질에 돌처럼 딱딱해졌다.

뷰티는 입을 다물고 이를 악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목청껏 소리를 지를 것 같았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빨리 매질이 가해졌다. 그녀의 온 신경이 젖가슴에 집중되었고 매질에 의해 그녀의 욕망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자, 머리카락이 뷰티의 얼굴을 뒤덮었다. 여주인은 뷰티의 머리를 쓸어올리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뷰티는 감히 여주인의 얼굴을 올려다 볼 수 없었다.

"네가 그렇게 방자하고 잘난 척 하더니!"

그녀는 뷰티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는 매질을 계속했다. 뷰티는 꽉 다문 이빨 사이로 높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손가락들이 그녀의 젖꼭지를 비틀었고 젖무덤을 주물렀다. 열기가 뷰티의 몸을 들끓게 했다. 뷰티는 갑작스러운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엉덩이를 위로 치켜올렸다.

"버릇 없는 계집은 이렇게 혼이 나봐야 한다,"

여주인이 말했다.

"조심하겠습니다. 주인님."

뷰티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고맙게도 매질하던 손가락이 거두어졌다. 뷰티의 젖가슴은 따뜻한

고통과 두근거리는 흥분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다. 그녀의 한숨 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러나 또 다른 처벌이 닥쳐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다시 흐느꼈다. 뷰티는 여주인 로클리 부인이 자신의 하복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를 오므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녀는 발 뒤꿈치로 판목을 두들겼으나, 가죽 채찍이 그녀의 살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격렬히 저항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채찍은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음핵을 자극했다. 뷰티는 고통과 쾌락으로 뒤범벅이 된 기분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댔다. 음핵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뷰티의 음부가 흥건히 젖어 분비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채찍 소리에 분비물의 양이 더 많아졌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엉덩이는 채찍을 향해 솟아올랐고, 음부는 폭발하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채찍질이 멈추었다. 그러나 열기는 계속 타올랐고, 뷰티는 마찰이 계속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애원하며 헐떡거렸다. 눈물 속에서 뷰티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주인을 보았다.

"너는 건방진 노예지?"

그녀가 물었다.

뷰티는 목이 메어 울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충실한 노예입니다."

그녀는 거듭 여주인에게 애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었기를 빌며 입술을 깨물었다.

뷰티의 가슴과 성기는 열기로 끓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가 판목 위에서 들썩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눈물이 앞을 가린 가운데서도 그녀는 여주인의 아름다운 검은 색 눈과 검은 머리가

예쁜 끈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주인의 젖가슴은 굵은 주름이 잡힌 눈처럼 흰 아마천 블라우스 속에 아름답게 솟아 있었다. 여주인은 손에 무엇인가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고양이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가득 찬 태도로 뷰티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고양이는 분홍빛 혀로 자신의 검은 코를 빠른 동작으로 핥았다.

그녀는 판목 위에서 몸을 뒤틀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고양이는 주인의 팔 안에서 보석같은 눈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여주인은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뷰티는 주인의 손에 노란 크림이 짙게 발라져 있음을 알았다. 여주인은 손가락으로 뷰티의 젖가슴에 크림을 문질렀다. 그리고 다리 사이 그녀의 음부에도 그것을 집어 넣었다. 그것은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신선한 버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뷰티의 부드러운 복부와 가슴 사이에 고양이를 올려 놓았다. 뷰티는 고양이가 재빨리 그녀의 가슴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뷰티는 몸을 뒤틀며 끈에 묶인 손을 잡아당겼다. 고양이는 머리를 처박고 혀로 그녀의 젖가슴을 핥기 시작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깊고 깊은 공포가 뷰티로 하여금 필사적인 저항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무심한 작은 고양이는 얼굴을 처박고 계속 젖꼭지를 핥았다. 뷰티는 기절할 지경이었다. 몸 전체가 딱딱하게 긴장되었고, 판목 위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며 몸을 비틀었다.

고양이가 오른쪽 젖가슴으로 옮겨갔다. 뷰티는 온 힘을 다해 묶인 팔을 잡아 당기며 흐느꼈다. 조그만 발을 뷰티의 배 위에 올려놓고 부드러운 배에 난 털로 그녀를 문지르며 고양이는 젖꼭지를 깨끗이 핥아댔다.

뷰티는 이를 악물고 "안돼"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 고양이가 젖꼭지를 이리저리 빨 때마다 그녀는 채찍질을 당할 때 보다 더욱 큰 비명을 지르며, 지독하고 무서운 쾌감에 떨었

다.

고양이가 배 위에서 치워졌다. 뷰티는 이를 악물고 몸을 떨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녀는 다리 사이에서 고양이가 음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오, 제발 그만, 그만."

뷰티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쾌감이 몸속을 파고드는 것과 동시에 고양이에게서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의 엉덩이는 허공에 떠있었고, 고양이의 코와 입은 점점 깊이 다리 사이로 파고 들어왔다. 그 순간 음핵에 가해지던 고양이의 입놀림이 멈추었고, 그녀는 아쉬움에 몸을 떨었다.

부끄럽고 창피스럽게도 뷰티는 자신의 성기를 동물의 머리에 더 밀착시키며 음핵을 애무받길 바랬다. 고양이의 혀는 그녀의 질 밑부분과 엉덩이의 틈 사이를 다시 핥기 시작했고 그녀는 절정에 이르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혓바닥이 그녀의 음모를 핥는 동안 그녀는 이를 악물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졌다. 고양이는 여주인 로클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여주인은 고양이와 닮은 달콤한 웃음을 지었다.

'마녀 같으니!' 하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성기는 아직도 쾌감에 떨고 있었다.

여주인 로클리는 고양이를 놓아 주었다. 고양이는 밖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뷰티는 자신의 팔 다리를 묶었던 끈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면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오므리려고 애썼다. 드러누운 채 한 손으로는 젖가슴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는 쾌감에 떨고 있는 그녀의 성기를 어루만졌다.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은총이

었다.

"무릎을 꿇고 내려와라. 너는 이제 매질을 당할 차례다."

주인의 명령에 뷰티는 마루로 기어 내려왔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뷰티는 서둘러 주인의 뒤를 따라나갔다. 그녀가 기어가는 동안에도 다리의 움직임은 내부의 욕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여관 앞에 있는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뷰티는 로클리 부인의 손짓에 따라 즉시 그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광장을 오가고 있었다. 또 우물가에 모여 잡담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두명의 마을 소녀가 로클리 여주인에게 명랑하게 인사하며 뷰티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다. 뷰티는 벌벌 떨면서 입을 꽉 다물고 매질을 기다렸다.

"내가 너의 엉덩이를 요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

부인은 억양없는 어조로 냉정하게 말했다.

"예, 주인 마님"

뷰티는 흐느꼈다.

"입 닥치지 못해. 고개만 끄덕이면 돼."

뷰티는 떨리는 턱을 내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이 카운터에 닿아 섬뜩했고, 성기에서는 분비물이 흘러 내렸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너는 충분히 즐겼느냐?"

주인이 다그쳤다. 뷰티는 어떻게 대답할 줄 모르고 커다랗게 소리내어 흐느끼기만 했다.

주인은 젖가슴에 했던 것처럼 뷰티의 엉덩이 살을 움켜 쥐었다. 그리고 세찬 매질이 시작되었다. 뷰티는 요동치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무섭고 냉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로클리 부인에게 어떻게 하든 앞으

로 복종 잘하고 양순한 노예가 되며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트리스탄이 경고했던 그대로였다. 부인은 매질을 계속 하여 그녀를 응징하였다.

"어때, 이만하면 충분하냐?"

채찍을 점점 빨리 휘두르며 부인이 물었다. 그리고 매질을 멈추더니, 뷰티의 타는 듯한 엉덩이 위에 그녀의 차가운 손을 얹었다.

"그래, 이제야 잘 훈련된 공주를 갖게 된 것 같군!"

그러나 매질은 다시 시작되었다. 뷰티의 흐느낌은 점점 흐려졌다.

뷰티는 이제 대장이 돌아올 저녁까지 기다려야 자신이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흐느낌도 멎었다.

매질이 끝났다. 그러나 채찍 소리는 아직도 그녀의 귓전에 생생했다. 뷰티는 꿈속인 양 아직도 매질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성기는 쾌락의 메아리가 크게 울리는 텅빈 방과 같았다. 대장이 도착하자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내려와 무릎을 꿇어라,"

여주인이 말했다. 뷰티는 즉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마루에 내려와 얼른 주인의 장화에 입을 맞추었다. 속치마 밑으로 예쁘게 생긴 여주인의 발목이 보였다. 뷰티는 주인의 속옷이 이마와 머리카락에 닿는 것을 느꼈다.

"자 이제 이 여관을 샅샅이 청소해라. 그리고 청소를 할 때도 다리를 벌리고 있어야 한다."

부인의 명령에 뷰티는 머리를 끄덕였다.

로클리 부인은 여관 문으로 향했다. "도대체 다른 노예들은 왜 안 돌아오지?" 그녀가 앙칼지게 말했다. "오래도 걸리는군!"

뷰티는 문 밖의 불빛에 비치는 하얀 허리띠 때문에 더욱 가늘어 보이는 로클리 부인의 허리를 바라보았다.

'트리스탄, 당신이 옳았어요.' 뷰티는 속으로 생각했다. '거역하는 노예가 되기는 너무 힘들군요.' 뷰티는 말없이 손등으로 그녀의 코를 훔쳐냈다.

흰 고양이가 뷰티의 주위를 돌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몸을 움추리며 물러섰다. 로클리 부인이 여관 문에 기대 서 있었다. 털북숭이 고양이가 뷰티에게로 점점 다가오자 그녀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리차드와의 대화

늦은 오후였다. 뷰티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시원한 잔디밭 위에 누워 있었다. 부엌에서 일하는 노예 소녀가 가끔 막대기로 그녀를 찌르며 지분거렸다. 뷰티는 그녀가 장난을 그만두길 바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낮동안의 일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녀는 백랍으로 만든 숟가락을 몇 개 땅바닥에 떨어뜨린 댓가로 한 시간 동안 부엌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다. 그리고 기어서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빨랫줄있는 곳까지 등에 지고 날라야 했다. 마을 소녀들은 그녀의 주위에서 잡담을 했지만, 뷰티는 집안이 윤이 나도록 닦고 문질러야 했다. 조금이라도 미숙하거나 머뭇거리면 그 즉시 채찍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접시에 있는 음식을 핥아 먹었다. 식사 후에 나오는 시원한 샘물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지금은 잠을 잘 시간이었고, 뷰티는 한 시간 이상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뷰티는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눈을 번쩍 떴다. 단지 그녀의 맞은 편에서 붉은 머리의 잘 생긴 남자 노예가 손으로 턱을 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뷰티는 그 노예가 그저께 병사들의 무릎에 앉아 키스를 나누던 그 노예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웃으며 오른손가락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보내는 모양을 취했다.

"도대체 로클리 부인이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오?"

그는 낮게 물었다.

뷰티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는 처벌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다시 나지막히 말했다.

"얼마나 여기 계셨는데요?"

뷰티가 물었다.

그는 로저보다도 더욱 아름다왔다. 그녀는 성안에서도 그처럼 귀족적인 노예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 모습은 트리스탄처럼 강인해 보였다. 다만 몸집이 작고 소년티가 났다.

"나는 일년 전에 이곳에 왔오. 내 이름은 리차드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 여섯달 동안 성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나요? 고의적이었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복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무서워졌고 그래서 자꾸만 외진 곳으로 숨곤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부끄러움과 치욕감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나 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매질과 멋진 여주인의 명령은 억제할 수 없는 쾌락을 제공했지만 나는 결코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으로 보내져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뷰티가 물었다.

"많이 좋아졌지요. 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주인 로클리 부인의 덕택이예요.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 지 모릅니다. 그녀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를 묶고, 처벌하고, 마구를 채우는 등 여러가지 일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처벌장에서 텐트 속에 묶여 나를 원하는 모든 남자들의 성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도 치근거림을 당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여관집 뒤에서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네 주 동안 계속한 후에야 불을 피우고 탁자를 정돈하는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나는 여주인의 손바닥에 있는 음식을 핥아 먹으며 그녀의 장화에 정신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뷰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그 곳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놀랐다.

"나는 그녀를 숭배하오. 내가 더 나약한 주인에게 팔려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이 떨릴 지경입니다."

"그래, 맞아요."

뷰티는 그의 말에 수긍이 갔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상기되었다. 매맞은 엉덩이에서도 열기가 고통스럽게 뻗쳐 올랐다.

"나는 매일 아침 매질을 당하기 위해 술집에서 조용히 누워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했어요. 또 자유로운 몸으로 거리를 지나 처벌장으로 찾아가리라고, 족쇄도 차지 않고 공공 회전판의 층계를 올라가 무릎을 꿇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더구나 병사들에게 아무 꺼리낌이나 두려움도 없이 쾌락을 제공 할 수 있을 줄을 정말 몰랐어요.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배웠오. 나는 벌써 어제밤에 그것을 알았지

요. 로클리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구요!" 뷰티는 갑자기 그녀의 사타구니 사이에서 욕망이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오. 한 노예가 로클리 부인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오. 그녀는 당신이 주위에 있을 때, 잠시도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소."

뷰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얘기해줄 게 있소."

리차드가 말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저도 아니까요. 이제 당신은 성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지요. 그러나 당신은 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소. 그렇다고 내가 복종하기가 싫어서가 아니오. 그것만은 확실하오. 다만 이것은... 좀 문제가 다르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뷰티가 대답했다.

그녀의 머리는 여러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잔인한 여주인이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리고 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는 것일까?' 뷰티는 성안에서 주인 쥴리아나가 자신을 사모하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이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비열하고 오만한 여관집 여주인과 잘생겼으나 냉담한 호송대장은 뷰티의 심금을 울렸다.

리차드는 계속 말했다.

"나는 혹독한 처벌을 원합니다. 나는 직설적인 명령을 원하고 꺼리낌 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드러운 가르침이나 아첨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대장의 말에 끌려 야영지

에 가서 기둥에 묶여 예전처럼 취급당하는 게 좋습니다."

"호송대장이 당신을 데려갔었나요?"

"오, 물론이오. 두려워 마세요. 그를 어제밤에 보았어요. 그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라면 그도 무척 좋아하지요. 비록 가끔씩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결국 성안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잘 모르겠오. 로클리 부인은 여왕 전하를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수비대도 이곳에 주둔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 생각에 여주인은 나를 살 수도 있을 거요. 나는 여관에 많은 돈을 벌도록 해주었오. 언제든지 나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나는 처벌장에 가서 곤욕을 치루어야 했지요.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을 하거나 또 바느질을 하기도 하면서 노예들이 한 사람씩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구경하지요. 그리고 구경한 댓가로 돈을 내야 하지요. 그들은 원하면 10펜스를 내고 매질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세번씩 매질을 당했는데 그 돈의 반은 처벌소가 갖고 나머지 반은 우리 여주인의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내 몸값의 몇배를 벌었고, 여주인 로클리가 원한다면 나를 이곳에 두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할 텐데." 뷰티가 속삭였다. "아마 내가 너무 빨리 순종한 것 같아요. "

그녀의 입은 고통스럽게 뒤틀렸다.

"아니오, 그렇지 않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로클리 부인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일이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거역하지 않는 일이오. 당신은 복종의 표시를 보여야만 하오. 그리고 당신이 처벌장에 보내졌을 때는 --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오. 그녀가 매일 매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 --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오.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일이 공공 회전판의 처벌을 견디는 일보다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오."

"왜 그렇지요? 내가 보기에는 회전판이 더 무서워 보이던 데요."

"처벌장은 훨씬 친밀한 분위기이고 덜 연극적이오. 그 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오. 우리가 아침에 했던 대로 노예들은 왼쪽 낮은 경사로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요. 그리고 나면 시종을 거느린 주인께서 4피트 정도의 무대 위로 나오지요. 고객들이 앉는 테이블은 무대의 오른쪽에 놓여지고, 그들은 서로 잡담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가 그들의 마음에 들면 그들은 잡담을 그치고 그 노예를 주시합니다. 당신은 곁눈질로 그들이 무대 위에 팔꿈치를 올려 놓고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10펜스"하고 외칩니다. 주인은 몸집이 큰 거친 사내입니다. 당신은 즉시 그의 무릎 위에 올려집니다. 그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요. 그는 당신을 매질하기 전에 몸에 잔뜩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렇게 하면 매질이 더욱 아프게 느껴지지만 피부는 보호됩니다. 그리고 시종이 당신의 턱을 받치고 처벌대를 돌 준비를 하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게 됩니다. 내가 선택됐을 때 주인은 나를 꽉 끌어안고는 온순하게 굴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마치 강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식이지요. 그는 내 머리 끝을 잡고 사정없이 나의 음경을 괴롭히지요. 그리고 나의 성기가 그의 앞치마를 더럽히지 않도록 엉덩이를 높이 들고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어느날 아침에 처벌을 받던 한 노예가 생각나는군요. 그는 지독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그는 매질을 당하고 몸을 웅크린 채 용서를 빌며 그의 음경을 손님들의 장화에 닿을 정도로 구부리고 여관 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의 꿈틀거리는 모습은 정말

애처로왔지만 주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지요. 그는 결국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축늘어졌던 성기는 그 때는 다시 발기해 있더군요.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불이 밝혀지는 밤이면 처벌소는 공공 회전판보다 훨씬 지독하지요. 나는 회전판 위에서 울며 쓰러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뷰티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리차드는 자신의 경험을 계속 얘기했다.

"어느날 밤 나는 여주인이 한번 명령한 후에도 세번이나 더 매질을 당했습니다. 나는 설마 네번 매질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노예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기름이 나의 몸과 상처에 발라졌고 음경을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예전보다 더 멋진 폼으로 무대를 한바퀴 돌아야 했지요. 그리고 공공 회전판에서처럼 돈주머니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문 속에 끈을 달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주막 전체를 돌면서 각 테이블에서 동전을 얻어 그것을 내 몸속으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로클리 부인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엉덩이가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그녀가 손가락으로 거기를 만졌을 때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소한 그녀가 내 음경에는 인자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날 밤 그녀는 나를 다시 병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나는 병사들의 거친 무릎 위에 아픈 엉덩이를 올려놓고, 성기를 그들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맡겨져야 했죠. 그런 고통을 당하며, 나는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한 여자노예와 교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채찍질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사정을 할 때도 여전히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여주인은 내가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탄력있는 피부를 갖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노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뷰티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그곳에 보내질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며 입 속에서만 말을 중얼거렸다.

"오, 물론이오. 적어도 일 주일에 두 번은 될 거요. 때론 혼자 보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너무 무서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엉덩이에 동전을 달아 돌아오면 당신은 여주인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뷰티는 차가운 잔디 위에 뺨을 대어 보았다. '나는 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무섭더라도 이곳에 있을 거야.' 뷰티는 리차드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도망칠 생각을 해봤나요? 다른 남자노예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전혀 없습니다. 어제 도망친 노예는 여자였습니다. 비밀을 말해드리지요. 그들은 아직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잠자러 돌아가지요. 만약 오늘 밤까지 그들이 도망친 여자노예를 체포하지 못할 경우 대장은 오늘밤 매우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겠지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뷰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주막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잠을 청하도록 해보시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대중천막

이른 저녁이었다. 트리스탄은 모욕감과 두려움 때문에 조랑말처럼 마구를 차고서 엉덩이에 꼬리를 달고 마차를 끌던 생각을 하기가 끔찍했다. 어둠이 닥치기 전 장원에 도착했고, 주인을 위해 여러 시간 동안 식탁 밑에서 발판 노릇을 했다. 대화는 오래 계속 되었다. 부유한 상인들과 마을 농부들이 농작물 상황과 날씨, 그리고 노예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을에는 성안에서 데려오는 잘생기고 고집이 센 멋진 노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왕 전하를 알현할 필요가 없는 힘센 노예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러한 노예들이 좀 더 경매에 붙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트리스탄의 주인은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손님들의 제안에 냉담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누가 여왕 전하께 이러한 요청을 하지요?"

트리스탄은 모든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기 보다는 자신의 형편없는 신분에 대한 자각만 커졌다. 그들은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버릇 없는 노예들이나 처벌, 그

리고 흔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노예들이나 트리스탄처럼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예들이 귀나 감각이 없는 것처럼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

마침내 마을로 가야할 시간이 되었다. 트리스탄은 하체가 떨리도록 마차를 마을로 몰았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자 마구를 벗었다. 트리스탄의 여주인은 공공처벌장으로 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그에게 채찍질을 해댔다.

그러나 트리스탄에게는 분주한 오월제 기둥이 준비 되거나, 조명이 비치는 회전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여러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그마한 천막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여주인은 10펜스의 입장료를 내고나서, 트리스탄을 끌고 으슥한 곳으로 갔다.

머리를 양쪽으로 땋아내린 발가벗은 여자 노예가 무릎을 넓게 벌리고 의자에 웅크린 채 천막기둥에 손이 묶여 있었다.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엉덩이를 뒤틀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은 비단 눈가리개로 가려져 있었다. 트리스탄은 부드럽고 향긋하고 축축한 여자 노예의 성기가 횃불 아래서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는 어떤 고문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며 트리스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여주인은 그에게 부드럽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트리스탄, 네가 저 여자를 갖도록 내가 10펜스를 지불해 놓았다."

여주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트리스탄은 여주인의 장화에 입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트리스탄에게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라고 말했다. 트리스탄은 여주인의 말에 따르려 했으나 그녀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감히 여자에게 덤벼들지 못했

다. 여주인은 트리스탄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트리스탄은 여주인이 자신을 살피고 연구하려는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의도에 굴복하자 새로운 흥분이 그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트리스탄의 음경이 서서히 발기되기 시작했다.

"원한다면 천천히 즐겨라. 그녀는 데리고 놀기에 충분히 아름답구나."

트리스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쁘고 정교한 입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기대감으로 바르르 떨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순간, 이 여자노예가 뷰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격렬하게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여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탐스러운 유방을 움켜잡고 주물렀다. 그녀의 몸이 욕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입도 트리스탄의 입을 빨아댔고, 몸을 활처럼 앞으로 굽혔다. 그는 머리를 숙여 그녀의 유방을 하나씩 빨았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엉덩이를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격렬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그녀를 돌려놓고 선정적인 엉덩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매맞은 자국이 나 있는 부분을 꼬집었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등을 구부리고 뒤로 자신의 부드럽고 붉은 성기를 보여주려 하였다. 그녀는 손을 묶은 밧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트리스탄은 뒤에서 그녀에게 삽입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들어올려 그녀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단단하고 자그마한 질은 너무나 작게 여겨졌다. 그의 음경이 따뜻하고 축축한 그녀의 깊은 곳으로 힘껏 진입할 때 그녀는 크게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소리였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음핵이 자신의 성기에 의해 자극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

고 싶지 않았다. 뒤에서 그녀의 음부를 더듬어 음순을 헤치고는 음핵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감사의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윤기나는 엉덩이를 트리스탄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요동쳤다.

트리스탄의 여주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넓은 스커트가 트리스탄의 몸에 닿았다. 그녀는 손으로 트리스탄의 턱을 받쳐들었다. 그녀는 계속 트리스탄을 주시하면서 절정의 순간에 이른 붉어진 그의 얼굴을 보고자 했다. 그것을 알았을 때, 트리스탄은 가슴 속에 분노가 일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의 운명이었다. 여주인의 손이 트리스탄의 엉덩이에 닿았다. 그는 여주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작은 여자노예를 더욱 힘껏 공격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음핵을 애무했다.

음경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자 트리스탄은 이빨을 악다물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었고, 엉덩이는 계속 요동쳤다. 길고 낮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여주인이 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았다. 트리스탄이 헐떡거리는 동안 그 작은 여자노예도 똑같이 절정에 올라 울부짖었다.

트리스탄은 앞으로 기대어 따뜻한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머리를 그녀의 머리에 갖다 댔다. 그 때 여주인이 손가락으로 트리스탄의 머리를 다독거렸다. 여주인의 시선이 트리스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한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내 어떤 결론을 내린 듯 약간 머리를 옆으로 숙였다. 그리고 그녀는 벨트로 트리스탄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다. 트리스탄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채찍의 아픔 때문에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여주인과 트리스탄의 시선이 뒤엉킨 채 미묘한 순간이 지나갔다. '당신은 나의 여주인이고 나의 소유자요. 그리고 당신이 명령하지 않는 한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오.' 트리스탄은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주인도

그의 눈빛에서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트리스탄의 피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트리스탄은 다시 무릎을 꿇고 여주인이 들고 있는 가죽 채찍 끝에 입을 맞추었다.

그 여자노예만으로 사실 트리스탄은 충분치 못했다. 음경은 다시 발기되었다. 트리스탄은 순간적으로 여주인의 신발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뒤틀며 자신의 의중을 그녀에게 알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비웃으며 트리스탄에게 채찍질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만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가죽 채찍으로 여전히 그를 애무하며 광장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잘생긴 조그마한 손으로 목욕탕을 가리켰다.

트리스탄은 공공 회전판을 쳐다보며 자신의 의도를 주인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곳에는 올리브 빛 피부를 한 여자노예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치렁치렁 길었고, 관능적인 몸매는 족쇄에 채워지지 않은 채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해 보였고 가늘게 뜨고 있는 검은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리고 입을 벌린 채 거친 비명소리를 내고 있었다. 군중들은 소리지르며 그녀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 목욕탕에 도착하기 전에 트리스탄은 그녀도 예전의 자신처럼 동전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다.

트리스탄이 목욕을 하는 동안 가장 잘생긴 왕자 중의 하나였던 드미트리가 마을 노예로 전락하여 공공 회전판 위로 올라갔다. 목과 무릎이 묶여 있는 그는 가죽 재갈을 입에 문 채 매질을 당하며 흐느끼고 있었다.

여주인은 트리스탄이 회전판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주시했다. 트리스탄은 두려움에 떨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트리스탄은 집까지 되돌아 왔다.

트리스탄은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재갈을 문 채 줄에 묶여 잠이 들

어야 했다. 밤이 늦었고, 그의 음경은 사타구니에서 쇠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트리스탄은 니콜라스의 방으로 내려갔다. 그의 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트리스탄이 가만히 노크하는 모습을 여주인이 훔쳐보며 미소를 보냈다. 그를 남겨두고 가기 전에 그녀는 "안녕, 트리스탄," 하고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머리결을 만지작거렸다.

로클리 부인의 애욕

뷰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두워질 무렵이었다. 하늘엔 아직 잔광이 남아있었지만 조그마한 별들이 벌써 희미하게 떠있었다. 붉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주인 로클리 부인이 잔디 위에 스커트를 활짝 펴놓고 앉아 있었다. 나무로 만든 주걱 같이 생긴 채찍이 린넨 천에 반쯤 가려져 그녀의 앞치마 장식띠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깨어나는 노예들에게 손짓을 해 자기 주변에 불러놓고 신선한 복숭아와 사과를 먹여줬다.

그녀는 예쁘게 생긴 갈색 머리 여자노예의 턱을 쓰다듬으며 껍질을 깐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젖꼭지를 살짝 꼬집었다.

뷰티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다른 노예들은 이 갑작스러운 애정에 대해 별다른 놀라움을 표시하지 않았다. 로클리 부인이 뷰티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과일을 먹었다. 주인의 손가락이 그녀의 젖가슴을 애무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그녀는 부엌에서의 갖가지 시련을 기억해 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뷰티는 리차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주인을 열심히 응시하고 있었다.

여주인 로클리의 얼굴은 침착하고 아름다왔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넘겨져 있었다. 그녀는 리차드에게 키스했고, 그들의 입이 맞물렸다. 그녀의 손은 그의 발기한 음경을 만지며 고환을 쓰다듬었다. 그가 예전에 뷰티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며 그녀는 질투심과 흥분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리차드의 태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눈은 유쾌한 성품을 보여주었다. 그의 길고도 관능적인 입은 막 집어넣은 복숭아 조각의 물기로 빛났다.

뷰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로클리 부인은 똑같은 태도로 모든 노예들을 대했다. 그녀는 금발머리를 한 작은 여자노예의 사타구니를 애무했다. 그 노예는 흰 고양이처럼 몸을 꼬면서 입을 벌리고 포도를 받아 먹었다. 로클리 부인은 로저에게 더욱 여유있게 키스하며 그의 페니스 주위의 검은 털을 잡아당겨보고 고환도 검사했다. 로저의 얼굴이 뷰티만큼이나 붉어졌다.

여주인은 잠시 상념에 잠겨 앉아있었다. 노예들은 온갖 방법으로 주인의 시선을 끌려고 애썼다. 갈색 머리의 여자노예는 여주인의 주름이 난 페티코트 밑으로 구두가 드러나자 재빠르게 고개를 숙이고 키스를 했다.

부엌에서 일하는 소녀 하나가 커다란 포도주 병을 가지고 와서 잔디 위에 펼쳐 놓았다. 노예들은 주인의 손짓에 따라 달콤한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뷰티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뒤이어 커다란 그릇에 짙은 양념을 한 연한 고기가 제공되었다.

다시 노예들을 불러놓고 여주인 로클리는 리차드와 뷰티에게 그녀의 침실문으로 가라는 동작을 취했다. 다른 노예들은 그들 두 노예에

게 시기의 눈초리를 보냈다. '무슨 일일까?' 뷰티는 궁금했다. 리차드는 재빨리 기어서 그쪽으로 갔다. 급한 와중에서도 그는 나긋나긋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다음에 뷰티가 뒤를 따라갔으나 그녀의 태도는 리차드에 비해 어색했다.

로클리 부인이 앞장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즉시 그녀는 촛불을 켰다. 뷰티는 그 곳이 금방 여자의 방인 것을 알았다. 수놓은 린넨천으로 장식한 나무 침대가 있었고 벽의 옷걸이에는 옷이 걸려있었다. 난로 위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리차드는 로클리 부인의 발에 키스하고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래, 신발을 벗겨라."

그녀가 명령했다.

리차드가 그녀의 구두끈을 벗기는 동안 로클리 부인은 겉옷을 벗어 뷰티에게 잘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아 두도록 지시했다. 블라우스와 겉옷의 매듭 표시를 보며 뷰티는 벌써 가슴 속에서 폭풍이 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부엌 판목 위에서 매를 맞던 때와 같이 젖가슴이 아파왔다. 무릎을 꿇고 뷰티는 지시에 따랐다. 그녀의 두손이 옷을 접을 때 떨리고 있었다.

뷰티가 돌아섰을 때 여주인 로클리 부인은 주름잡힌 흰색 블라우스를 모두 벗었다. 그녀의 젖가슴은 너무나 아름다왔다. 그녀는 스커트에 매달려 있는 나무 채찍을 떼어낸 다음 스커트까지 벗었다. 리차드가 채찍과 스커트를 받았다. 다음에는 뷰티가 페티코트를 받았다. 뷰티는 얼굴을 짙게 붉혔다. 여주인의 부드럽고 곱슬곱슬한 음모와 검고 위로 향한 젖꼭지가 달려있는 커다란 젖무덤을 바라보았다. 뷰티는 페티코트를 접어 내려놓고 수줍게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노예처럼 완전히 옷을 벗은 로클리 부인은 머리카락을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그들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뷰티의 머리를 가까이 잡아당겼다. 뷰티는 벌써 호흡이 가빠졌다. 여주인의 삼각형 모양의 음모 숲과 그 밑의 검은 분홍빛 음부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여자 노예들의 온갖 모습을 보았지만, 벌거벗은 여주인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 했다. 뷰티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그리고 그녀는 자발적으로 여주인의 빛나는 음모의 숲과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곱슬곱슬한 털이 입술에 닿았고 탄력있는 음부가 느껴졌다.

로클리 부인은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며 뷰티의 손이 그녀의 둔부를 안도록 하였다. 뷰티의 가슴은 젖꼭지가 터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성기는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입을 벌려 자신의 혀를 주인의 붉은 음문 속에 밀어넣고 향긋하면서 짠 맛이 나는 분비물을 맛보았다. 한숨을 토해내며 뷰티는 로클리 부인을 꼭 끌어안았다. 리차드는 여주인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받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주인의 젖 위에서 젖꼭지를 눌렀다.

뷰티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것에 미친듯이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단결 같은 뜨거운 음모, 통통하게 살찐 축축한 음부, 그리고 그녀의 입속으로 흘러내리는 애액.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여주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흘린 신음소리는 뷰티에게 새로운 흥분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달콤한 육체에 목말라 있는 것처럼 미친듯이 핥으며 혀를 날름거렸다. 마침내 뷰티의 입술이 음핵에 닿았다. 그녀는 힘껏 그것을 빨았다. 축축한 음모가 그녀의 코와 입을 덮었다. 그녀는 달콤한 향내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여주인보다 더 크게 신음소리를 냈다. 남자의 음경과는 다르지만 조그맣게 융기한 음핵을 그녀는 핥고 빨면서 애무했다. 마침내 여주인은 다리를 쭉 펴며 엉덩이를 흔들고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엌에서의 모든 고문 장면이 뷰티에게 상기되었다. --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젖

가슴에 매질을 가하던 사람이었다 -- 뷰티는 더욱 깊게 여주인의 몸 속으로 입과 혀를 집어 넣었다. 드디어 로클리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버린 듯 했다.

"그만. 이제 그만해!"

여주인은 거의 울부짖었다. 그녀는 뷰티의 머리를 떼어놓더니 리차드의 팔에 안겨 숨을 헐떡거렸다.

뷰티는 뒤로 무너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짙은 음모와 음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녀의 혀는 입술 천장을 더듬을 뿐이었다.

마침내 여주인 로클리는 똑바로 돌아서서 리차드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엉덩이를 돌리며 자신의 몸을 그에게 비볐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뷰티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리차드의 붉은 머리카락은 이마를 덮고 있었다. 근육질인 그의 팔은 여주인의 가냘픈 등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때 여주인 로클리는 뷰티의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다.

"침대에 앉아 벽쪽을 보거라."

주인이 말했다. 그녀의 뺨에 홍조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너의 다리를 넓게 벌리거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

뷰티는 즉시 복종했다. 그녀는 다시 격렬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궁둥이를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다시 머리속에 여주인이 웃으며 채찍질을 가하던 부엌에서의 고문 장면이 떠올랐다. '오, 사악한 사람. 정말이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로클리 부인은 뷰티의 벌린 다리 밑에 누워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팔은 뷰티의 넓적다리를 끌어안고 밑으로 당겼다. 뷰티는 그녀

위에 두다리를 걸치고 올라탄 자세가 되었다. 뷰티는 자신의 성기가 여주인의 얼굴 바로 위에 닿을 때까지 다리를 벌리며 주저 앉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흰 고양이의 입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로클리 부인의 입이 무서워졌다. 커다랗고 투명한 여주인의 두 눈도 고양이의 눈을 닮아 있었다. '이것은 나를 잡아먹고 말거야. 산 채로 나를 먹고 말 거야!' 뷰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질은 탐욕스런 충동과 함께 열렸다.

뒤에서 리차드는 여주인의 젖가슴을 잡고 있던 것처럼 뷰티를 잡고 있었다. 침대가 요동하기 시작했다. 여주인은 몸이 흥분에 가득 차 떨면서, 눈을 감았다.

리차드가 아래 쪽에서 로클리 부인의 벌린 다리 사이로 자신의 음경을 집어 넣었다. 뷰티는 자신이 빠른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절묘하고 뜨거운 혀가 뷰티를 핥았다. 그것은 그녀의 음모를 천천히 오랫동안 핥았고, 뷰티는 소름끼치는 미칠 듯한 쾌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것을 원하면서도 여주인의 젖은 입이 두려운 양 궁둥이를 들어올렸다. 그러나 그녀의 음핵이 로클리 부인의 이빨에 물려졌다. 여주인은 그것을 조금씩 씹고, 핥고 마침내는 맹렬하게 빨아드렸다. 리차드는 그의 날씬하고도 힘센 팔로 뷰티의 몸무게를 받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리듬에 맞추어 여주인 속으로 진입하려는 통에 침대가 몹시 흔들렸다. '정말 여주인은 섹스 테크닉이 대단하군.' 하고 뷰티는 생각했다. 그러나 뷰티는 곧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말았다. 리차드의 손이 그녀의 유방을 더욱 세차게 주물렀다. 그리고 밑에서는 여주인의 입술이 더욱 더 밀착되어 계속 빨아댔다. 마침내 뷰티는 오르가즘에 올라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환희의 파도가 밀려왔으며 그녀는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리차드가 점점 더 빨리 여주인의 몸에 요분질을 칠수록 그녀는 뷰티의 몸 밑에서 더욱 비명소리를 질렀고, 리차드도 역시 깊게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뷰티는 절정에 올랐다.

팔이 풀리고 그녀는 옆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주인 로클리의 옆에 바싹 붙어 누워 있었다. 리차드도 역시 침대에 나가 떨어져 있었다. 뷰티는 반수면 상태에서 아래 술집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음들과, 광장에서 나는 외침소리, 그리고 밤이 다가오면서 나는 여러가지 마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리차드는 무릎을 꿇고 여주인의 앞치마를 매주고 있었다. 여주인은 자신의 긴 검은 머리카락을 빗었다. 그녀는 뷰티에게 일어나라는 손짓을 했다. 뷰티는 급히 내려와 침대를 정돈했다.

뷰티는 돌아서 주인을 쳐다보았다. 리차드는 이미 눈같이 흰 앞치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뷰티는 그의 옆에 앉았고 주인은 미소를 띠며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두 노예를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손을 내려 뷰티의 성기를 만졌다. 그녀는 뷰티의 음순이 다시 벌어지고 경련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따뜻한 손으로 그곳을 만졌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리차드의 음경을 발기시켜, 그 끝을 꼬집고 때리며 음낭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자, 이제 나가자, 쉴 틈이 없어."

로클리 부인이 명령했다.

그들은 아쉬워 하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이내 복종했다. 따뜻한 손이 다시 뷰티의 게걸스럽게 벌어져 있는 음문의 분비물을 검사했다.

"벌써 이 작은 아가씨께서는 훌륭하게도 봉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

군.”

그녀는 그들의 턱을 들어 올리고 웃으며 내려다보았다. 뷰티는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졌다. 전혀 반항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얌전하게 여주인의 눈을 올려다 보았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매질을 하겠지. 다른 노예들에게 하듯이.’ 뷰티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더욱 기운이 빠지는 허탈감을 느꼈다. 리차드의 이야기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머리 속에 마을의 처벌소와 공공 회전판이 떠올랐다. 뷰티는 자신이 올바른지 그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일어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주인이 명령했다. “그리고 빨리 행진하도록. 벌써 어두워졌는데 너희들은 목욕도 하지 않았잖아.”

뷰티가 일어나자 리차드도 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엉덩이에 다시 채찍을 가하며 여주인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무릎을 높이 들어라.”

그들은 호되게 매질을 당하며 층계를 내려왔다. 뷰티는 새롭게 일어나는 열정에 얼굴이 상기되었고, 몸을 떨었다. 그들은 마당으로 내려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녀들에 의해 나무로 만든 목욕통 속에서 몸이 씻겨졌다.

내실의 비밀

트리스탄이 주인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 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점 티끌없이 깨끗했고, 푸른 색 공단으로 테를 두른 침대가 촛불에 빛나고 있었다. 주인은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트리스탄은 살며시 반들반들 윤나는 참나무 마루를 가로질러 주인의 장화에 키스를 했다. 그것은 예전의 예의 바른 태도에다가 현재의 애정을 결합시킨 그러한 행위였다.

트리스탄은 주인이 발목을 핥고 종아리 위에 입맞춤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주인은 그것을 허락했다. 주인은 트리스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음경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공공 천막에 있던 그 조그만 여자노예는 단지 자신의 욕정 일부만 채워준 상대에 불과했다. 주인의 방에 들어서자 트리스탄의 욕망은 배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전과 같이 함부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결코 주인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되었다.

트리스탄은 무엇엔가 열중해 있는 주인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 보았

다. 하얀 머리카락이 얼굴 앞으로 몇가닥 내려와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트리스탄을 내려다보았다. 트리스탄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몸을 깨끗이 씻었느냐?"

주인이 물었다.

트리스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의 장화에 입을 맞추었다.

"침대에 올라가서 앉거라."

트리스탄은 강한 흥분을 느끼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공단 침대 덮개가 매맞은 자리에 닿았을 때 얼음이 닿을 때처럼 통증이 왔다. 이틀 동안 계속 매를 맞았기 때문에 트리스탄은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주인이 옷을 벗고 있었지만, 트리스탄은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 주인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촛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입으로 불어 껐다. 침대 위에는 보석이 박힌 두 개의 잔이 포도주병과 함께 놓여 있었다.

마을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의 노예로서 트리스탄은 긍지 같은 것을 느꼈다. 성안에서의 노예생활에 대한 그리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주인은 침대에 올라가 베개에 기대앉아 무릎을 접고 거기에 왼팔을 기댔다. 그는 두 개의 잔을 잡더니 그 중 한 개를 트리스탄에게 내밀었다. 트리스탄은 갑자기 당혹감을 느꼈다. '나 보고 술을 마시란 말인가?' 그는 서둘러 잔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주인은 그것도 허용했다. 그의 단단한 가슴과 젖꼭지 근처, 그리고 배 중앙의 흰 털이 불빛에 아름답게 비쳤다. 그의 음경은 아직 트리스탄처럼 딱딱해져 있지는 않았다. 트리스탄은 그것을 애무하고 싶었다.

"나와 같이 이 술을 마시자구나."

그가 트리스탄의 생각을 읽고있는 듯이 말했다.

반 년만에 처음으로 대하는 술에 황송해 하며, 트리스탄은 꿀꺽 마셨다. 그것은 오래된 버건디 포도주였고 그로선 생전 처음 마셔보는 맛있는 술이었다.

"트리스탄,"

주인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는 주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잔을 내려 놓았다.

"너는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말에 놀라, 얼떨결에 나지막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지난 밤 회전판에서 내가 너를 매질할 때 너는 내가 미웠느냐?"

그가 물었다. 트리스탄은 충격을 받았다. 주인은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또 다시 포도주를 마셨다. 트리스탄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인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트리스탄은 속삭이듯 대답했다.

"더 크게 말하거라, 통 알아들을 수 없구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트리스탄은 대답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회전판을 따로 기억해낼 필요가 없었다. 항상 트리스탄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는 나를 '선생님' 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인님' 이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둘 다 좋다. 쥴리아가 너의 항문에 말꼬리가 달린 남근상을 집어 넣을 때 그녀를 증오했었니?"

"아닙니다, 선생님."

트리스탄은 얼굴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가 다른 조랑말들과 함께 너로 하여금 마차를 끌고 장원으로 가

게 했을 때 너는 나를 미워했느냐? 나는 오늘에 관해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마구를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던 어제 일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트리스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두 마리 조롱말 뒤에 너를 묶고 너의 엉덩이와 입을 막은 채 맨발로 마차을 끌도록 시킬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했겠느냐?"

"복종을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트리스탄은 입술이 말랐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어색했다.

"좀더 자세히 말해 보거라."

"저는 서둘러 말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

트리스탄은 떨고 있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잔을 들고 있는 손을 받쳐야만 했다.

"그렇게라니?"

주인이 다그쳤다.

"마구를 차고, 재갈을 물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

"그리고 항문에 말꼬리를 달고 맨발로... "

트리스탄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도 없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무엇을 너에게 원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트리스탄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주인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다. 너는 자세하게 대답을 해야한다. 아무 것도 숨기지

말고 우물쭈물 하지 말거라, 그리고 자세히 충분히 대답해라.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병을 들고 트리스탄의 잔을 채웠다.

"언제든지 마시고 싶은 대로 따라 마셔라. 술은 충분하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트리스탄은 중얼거리며 잔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가 마차를 끌게 된 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너는 말꼬리가 달린 큰 남근상을 항문에 꽂고 있었다. 그리고 몸에는 마구가 채워져 있었지. 너는 얼굴을 붉히는구나. 그 때 어떤 생각이 났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동물처럼 말을 끌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꼬리와 같은 치욕적인 장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트리스탄은 목소리가 떨리고, 열기가 올랐다. 그는 포도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트리스탄은 계속 대답을 해야했다.

"마구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전에 전혀 도망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 내가 매질을 하며 너를 데리고 집으로 올 때는 우리 둘뿐이었다. 너는 마을의 불량배들이 채찍질을 할 때조차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잖아."

"도망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망치더라도 결국 다시 잡혀, 죽도록 매질을 당할 겁니다. 아마 음경에도 매질이 가해질… " 트리스탄은 스스로의 말에 놀라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들과 마차를 끌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겁이 많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되면 나의 치욕감은 점점 더 해 갈겁니다."트리스탄은 잔을 들어 포도주를 마시며 눈을 가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복종하는 편이 났습니다. 탈출할 수 없을 바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하지요."

트리스탄은 잠시 눈을 꼭 감았다. 자신의 유창한 말과 열기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그런데 너는 왜 옛주인 스테판 경에게 복종하지 않았느냐?"

"저는 복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경은... "

"그래서... "

"대장이 말한 그대로 입니다." 트리스탄은 말을 더듬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는 속도도 너무 빨랐다. "저는 그를 전에는 사랑했습니다만 스테판 경은 주인님처럼 강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구나. 그도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했느냐?"

"아닙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하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성의 귀족들과 같이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의 음경을 세우고 자기의 희망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지만, 그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우리의 위치를 바꿔 놓는다면 나는 그에게 노예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여유있게 웃었다. 그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고 약간 붉어졌다. 트리스탄은 그를 바라보며 무서운 위기감을 느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거다. 최고의 노예가 최고의 주인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그러나 너는 그것을 증명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오늘 호송대장에게 너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었다. 나는 충분히 물어보

았다. 여러 해 전 자유로왔을 때 너는 여러모로 스테판보다 뛰어났었지. 승마, 검술, 활쏘기에 능숙했었지. 그리고 스테판 경은 너를 사랑하고 흠모했었다고 들었다."

"그의 훌륭한 노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굴욕을 견뎠습니다. 여왕 전하의 정원에서 축제일 밤이면 '마차길'과 그밖의 다른 놀이들로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왕의 노리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경은 가장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테판 경만큼은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떻게 해야 만족할 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령을 내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항상 다른 귀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트리스탄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일까? 왜 나는 대장에게 속을 드러내 보였을까?' 그러나 주인은 말이 없었다. 트리스탄도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계속 병사들의 야영지를 생각했습니다." 트리스탄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스테판 경에 대해 사랑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검은 눈동자가 커다랗게 빛나고 있었다. "노예들은 주인을 사랑해야만 하지요. 오두막에 살고 있는 노예들조차 우락부락한 주인일망정 그들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다그쳤다.

"지난 밤에는 심지어 회전판에서 매질을 하던 주인조차 사랑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요."

트리스탄은 자신을 매질하던 주인의 모습과 굵은 팔이 머리에 떠올랐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심지어 당신이 거친 놈들이라고 부르는, 거리에서 매질하는 불한

당들까지도요." 트리스탄은 회전판에서의 기억을 지우며 계속 말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트리스탄은 포도주로 목을 축이며 침착을 되찾아 목소리에 힘을 가했다. 트리스탄은 왼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

"손을 내리고 조랑말처럼 마차를 끌고 갈 때의 느낌을 말해 보거라."

"그것은 제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트리스탄은 대답하면서 될수록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려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눈은 매우 컸고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너무나 멋지고 완벽했다. 트리스탄은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 풀어짐을 느꼈다.

"제 말의 뜻은... 만약 노예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면, 마차를 끄는 일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밤 다시 그 일을 할 때 저는 긍지를 가졌습니다." 트리스탄은 더욱 수치심을 느끼며, 얼굴이 달아올랐다. "저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 장원으로 마차를 끄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일찌기 마을을 맨발로 다니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차를 끄는 일에서도 오히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야말로 저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트리스탄은 잔을 쭉 들이킨 다음, 내려놓았다. 주인은 빈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술병을 탁자에 놓으며 트리스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기절할 것 같았다. 여자의 음부가 열리듯이 고백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맨발로 마을을 달리는 일에 익숙치 못했더라도 저는 마차를 기꺼이 끌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

스럽고 비참했지만 저는 마을을 달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몰았고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주인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노예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너를 주시할 것이다. 만약 내가 너를 마을 밖 성벽으로 데리고 가면 불한당들이 너를 고문하려고 주위에 몰려들 것이다. 그들은 공짜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이지 않는 노예를 환영한다. 그들은 반 시간도 못되어 너를 녹초로 만들 것이다. 그들도 나름대로 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트리스탄은 시선이 흐려졌다. 그는 다시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니까 너는 원하고 있단 말이지? 너는 마구가 채워지고 얻어맞고, 터벅터벅 말을 끄는 것을 원한다는 거지?"

트리스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목이 잠겨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이유가 무엇인데?"

"모르겠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저의 희망입니다."

"무슨 희망? 더욱 벌을 받으려는 희망?"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다."

"저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희망입니다. 저를 깨부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열중뿐만 아니라 지독히 잔인하게 누군가에 의해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복종과 사랑의 깊이를 느낍니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트리스탄은 당황하며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다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여러 주인들을 사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님은 저를 빨아들이는 섬뜩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처벌과 함께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공공 회전판 처벌소에 줄을 서서 내 구두에 키스하며 애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느냐?"

그 말은 트리스탄의 폐부를 정통으로 찔렀다.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트리스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빨리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꾸짖었을 때, 저는... 저는 도망치고 싶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벌받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신에게 애원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채 회전판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느냐? 그 때 많은 것을 깨우쳤느냐?"

"예,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매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미 대중에게 제공되었고 그것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화풀이 대상이었고, 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트리스탄이 말을 멈추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관자놀이가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말없이 주인이 트리스탄에게 다가오더니 잔을 옆으로 치우고 그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작했다. 트리스탄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트리스탄을 일으켜 세우더니 음경에 입을 갖다 댔다. 주인은 트리스탄의 엉덩이를 끌어 안았다. 거칠게

그는 트리스탄의 온몸을 전부 빨아댔다. 그리고 그의 엉덩이를 벌리고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트리스탄의 음경 전체를 잡아당기더니 입술로 물고 혀로 핥아 올렸다. 손가락으로 트리스탄의 항문을 넓혔다.

니콜라스 경과 트리스탄은 서로를 갈망하며 뒤엉켜 격렬한 정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트리스탄은 깊이 잠에 빠져들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 늦은 밤은 아니었다. 마차들이 창밖 길로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옷을 입은 채 서성대고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푸른 벨벳 상의와 소매를 부풀린 린넨 셔츠는 모두 헤쳐져 있었다. 때때로 그는 갑자기 돌아서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쓰셔대고, 또 걷기를 계속했다. 트리스탄은 일어나 앉으면서도 그가 나가라는 명령을 내릴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포도주잔을 가리키며 더 마시고 싶으면 더 마시라고 말했다. 트리스탄은 그것을 집어들고 뒤로 기대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서서 트리스탄을 응시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느닷없이 주인이 말했다. 그는 트리스탄에게로 가까이 다가와 그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매질하는 것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너의 비굴함도 사랑한다. 매질 때문에 붉어진 네 피부만큼이나 상처받기 쉬운 너의 영혼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사를 나눌 때의 너의 힘도 사랑한다.!"

트리스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주인의 목소리의 열기와 눈의 표

정만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늘 위를 날아오르고 있는 것처럼 가벼웠다. 주인은 침대에서 다시 떨어지더니,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걸었다.

"여왕이 전라의 쾌락용 노예들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나는 힘이 세고 귀한 태생의 노예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늘 궁금하게 생각했었다. 과거에 내가 질문을 하면 노예들은 겁을 먹고 자기방어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너는 진심으로 대답해 주었다. 너는 너무 쉽게 노예 신분을 받아들인 것 같구나. 여왕 폐하도 설명했었지만 모든 노예들은 면밀한 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아름답고 온순한 노예들만 쾌락용으로 선발되지."

주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트리스탄은 심사 따위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언뜻 성안에서 만났던 여왕 폐하의 밀사들을 생각해 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온몸을 만지며 세심히 검토하던 일이 기억났다. 그 때 그는 어떤 감정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숙련된 눈은 충분히 그의 몸을 심사했던 것이다.

주인이 계속 말했다.

"노예들은 거의 도망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대부분 다시 사로잡힌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도망치는 동기는 무모한 도전이나 권태로움 때문이다. 남자주인이나 여주인의 옷을 훔치는데 성공한 몇몇 노예들은 탈출에 성공하기도 했지."

"그러나 여왕 폐하께서 노예들이 도망간 나라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여왕 폐하는 막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여왕 폐하는 발가벗은 노예 하나 때문에 군대를 풀어 전쟁을 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다만 노예는 그의 고국에 불명예스럽게 귀환하는 것뿐이지. 물론 그의 부모에게 자식을 돌려보

내라는 전갈이 가기는 하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보상이 없을 뿐이야. 순종을 잘 하는 노예들에게는 많은 돈과 금을 주어 보내지. 물론 어떤 부모는 그들의 자식이 지조가 없다하여 치욕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 노예 경험이 있는 이들은 도망친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그러나 노예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젊고 튼튼한 남자들에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주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트리스탄을 주시하였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었다.

"어제 노예 한명이 탈출을 했다. 여자였지. 수비부대는 수색을 거의 포기했다. 그녀는 어떠한 마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아마 리시우스 왕의 국경선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거기서는 항상 노예들의 통행이 허락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노예가 훨씬 더 많지. 그들은 수색대에 체포되어 대중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 하지. 계속 정열이 용솟음치다가는 사라지고 또 솟아올랐다가는 사라지고 해서 마침내 그들은 처벌과 쾌락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든. 여왕께서 노리는 점이 바로 이것이야. 그리고 노예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참을 수 없는 것임을 부모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 하지. 이곳 생활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 그들이 받은 벌과 쾌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쾌락을 경험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여왕 폐하와 주인들의 시야 안에 계속 머무르려고 할까?"

트리스탄은 머리 속이 혼란에 빠졌다. 포도주 때문에 머리가 더욱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너는 내게 노예 정신 상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주인은 트리스탄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의 얼굴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진지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와 보였다.

"너는 진짜 노예에게 있어서 성안과 마을의 혹독함이 커다란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노예는 막강한 힘을 숭배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노예 상태에서도 그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시련이 아무리 잔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영성화하려 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는 성안에서의 치욕보다는 오히려 마을에서의 노골적인 처벌이 더욱 끝없는 흥분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힘을 이해하고 숭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판 경의 발밑에 꿇어 앉아서도 당당했었지. 불쌍한 스테판 경."

트리스탄이 일어났고, 주인은 그의 팔을 잡았다.

"트리스탄, 나의 아름다운 트리스탄… "

주인이 속삭였다. 그들의 열정은 소진되었지만, 다시 열렬히 입을 맞추었다. 서로를 힘차게 끌어안으며 애정을 느꼈다.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얼굴에 키스하는 주인의 귀에 대고 트리스탄이 속삭였다. "치욕스런 혼란상태에 빠져있는 저를 가르치고 안정을 되찾게 하고 세련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저를 완벽하게 만들어 준 것은 온갖 처벌이 아니라, 바로 주인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구나."

그는 계속 키스를 퍼부었다.

"저는 주인님에 의해 구제되고 거듭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목과 입술에 키스를 퍼부으며 말했다.

"그러나 노예가 그의 주인을 숭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 신비의 핵심에는 주인님과 같이 항거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거칠고도 너무나 달콤해 보여 그 이상의 애정표시가 필요없을 정도였다. 매우 천천히 부드럽게 주인이 몸을 떼어냈다.

"일어나거라. 아직 바깥은 봄기운으로 따뜻한 모양이다. 시골길로 산책을 나가고 싶구나."

별빛 아래서

주인은 바지 속에다 그의 셔츠를 집어넣어 여미고는, 상의를 입었다. 트리스탄은 서둘러 그의 장화를 신키려 하였으나 그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트리스탄에게 일어서서 따라오라는 몸짓을 했다.

잠시후 그들은 집 밖으로 나왔다. 대기는 따뜻하였다. 그들은 말없이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 마을 서쪽으로 나왔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옆에서 걸어가며 종종 어둠 속에서 시종 노예와 함께 걷고 있는 주인들에게는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근처에 있는 뾰족 지붕의 집들 작은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이 넓은 길로 들어섰을 때 트리스탄은 동쪽 저 멀리에서 시장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볼 수 있었고, 공공 처벌장에서 나오는 여러사람들의 희미한 함성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주인의 옆모습과 밝은 머리카락이 트리스탄을 흥분시켰다. 죽어버렸던 그의 음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트리스탄과 주인은 주막이 있는 광장에 도착했다. 갑자기 주위가 밝아졌다. 횃불들이 사자 간판집 밑을 비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열린 출입구에서 흘러나왔다.

트리스탄은 주인을 따라 입구로 다가갔다. 주인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트리스탄은 무릎을 꿇고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였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인은 카운터에서 포도주 값을 지불하고는 그 날 아침 뷰티를 처벌하던 빨간 스커트에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 때 트리스탄은 카운터 뒷벽에 있는 뷰티를 발견했다. 그녀는 벽에 묶이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었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등뒤로 흘러내려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나무통 위에 걸터앉아 있었고, 잠자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육감적인 분홍색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다. 그녀의 양편에도 역시 많은 노예들이 피곤한 나머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일종의 절망 상태에서 오는 체념의 태도였다.

트리스탄은 뷰티와 한순간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것들과 느낌들을 얘기해주고 싶었다.

주인이 돌아왔고 트리스탄을 일으켜세워 광장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곧 마을의 서쪽문에 도착했고 시골길을 따라 장원으로 향했다. 주인은 팔을 트리스탄에게 두르고는 들고온 포도주를 권했다. 높은 하늘에 떠 있는 별빛아래 사방은 매우 고요하였다. 단지 마차 한 대가 그들을 지나쳐 갔는데, 그것은 꼭 달빛 속에 나타나는 환상같았다.

열두 명의 여자노예가 마차를 끌고 있었고, 그 중 세 명에게는 눈처럼 흰 가죽으로 된 마구가 채워져 있었다. 마차는 정교하게 금빛 도금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여주인 줄리아가 키 큰 남자와 함께 마차에 타고 있었고, 지나칠 때 그들 둘은 주인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 분이 이 마을의 시장이다."

주인이 트리스탄에게 나지막히 말했다.

그들은 장원에 들어서기 전에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주인의 영지에 들어서 있었다. 숲을 지나, 과일나무 사이를 헤치고 근처 동산으로 향했다.

얼마나 걸었는 지 몰랐다. 족히 한 시간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앞에 계곡이 뻗어 있는 동산 중간에 이르렀다. 위로는 검은 나무들이 울창했다.

주인은 공들여 불을 피우고 나서, 드러누웠다. 트리스탄은 다리를 꼬고앉아 마을의 탑과 지붕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공공 처벌소에 환한 불빛들도 보였다. 포도주의 취기가 올라 트리스탄은 나른해졌고, 주인은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드러누워, 눈을 크게 뜨고 달이 빛나는 밤하늘과 무수한 성좌들을 올려다보았다.

"너만큼 내가 사랑한 노예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트리스탄은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썼다. 잠시동안 트리스탄은 조용히 자신의 심장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충동적으로 주인에게 질문을 하고 말았다.

"여왕 폐하에게서 저를 사서 이 마을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너는 이곳에 온 지 이틀 밖에 안되었는데... "

"제발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알겠다. 이번 주말에 여왕을 뵈야 할 일이 있다. 그 때 너를 사겠다고 강력히 주장해 보마."

"그러나 스테판 경 때문에... "

"스테판 경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매년 한 여름밤에는 이상한 의

식이 거행된다. 즉 다음 한 해 동안 이 마을에서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성안에서의 귀족들에게도 이루어진다. 아무도 누가 여기에 뽑힐지는 예상못한다. 이 의식에서 뽑힌 사람의 이름들이 성과 마을의 시장에 있는 높은 무대에서 발표된다. 물론 선택된 자의 숫자는 극소수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족적이고, 가장 힘센 사람이 뽑힌다. 각각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군중들은 그 선택된 사람들을 찾아내 무대위로 올려놓고 난폭하게 발가벗긴다. 이러한 일이 난폭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옷은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기 마련이지만, 군중들은 이 일을 노예 경매만큼이나 즐기지. 노예들도 이 새로운 노예들의 출현에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 하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으로 올려보내지고 일년 동안 노예와 다름없는 최하의 대우를 받게 되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안 귀족들 중에서 선발되어 구경꾼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인물들을 받아들에게 되는데, 그 숫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다. 그들이 경매에 붙여지기 위해 끌려나오는 한 여름 밤의 흥분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지. 그들의 값은 엄청나다. 시장은 항상 그들 중 한 명을 사는데 지난 해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었지. 때때로 나의 누이 줄리아도 구매에 참가하지. 많을 때는 다섯 명이 나온 적도 있지만, 지난 해에는 두 명이었다. 어떤 때는 단지 한명일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호송대장 말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스테판 경이 포함될 거라는 거야."

트리스탄은 너무나 즐겁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가 말한 바에 의하면 스테판 경은 노예를 부릴 줄도 모르고, 여왕도 이 사실을 아시는 모양이다."

트리스탄은 혼자 속으로 웃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억제했다. 주인은 머리

를 돌려 트리스탄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곧 삼사 년간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리를 괴고 들어누웠을 때 트리스탄은 그의 옆에 누워 그를 포옹하였다. 열정이 다시 솟아올랐으나, 주인은 그를 제지하였다. 트리스탄은 복종하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주인이 트리스탄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트리스탄은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님, 노예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노예에게는 요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너만은 예외이다. 너에게는 허락하마."

"제가 어느 한 여자 노예에 대해 알아보아도 좋을까요? 그녀가 잘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항의 댓가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저는 크라운 왕자의 여자노예와 함께 마차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뷰티입니다. 그녀는 성안에서 활달하고, 뜨거운 정열과 잠시도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못하는 여자로 평판이 높았습니다. 마차 안에서 그녀는 바로 주인님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왜 복종해야만 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사자 간판집에 있습니다. 그녀도 내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물어보려는 것뿐입니다."

주인은 트리스탄의 머리를 헤치고, 입술을 이마에 댔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트리스탄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내일 그녀를 만나 물어볼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다."

"주인님!"

트리스탄은 너무 기쁘고 놀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트리스탄은 주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감히 그의 뺨과 눈꺼풀에도 키스를 했다. 그는 트리스탄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그는 트리스탄을 다시 그의 가슴으로 끌어 당겼다.

"네가 내일 그녀를 보기 전에, 낮 동안 매우 힘들고 바쁠 것이다."

"예, 알고있습니다"

"내일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농장에 있는 과수원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많은 과일 바구니를 마을로 끌고가야 하고, 낮에는 공공 회전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잠시 돌발적인 열정이 트리스탄의 내부에서 불타올랐다. 그는 주인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몸을 밀착시켰다. 그의 입술이 트리스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살며시 그는 자신을 떼어내어 머리를 돌리고는 팔베개를 하고 드러누웠다.

"너는 공공 마구간에 고용된 것이다. 너는 마구를 차고 그곳에서 마차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나는 네가 생기가 넘쳐 쓸모있다는 소리를 즉시 듣게 되길 바란다."

트리스탄은 달빛 속에서 주인의 우아한 모습과 완벽한 미를 갖춘 부드러운 가죽 칼집에 덮힌 장딴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사람거였다. 나는 완전히 그의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트리스탄은 조용히 말했다.

무릎을 꿇고 말없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트리스탄은 잔디 위에 놓인 그의 오른손에 키스를 하였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저녁 때 호송대장에게 뷰티에 관해 부탁을 해보겠다."

한 시간 정도가 흘렀다. 피워 놓았던 불은 이미 꺼졌다. 숨쉬는 것

으로 보아 주인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그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단검 하나 숨기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를 해칠 수 있었다. 그는 주인보다 체중도 많이 나가고 힘도 더 셌다. 트리스탄은 그에게 재갈을 물려 묶어놓고 그의 옷을 갈아입은 다음 리시우스 왕의 영지로 도망칠 수도 있다. 주인의 주머니 속에는 돈도 있었다.

분명히 주인도 이 모든 사실을 마을을 떠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주인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트리스탄은 어둠 속에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트리스탄은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망친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여왕 폐하에 맞서 도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모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트리스탄은 이러한 탈출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또 농부들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도 상상해 보았다. 그럴 경우 호송대장의 말에 태워져 옷을 발가벗긴 채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주인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트리스탄은 다른 가능성들도 두루 생각해 보았다. 그는 곰곰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바싹 달라붙어 살며시 팔로 그의 허리를 감고, 머리를 그의 벨벳 상의에 밀착시켰다. 트리스탄은 잠을 좀 자두어야 했다. 어차피 아침에는 할 일이 많았다.

새벽이 되기 전에 트리스탄은 잠에서 깨어났다. 트리스탄은 숲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내는 소리였고, 이곳의 평화를 깨뜨릴 만한 것은 아니었다. 트리스탄은 짙은 구름 아래 놓여있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모습이 무엇인가 변해 있는 듯 여겨졌다. 모든 문들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문들이 잠겨있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었다. 문들은 아침이 되면 열릴 것이다. 트리스탄은 다시 드러누워 주인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 ▼▼▼ ▼▼▼▼
뜻밖의 사실과 미스테리

뷰티가 목욕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고 나자, 여주인 로클리는 채찍으로 그녀를 때리며 사람이 가득 찬 주막을 지나 횃불이 비치는 사자 간판집 밑으로 데리고 갔다.

광장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젊은 남자들이 여러 주막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많은 상인들과 약간의 병사들도 보였다. 여주인 로클리는 뷰티의 머리타래를 가지런히 하고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똑바로 서도록 했다. 뷰티는 갑자기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고, 광장 오른쪽 끝, 희미한 하늘 아래 마을의 열린 문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키가 큰 군인의 검은 모습을 보았다.

말을 탄 사람은 사자 간판집 앞에서 갑자기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다. 뷰티가 고대하고 꿈꾸던 바로 그 호송대장이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은 횃불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여주인 로클리가 뷰티를 앞으로 밀자, 호송대장은 천천히 말을 몰아 밝은 불빛아래 있는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앞가슴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호송대장의 커다란 칼이 불빛 속에서 번쩍거렸다. 그의 벨벳 망또는 발 아래까지 길게 내려져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뷰티는 그의 빛나는 장화와 힘센 말의 옆구리가 앞을 지나갈 때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갑자기 말이 다가서 그녀가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호송대장은 뷰티를 끌어올려 그녀를 말 위에 앉혔다. 말 위에서 그녀는 대장의 품에 안겨 맨다리를 그의 허리에 붙이고 팔로 목을 꼭 끌어안았다.

말이 갑자기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달려나갔다. 마을 문을 통해 광장 밖으로 나가, 그들은 경작지를 따라 길을 달렸다.

뷰티는 말 위에서 흔들거렸고, 그녀의 성기는 넓게 벌어져 대장의 벨트 쥠쇠의 차가운 금속에 닿았다. 그녀의 젖가슴은 대장의 가슴에 밀착되었고, 머리까지 푹 파묻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로 스쳐지나가는 촌락과 들판을 보았고, 우아한 장원들의 어두운 윤곽도 볼 수 있었다.

말은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섰고, 나무에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미풍이 불어와 뷰티의 머리카락에 스쳤다.

마침내 뷰티는 정면에 있는 캠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호송대장은 말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들은 흰 색 천막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뷰티는 약 스무 명의 병사들이 커다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대장은 말에서 내려 뷰티를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 그녀는 웅크린 채 감히 병사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커다란 나무들이 야영지 위를 가리고 있었고, 펄럭거리는 불빛에 겨우 윤곽이 드러났다.

뷰티는 환한 불빛 속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 때 뷰티는 놀랍게도 불빛 속에 나무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십자가가 교차하는 중심에는 나무로 만든 짤막한 남근상이 박혀 있었다.

십자가는 성인 남자의 키 높이였고, 그 남근상은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자 뷰티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얼른 시선을 깔고 대장의 장화를 내려다보았다.

"순찰대는 돌아왔느냐?"

대장이 부하에게 물었다. 뷰티는 그의 발이 그녀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사람만 빼놓고 전부 돌아왔습니다, 대장님.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여자노예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만, 이 놈을 해질 무렵 산 저편 숲속에서 잡았습니다."

뷰티는 키가 크고 뼈대가 큰 전라의 노예가 불빛 한가운데로 끌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몸은 먼지투성이었고, 음낭이 그의 성난 음경에 꼭 묶여 있었고 한 쌍의 무거운 쇠덩어리 추가 그곳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그의 헝클어진 갈색머리에는 나뭇잎과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다리와 건장한 가슴은 힘이 넘쳤다. 그는 뷰티가 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했다. 그는 공포와 불안에 가득찬 커다란 갈색눈으로 대장을 바라보았다.

"로렌트로군," 대장이 나지막히 말했다. "이 노예가 실종되었다는 전갈이 성으로부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놈은 우리에게 두 번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의 엉덩이는 싱싱했고, 병사들이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예를 빈둥거리게 내버려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분노에 차서 노예를 바라보았다.

"이 자는 엘베라 부인의 사노예이지."

노예의 팔을 잡고 있던 병사가 그의 머리를 뒤로 제꼈다. 불빛이 노예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눈을 움찔했으나 여전히 대장을 응시

했다.

"네 놈은 언제 도망쳤느냐?"

대장이 물었다. 그리고 노예 쪽으로 두어 발자국 성큼 다가서 그의 머리를 더욱 세게 당겼다. 뷰티는 불빛 덕분에 그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노예는 대장보다도 더 덩치가 컸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늦게 도망쳤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멀리 도망치시지도 못하셨군 그래." 대장이 조롱하듯이 물었다. 그는 돌아서 장교에게 다시 물었다.

"병사들이 이놈을 데리고 좀 재미를 봤나?"

"두 세 번 즐겼습니다, 대장님.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대장은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흔들더니 노예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노예를 십자가 쪽으로 끌고가며 물었다.

"너는 리네트 공주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도망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목뒤로 팔을 낀 채 비틀거리며 대답했다. 뷰티는 처음으로 그 노예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물같은 피빛 채찍자국이 발목까지 완전히 덮혀있었다.

십자가 쪽으로 등을 돌려 세워졌을 때 그의 음경이 끄덕거렸다. 그것은 커다랗고 붉은 색이었고 끝에는 분비물이 배어 있었다. 노예의 얼굴이 검게 변했다. 무리들 가운데서 흥분된 속삭임이 들렸고, 뷰티는 군인들이 불빛을 향해 모여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호송대장은 그의 부하들에게 노예를 들어올리라고 지시했다. 병사들은 그를 들어올려 양 다리를 잡아당기며 나무로 만든 남근상에 밀착시켰다. 그는 메마른 신음소리를 냈다.

즐거워 하는 목소리가 병사들 사이에서 낮게 들려왔다. 넓게 벌려진 다리가 십자가 기둥에 더욱 가까이 밀착될수록 그 노예는 커다란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몸이 십자가 대들보에 납작하게 묶여졌으며 쓰라린 엉덩이가 그 곳에 닿았으며, 십자가의 남근상이 그의 내부로 깊숙히 파고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팔은 십자가 뒤로 묶여지고 긴 가죽 벨트로 벌려진 입과 귀는 뒤로 묶여진 채, 그는 할 일 없이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뷰티는 그의 더러운 머리카락들이 등뒤로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고통스럽게 진동했다. 무엇보다 가장 보기 참혹한 것은 그의 부풀어 오른 성기였다. 끝에 무거운 쇠추가 걸려 끄덕거리는 모습을 보고, 뷰티는 자신의 성기도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대장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동안 병사들은 모두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 노예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긴장하여 떨고 있었고, 쇠추는 부풀어 오른 음경에 매달려 조금씩 움직였다. 뷰티는 두꺼운 나무로 만든 음경 위에서 그 노예의 엉덩이가 확장되었다가 수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호송 대장은 노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을 가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뷰티는 노예의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입에는 넓은 가죽끈으로 힘껏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

"내일, 너는 이런 모습으로 마차에 태워져 시골 마을을 지나 끌려가게 될 것이다. 병사들이 앞뒤로 너를 감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북소리를 울릴 것이다. 그리고 여왕에게 너를 체포했다는 기별을 보내겠다. 여왕께서는 너를 보기 원할 지도 모르지. 그럴 경우 너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안으로 끌려들어가 여왕의 곁

정이 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여왕이 보기 원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을 마을에서 보내야 한다. 나는 너를 길 한가운데에서 매질을 할 것이고, 경매에 붙일 것이다. 우선 지금부터 너는 나에게 매질을 당할 것이다."

환호의 소리가 병사들 속에서 일어났다. 대장은 허리춤에 끼고 있던 가죽 채찍을 꺼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더니 채찍질을 시작했다. 채찍은 그다지 무겁고 큰 것은 아니었지만, 뷰티는 채찍이 노예의 넓적다리를 내리칠 때마다 움찔거렸고, 손가락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대장은 다리와 종아리 그리고 발목에 이르기까지 있는 힘껏 채찍을 휘둘렀다. 심지어 발바닥과 복부까지 채찍질을 해댔다. 그의 몸뚱이는 떨리며 펄떡거렸고 재갈 물린 입에서는 연신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그의 얼굴로 흘러내렸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대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몸 전체가 십자가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할 때, 나무로 만든 남근상의 밑부분이 드러났다.

마침내 그의 온몸이 붉은 채찍자국으로 가득찼을 때 대장은 15센티 가량의 회초리를 꺼내더니 그것으로 이번에는 기세좋은 노예의 성기를 내리쳤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자 매달린 쇠추가 건들거렸다. 마침내 그의 성기는 거대하게 발기되어 주홍색으로 변했다.

대장은 매질을 멈추었다. 그는 노예의 눈을 내려다 보며 손으로 그의 이마를 만졌다.

"어떠냐 괜찮은 매질이었지, 로렌트?"

노예의 가슴이 들먹거렸다. 야영지에 있는 주위의 모든 병사들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것 말고도 너는 새벽에, 정오에 그리고 저녁 무렵에 또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또 다시 웃음 소리가 터졌다. 로렌트는 깊은 함숨을 쉬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여왕이 너를 나에게 하사했으면 좋을 텐데,"

대장이 나지막히 속삭였다.

그는 뷰티에게 천막으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가 흰 색 천막의 밝은 불빛 속으로 들어갈 때, 한 장교가 다가왔다.

"나는 혼자 있고 싶네."

대장이 그 장교에게 말했다.

뷰티는 얌전히 문 옆에 서 있었다.

"대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찰대가 대장님이 도망친 노예를 처벌하는 동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예, 그들은 그 여자 노예를 아직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오늘밤 숲속에서 말을 탄 무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대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장교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장교는 책상 가까이 몸을 굽혔다.

열린 문을 통해 그녀는 노예의 손이 밧줄에 묶여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엉덩이는 아직도 매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 위 아래로 흔들리고 있었다.

"대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침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이렇게 빨리 다시 쳐들어 올 수 없을 텐데.

그것도 달빛이 훤히 비치는 한밤중에, 믿을 수가 없구나."

"대장님, 그러나 지금은 초승달이 떠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습격해온 지가 2년이나 지났습니다. 보초 말로는 조금 전에도 야영주둔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경비를 두 배로 늘렸겠지!"

"예, 즉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대장의 눈이 작아졌다. 그는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대장님, 그들은 불빛도 없이 말을 타고 숲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답니다.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침입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대장은 생각에 잠겼다.

"좋다, 일단 모두 철수하자. 도망쳤던 노예를 마차에 태우고 마을로 돌아가자. 감시탑의 경비를 두배로 늘리도록 미리 전령을 보내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니까."

잠시 말을 멈추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오늘 저녁에 해안을 수색해 보아야 소용 없어."

"알겠습니다, 대장님."

"낮이라 할지라도 모든 해안을 뒤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일 하루 더 수색해 보도록 하자."

장교가 물러가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뷰티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니 갑자기 거칠게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귀여운 것, 오늘밤은 너와 지낼 시간이 없구나"

다른 병사들보다 앞서 그들이 다시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뷰티는 그녀가 보고 들은 일을 내내 생각했고 특히 로렌트가 겪은 고통에 생각이 미치자 저절로 온몸이 진저리쳐졌다. 그녀는 로저나 리차드에게 그녀가 들은 한밤중의 말탄 침입자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후덥지근하고 소란스러운 주막에 들어서자, 그녀는 문 가까이에 있던 병사들에게 넘겨졌다. 그녀는 곧 청동색 머리카락을 가진 어깨가 딱 벌어진 젊은 병사의 무릎에 앉혀졌다. 그녀의 엉덩이에는 거대하고 굵은 남자의 성기가 닿았고 그녀의 뒤에서는 두 손이 연신 젖꼭지를 애무하였다.

대장은 여러 시간 동안 그녀를 주시하였다. 그는 가끔 부하들과 급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병사들이 서둘러 왔다갔다 하였다.

뷰티가 졸기 시작하자, 대장은 그녀를 부하들로부터 떼어내어 벽에 있는 술통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성기는 나무에 눌렸고, 손은 머리 뒤로 묶인 채 눈이 가려졌다. 병사들은 여전히 그녀의 뒤에서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도망친 노예들에 관해 생각했다. 국경 경계선까지 도망쳤던 리네트는 누구일까? 혹시 그녀는 여러 해 전 뷰티가 사랑하던 알렉스를 성안에서 괴롭혔던 그 키 큰 금발의 공주는 아닐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른 왕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까? 뷰티는 그녀를 부러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중해서 이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리 속에는 십자가에 묶인 로렌트의 모습과 그 지독한 채찍자국, 나무로 만든 남근상 위에서 고통받던 그 충격적인 장면만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새벽녘에 잠깐 트리스탄을 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었다. 잘생긴 트리스탄은 주막 출입문에 꿇어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흘러내렸고, 커다란 눈이 확신에 찬 애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그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꿈결에 뷰티는 여주인 로클리가 대장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불쌍한 공주 같으니. 만약 그들이 거기에 침입했다면 말이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침입해 왔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쳐들어 올 수 있오. 그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 장원들과 농장들을 침입할 수 있오. 이년 전에 이미 그들은 그러한 침략을 시도했었오. 그래서 경비를 두 배로 늘렸고, 이 일이 수습될 때까지 순찰을 계속하려 하오."

뷰티는 눈을 떴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로부터 멀어져 갔고,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참회의 행렬

뷰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늦은 오후였고, 대장의 침대에 혼자 있었다. 광장에서 소름끼치는 북소리와 함께 커다란 함성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그 북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집안 일을 생각해 내고는 겁에 질려 일어섰다.

그러나 로저가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대장이 당신을 푹 자게 하도록 시켰어요."

그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뷰티는 북소리가 마치 자신의 뱃속에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계속되는 북소리는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일어서서 로저에게로 갔다.

"도망쳤던 노예 로렌트요. 그가 지금 마차를 끄는 벌을 받고 있어요."

로저가 뷰티를 창문 가까이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뷰티는 이마를 유리창에 갖다댔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서 여섯 명의 노예가 이륜마차를 끌고 있었다. 그 위에는 십자가에 묶인 로렌트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다리는 십자가에 묶여 있어 쭉 펴진 상태였다. 돌출된 성기는 딱딱하게 부풀어 올라 뷰티 쪽을 향하고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고, 머리를 대들보 꼭대기에 묶어놓고 있는 굵은 가죽끈 위에서 그의 입은 경련을 일으켰다. 묶인 다리들은 마차의 불규칙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떨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어젯밤 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다.

뷰티는 천천히 움직이는 마차와 공포감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기이한 로렌트의 표정을 주시하였다. 군중들의 함성소리는 경매 때보다도 더 컸다. 그리고 마차가 우물을 돌아 주막집 쪽으로 되돌아올 때, 뷰티는 정면에서 로렌트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의 다리 안쪽과 가슴 그리고 배를 덮고 있는 붉은 채찍자국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미 두 번 매질을 당했고 세 번째 맞을 차례였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마차에 매어진 여섯 노예 중의 한사람이 트리스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건 틀림없이 트리스탄이었고, 막 그녀의 집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 숱이 많은 그의 금발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머리는 입에 재갈이 물려진 채로 뒤로 제껴져 있었다. 그의 잘생긴 엉덩이 틈 사이에는 매끄러운 검은 색의 말꼬리가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남근상이 박혀 있었다.

뷰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녀는 매를 맞으면서 느꼈던 비슷한 느낌을 다리 사이에서 느꼈다.

"어리석게 굴지 말아요. 도망친 노예는 마땅히 받을 만한 벌이고, 게다가 그에 대한 처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요. 여왕 폐하는 노예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고, 4년간 마을에서 지내도록 선고하셨대요."

로저가 말했다.

뷰티는 트리스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음경을 자신의 내부에서 느꼈다. 그리고 마차를 끌고 있는 그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고, 그의 뒤에 매달려 있는 소름끼치는 꼬리도 보고 싶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녀를 혼란시켰고, 그녀가 그를 배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아마 처벌을 받는 것을 도망자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는 어젯밤 충분히 벌을 받았어."

뷰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대장에게 넘겨지기 전에 두 번 회전판을 돌아야 하고, 마을을 한바퀴 도는 처벌을 받아야 해요."

처벌 행렬은 다시 우물을 돌았다. 북소리는 뷰티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그녀는 다시 트리스탄을 보았다. 그는 맨 앞에서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그의 남근상과 가죽 재갈이 물린 잘생긴 얼굴은 그녀의 가슴에 새로운 정열을 불러일으켰다.

"보통 병사들이 전후에서 행진을 하는데. 오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군,"

로저가 빗자루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녀는 속으로 병사들이 그 침입자들을 수색하는 모양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로저에게 여러가지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밑에서 벌어지는 행렬에 너무 빠져 있었다.

"당신은 뜰에 내려가 풀밭에서 쉬어야 해요."

로저가 말했다.

"또 쉬라고요?"

"대장의 명령이오. 뷰티 당신을 오늘밤에 여왕의 연대기 작가인 니

콜라스에게 빌려 주겠다고 했어요."

"트리스탄의 주인에게요? 그가 나를 부탁하셨대?"

뷰티가 속삭이듯 말했다.

"니콜라스 경이 당신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다더군요. 빨리 아래로 내려가요." 로저는 방바닥을 쓸며 뷰티에게 말했다.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마을 끝, 넓은 길이 뻗어있는 곳으로 처벌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뷰티는 대열의 끝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재회

뷰티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성안에서 하던 습관대로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졌다. 오늘밤에 트리스탄을 보지 못하더라도, 트리스탄이 머무는 장소에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침착할 수 없었다.

마침내 어둠이 마을을 덮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짓는 '착한 노예'인 리차드에게 그녀를 연대기 작가인 니콜라스에게 데려다 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주막은 예전과 다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밝은 불꽃들이 예쁘게 생긴 작은 창문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봄의 대기는 향기롭고 달콤했다. 리차드는 그녀를 천천히 걷게 하고는,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좀 더 생기가 넘치게 보이라고 충고하였다.

뷰티는 낮은 창문을 통해 식탁에 앉아있는 부인들과 남자들을 볼 수 있었다. 발가벗은 노예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접시와 그릇들을 내놓고 있었다.

"무엇인가 예전과 다른데... "

그녀는 훌륭한 집으로 가득 찬 더 넓은 길로 나오면서 말했다. 집들의 문 옆 선반에는 손발이 묶인 노예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예는 단단히 묶여 재갈이 물려있는 반면, 어떤 노예들은 조용히 복종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없어요. 그리고 제발, 조용히 해요. 당신은 말을 해서는 안돼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처벌소에서 끝장나고 말 거요."

리차드가 낮게 말했다.

"그런데 병사들은 어디에 갔지요?"

뷰티가 다시 물었다.

"뷰티, 당신 채찍질 당하고 싶어요? 그들은 침입자들을 수색하러 해안과 숲속으로 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비밀이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가 겁을 주며 말했다.

그들은 마침내 니콜라스 경의 집에 도착했다. 리차드는 그녀를 그곳에 두고 떠났다. 하녀가 그녀를 맞아들이며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였다. 기대감에 격앙되어 뷰티는 좁은 복도로 나아갔다.

문이 열리더니 하녀가 그녀를 들어오라고 명령하고는 문을 닫았다.

뷰티가 눈을 들어 그녀의 앞에 서 있는 트리스탄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두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 옆에는 키가 큰 니콜라스 경이 서 있었는데 뷰티는 경매 때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와 트리스탄은 서로를 포옹했다. 뷰티는 곁에 있는 니콜라스를 의식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니콜라스 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침착하여라. 너는 나의 노예와 원하는 만큼 이곳에 머물러도 좋

다. 그리고 이 방에서 너희 둘은 자유이다. 네가 이곳에서 떠날 때 너는 다시 예전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오, 주인님!"

뷰티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그의 장화에 키스했다. 니콜라스 경은 감사의 표시를 받아들이고는 그들을 떠났다. 뷰티는 쏜살같이 트리스탄의 품속에 안겼고, 그는 그녀의 키스를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귀여운 당신, 아름다운 꼬마 아가씨,"

트리스탄은 그의 입술로 그녀의 목과 얼굴을 애무하며 속삭였다. 그의 성기가 그녀의 벌거벗은 배에 닿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의 몸은 빛나고 있었고 금발은 육감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팔로 그의 목을 감고서 팽창한 음부를 그의 성기에 밀착시켜갔다. 트리스탄은 푸른 색의 공단천이 덮힌 참나무 침대에 천천히 드러누웠다. 베개 위에 길게 몸을 뻗치면서 그는 그녀가 위에 탈 수 있도록 자세를 취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유방을 들어올려 유두를 꼬집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몸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상하 운동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두를 만졌다. 그녀는 키스를 퍼부었다.

트리스탄의 얼굴은 신음소리와 함께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가 밑에서 분출하는 것을 느꼈다. 뷰티도 다리를 쭉 펴며 마지막 쾌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들은 팔을 끼고 드러누웠고 트리스탄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키스를 하였다.

"트리스탄, 당신의 주인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배려했을까요?"그녀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달콤한 반수면 상태에 있었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촛불들이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이상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오.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일을 좋아하고, 아마도 또 내일은 내가 마을에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즐길 것이오. 그는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오."

갑자기 마구를 차고 말꼬리를 달고 있던 트리스탄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당신의 행렬을 보았어요."

얼굴을 붉히며 그녀가 속삭였다.

"그 광경이 당신에게 지독하게 보이던가?"

그는 키스하며 위로하듯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도 약간 붉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지독한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깜짝 놀란 시늉을 하며 뷰티가 물었다.

낮은 웃음소리가 트리스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닿아 있는 그의 음경 주위에 나 있는 곱슬곱슬한 금빛 털을 잡아당겼다.

"맞아. 그것은 정말 지독히 무서운 일이었오."

트리스탄이 말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 보며 웃었고 다시 열렬히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젖꼭지에 키스하고 깨물었다.

"당신을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나는 당신이 모든 일을 체념하기를 기도 했어요… "

그는 그녀가 사랑스럽게 깨무는 대로 허락하며 그녀의 머리에 키스를 했다.

"나는 체념한 것 이상이오."

그녀는 그의 왼쪽 넓적다리에 올라가 자신의 음부를 그곳에 대고 문질렀다. 그는 그녀가 그의 젖꼭지를 깨무는 동안 계속 신음소리를 냈고, 그녀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를 침대 위에 벌렁 눕히고, 그녀의 입술을 열었다.

"말 좀 해 보세요."

그의 키스를 중단시키며 그녀는 졸라대듯 물었다. 그의 성기가 그녀의 불두덩이를 스치면서 빳빳한 음모를 음핵에 부드럽게 밀착시켰다. "당신은 말해야 돼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당신은 어떻게 마구와 재갈, 그리고 그 말꼬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구요?"

사실 그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성에서 그들이 끌려나왔을 때의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자부심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진정한 나의 주인을 만났오. 그는 나에게 모든 처벌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었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치욕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키스하기 시작했고 그의 음경으로 그녀의 음부를 열고 음핵에 밀어 넣었다.

뷰티는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엉덩이를 들어올렸다. 그들은 즉시 한 몸이 되어 다시 뒹굴었다. 트리스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팔로 기둥처럼 그의 어깨를 지탱하며 그녀 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의 젖꼭지를 빨기 위해 머리를 들었다. 손은 그의 엉덩이를 꼬집고 벌리고는, 채찍자국을 만지면서 점차 항문의 부드러운 주름진 입구를 더듬었다. 트리스탄의 동작은 점점 거칠고, 빨라지고 열이 올랐다. 그리

고 갑자기 그녀는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놓인 은촛대에서 굵은 밀랍양초를 하나 집어들더니 촛불을 훅 불어 끄고 손끝으로 양초의 녹은 부분을 굳게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양초를 그의 엉덩이에 힘차게 밀어 넣었다. 트리스탄은 고통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질은 그의 음경을 팽팽하게 감싸고 쾌락의 절정을 만끽했다. 밀랍양초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그녀는 그의 뜨거운 정액이 그녀 질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교성을 지르며 받아들였다.

그들은 나란히 누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몽롱할 뿐이었다. 트리스탄은 말없이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는 일어나서 포도주 한 잔을 부어 그녀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녀는 귀부인처럼 멍하니 그것을 받아마셨고 이상한 감각이 전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뷰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양순하게 되었오? 당신은 항상 반항적이었는데."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나는 잔혹하고 간악한 주인들의 손에 빠져버렸어요."

그녀는 여주인 로클리가 부엌에서 행한 처벌과 호송대장과 함께 보낸 밤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 두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생각했다.

트리스탄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쳤던 노예 로렌트에 대해서 말했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결국은 발견되어 로렌트처럼 처벌받고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트리스탄, 나는 성으로 되돌아가느니 도망을 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대장이나 여주인 로클리와 떨어지게 될 거요. 당신이 도망치면 잔혹한 사람에게 고통받을 것이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잔혹한 처벌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친 것은 주인들이 아니예요. 그것은 단지 잔혹함과 냉혹함 그리고 무자비함이예요. 나는 처벌 중에 나 자신을 잊고 싶어요. 나는 대장도 좋아하고, 여주인도 좋아하지만, 마을에는 아마 더욱 잔혹하고 거칠은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는군," 그는 그녀에게 다시 포도주를 권하며 말했다. "나는 니콜라스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오."

트리스탄은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며, 어떻게 그와 니콜라스가 사랑에 빠졌고 함께 동산에 올라갔던가를 이야기 했다.

"오늘 낮에 공공 처벌소에서 두 번째 벌을 받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변했오. 내가 처벌소의 층계를 올라갈 때는 수치스러웠지만 공포감은 사라져 버렸오. 나는 횃불 아래서보다 한낮의 태양 속에서 시장 전체를 더욱 명확히 살펴볼 수 있었오. 내 말은 사물들을 더 잘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거대한 구조와 잔인한 처벌 밑에서 나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뜻이오. 나의 존재는 처벌대에 있거나 마차를 끌고 있거나간에, 연료가 따뜻함을 위해 사용되듯이 타인들을 위해 이용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의미요. 내 주인의 의지가 나를 인도하고, 그를 통해 나는 나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오."

뷰티는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러면 당신은 영혼을 잃어버렸군요. 그것을 주인에게 주어 버렸군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않아요. 나의 영혼은 여전히 나의 것이고, 노예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예요. 나는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나는 몸을 대장과 병사들 그리고 로클리에게 주어 버렸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은 그들 누구의 소유도 아니예요. 나는

성안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나는 단지 좀더 잔혹하고 무심한 주인들에게 던져졌을 뿐이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말이요?"

트리스탄이 물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만큼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그러나 나의 영혼도 곧 변화하겠지요. 아마 그것은 내가 니콜라스같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크라운 왕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미소짓게 했다. 쥴리아나 부인은 그녀를 무섭게 했고 괴롭혔다. 대장은 그녀를 쇠약케 하고 놀라게 했다. 여주인 로클리는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트리스탄의 말대로 커다란 구조에 속한다는 영예와 흥분이 그녀에게는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노예로군요." 그녀는 일어나 앉아 포도주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말했다. "둘 다 행복하기는 하지만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오.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소? 부드러움에 섞인 고통을 원하지 않는가 말이오?"

"나를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에게는 부드러움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트리스탄과 니콜라스 사이의 친밀함을 생각하며 멈칫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 더욱 커다란 신비를 맛보게 할 거요."

트리스탄이 말했다.

"나의 운명도 곧 변화를 맞게 될 거예요. 오늘 낮 로렌트가 처벌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의 용기가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대답했다.

트리스탄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은 훌륭한 노예요. 아마 당신은 나보다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오."

"아니예요, 나는 여러모로 단순한 노예예요. 당신의 운명은 자아에 대한 거부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녀는 팔꿈치에 몸을 괴고 그에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포도주 색깔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커다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정말 멋졌다. 그를 밧줄로 자기에게 묶어놓고 싶은 괴이한 생각이 뷰티에게 떠올랐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한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오. 항상 허락되지는 않을 테지만… "

"당신 주인같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띠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무슨 소리인가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 시간에 항상 바깥엔 마차들로 가득 찼었는데."

"모든 문들도 잠겨있어요. 병사들도 없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침입자들을 수색하러 병사들이 몰려갔어요."

그가 너무나 아름다와 보여서 그녀는 다시 정사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그의 성기를 들여다 보았다. 그것은 이미 힘을 되찾고 있었다. 그 때 그녀는 멀리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둘의 모습이 좋았다. 그러나 그녀는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하얀 머리털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트리스탄은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그녀는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 거울은 이중거울이었고 이러한 엿보는 거울에 대해서 그녀는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내 트리스탄의 주인이 그들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검은 얼굴은 명확히 보였고 그의 흰 머리카락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주름살을 짓고 있었다.

트리스탄은 홍조를 띠며 웃었다. 뷰티의 마음도 누그러졌다.

주인이 거울 앞에서 사라지고 방문이 열렸다.

소매가 넓은 우단옷을 입은 우아한 그는 뷰티의 어깨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았다.

"나에게 다시 말해보아라. 네가 들은 병사와 침입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다."

뷰티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발 대장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 주세요."

그녀는 애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

잠시 동안 주인은 생각에 잠겨 서 있었다.

그는 뷰티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했다.

"이리 오너라. 나는 뷰티를 즉시 주막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저도 가도 될까요, 주인님?" 트리스탄이 물었다.

그러나 주인은 정신이 없었다. 그는 트리스탄의 말을 들은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집 뒤편으로 나왔고, 니콜라스는 성의 흉장 쪽으로 가며 그들에

게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커다란 성벽에서 반대편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이 뷰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니콜라스가 돌아오면서 낮게 말했다.

"너무 마을의 경비를 소홀히 하는 것 같군."

"대장은 그들이 성 밖 농장들과 장원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초를 세워놓았어요."

뷰티가 말했다.

니콜라스는 고개를 저으며 이를 부정했다. 그는 집의 문을 잠갔다.

"주인님, 도대체 이 침입자들은 누굴까요?"

트리스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태도에 노예다운 모습은 전혀 없었다.

"신경 쓸 것 없다,"니콜라스는 그들 앞에 서서 걸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뷰티를 그녀의 주인에게 데려가야 겠다. 빨리 따라 오거라."

재난

니콜라스는 트리스탄과 뷰티를 그의 옆에서 걷도록 허락하고는 서둘러 거리를 걸어갔다. 트리스탄은 뷰티를 꼭 끌어안고 그녀를 애무하며 키스했다. 사람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했는지 마을은 평화롭게 보였다.

그들이 주막 근처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멀리서 날카로운 외침소리와 함께 거대한 성벽을 부수는 해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마을의 망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모든 집들의 문들이 열렸다.

"빨리 뛰어."

니콜라스가 소리치며 뷰티와 트리스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창문이 내려지고 사람들은 수갑이 채워진 그들의 노예들을 붙잡았다. 전라의 노예들이 처벌장에 있는 술집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튀어나왔다.

뷰티와 트리스탄이 광장으로 달려갈 때 성문을 부수는 커다란 해머 소리가 들렸다. 광장 저 너머로 마을의 서쪽 문이 열리면서 알아 들을 수 없는 비명소리와 포효소리가 공중에 울려퍼졌다.

"습격이다! 습격!"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트리스탄은 뷰티를 안고 주막 쪽 자갈길로 달려나갔다. 니콜라스가 그의 옆에 있었다. 그러나 터번을 두른 많은 침입자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어왔다. 뷰티는 주막의 모든 문과 창문들이 침입자들에 의해 부서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 앞에도 휘날리는 옷을 입은 검은 얼굴의 침입자가 칼을 차고 나타났다. 트리스탄은 침입자의 말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강력한 팔이 그를 밀어제치고 뷰티를 끌어올리더니 그녀를 말 안장에 올려놓았다.

뷰티는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는 그녀를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려 애를 쓰며 뒤쫓아오고 있는 트리스탄과 니콜라스를 보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트리스탄이 두 명의 기마병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았다. 니콜라스는 땅바닥에 나뒹굴며 말발굽을 피하려고 팔로 머리를 감쌌다. 트리스탄은 두 명의 침입자에 의해 말에 태워졌다.

말이 울부짖는 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온마을을 진동시켰다. 침입자는 뷰티가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그녀의 어깨를 묶었다. 말은 광장을 떠나 마을 문 쪽으로 달려갔다. 사방에서 말탄 침입자들이 지나쳤고 옷자락이 바람 속에서 펄럭거렸다.

곧 그들은 성 밖 길로 나왔고, 마을의 종소리는 점차 희미해졌다.

밤새도록 그들은 달렸다. 침입자의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뷰티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계속 말을 탄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납치된 노예들의 흐느낌과 신음소리도 들렸다.

무리는 빠른 속도로 언덕을 넘고 나무로 가득 찬 위험한 계곡을 빠

져나갔다. 좁은 길을 지나 끝없는 터널을 헤쳐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뷰티는 바다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뷰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바닷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해안의 후미진 곳에는 커다란 검은 배가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닻을 내리고 있었다.

말들이 아래로 달려내려가 얕은 물을 신속하게 건너는 동안, 뷰티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국 상품

뷰티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누워 있었고, 여전히 졸음이 오는 상태였다. 그녀는 눈도 뜨지 않고 드러누워 있었지만 어릴 적 아버지의 성에서 타보았던 커다란 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겁에 질려 그녀가 벌떡 일어서자, 갑자기 검고 매끄러운 얼굴의 한 사내가 버티고 서 있었다.

뷰티는 흠 없는 용모를 가진 젊은이가 새까만 아몬드 모양의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았다. 검은 색의 곱슬곱슬한 긴 머리카락이 얼굴의 형태를 천사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는 키가 큰 소년이었다. 비단으로 된 느슨한 긴 바지 위에 허리를 졸라맨 금빛 비단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뷰티를 일으켜 세우고 검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웃었다.

뷰티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즉시 그 아름다운 소년이 그녀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그는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는

데, 그 모습은 공포를 느끼게 했다. 뷰티는 조용히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빗을 꺼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었다. 뷰티는 나른한 온몸에서 자신이 목욕을 했고, 향수도 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리는 점점 의식이 돌아왔다. 온몸에서는 향료의 냄새가 났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다. 금빛 안료가 그녀 몸에 뿌려졌고 그것은 계피향을 내고 있었다. 좋은 냄새라고 뷰티는 생각했다. 그녀는 입술에도 뭔가가 칠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신선한 딸기냄새가 났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졸려서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 없었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주위에는 남녀 노예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트리스탄을 발견했다. 나른한 흥분감 속에서 그녀는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다. 그러나 검은 피부의 시종이 다급한 표정으로 그녀를 제지하였다. 과장되게 눈썹을 찌푸리며 그는 손바닥을 내저었다. 그는 잠든 트리스탄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뷰티의 발가벗겨진 음부를 쓰다듬으며 애무하였다.

뷰티는 너무 피곤했다. 모든 노예들의 몸에 기름이 발라졌고 향내가 났다. 그들은 공단 침대 위에 놓여진 금빛 조각품들 같았다.

소년이 뷰티의 머리를 공들여 빗겼다. 그는 보물을 어루만지듯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고 사랑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음부를 애무하였다. 그는 뷰티에게 미소를 보내며 엄지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대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얼마 후 더 많은 시종들이 나타났다. 올리브 빛 피부의 여섯 명의 시종이 뷰티를 에워싸 그녀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들고 층계를 올라가 낯설은 목소리들로 가득 찬 다른 방으로 옮겼다.

그녀는 빛나는 휘장들이 머리 위에 솜씨좋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붉은 밑바닥은 조그마하고 정교한 금과 유리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에도 역시 향기가 강하게 풍겼다.

갑자기 그녀는 커다란 공단 배개 위에 눕혀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시종들이 겁을 주며 입술에 손을 대어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시종들이 물러나고도, 그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머리는 형형색색 빛나는 비단 터번을 두르고 있었고, 검은 눈이 빛났다. 그들은 무엇인가 토론을 하면서 보석으로 치장한 손으로 연신 그녀를 가리켰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검사했고, 가슴을 살짝 꼬집기도 하며 때리기도 했다. 다른 손들이 그녀의 다리를 벌리고 부드러운 솜씨로 음순을 검사하고 음핵을 마치 포도알인 양 굴려보았다. 빠른 대화가 그녀 위에서 오고갔다. 그녀는 수염난 턱과 검은 눈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매우 귀중한 물건인 양, 깨지기 쉬운 물건인 양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러나 그녀의 잘 훈련받은 음부는 단단해졌고, 분비물이 흘렀다. 가슴을 애무받을 때 그녀는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귀와 코, 발가락과 손가락이 검사를 받는 동안 눈을 감았다.

입을 벌리고 검사를 받을 때 그녀는 길게 숨을 쉬었다. 입술도 당겨졌다.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고, 몸이 뒤집혀졌다.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여섯 개의 손이 엉덩이에 나 있는 채찍자국을 눌렀다. 항문도 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조금 몸을 꿈틀거렸을 뿐 부드러운 공단 위에 뺨을 대고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돌아누웠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앙에 있던 검은 얼굴의 남자가 그녀를 향해 웃더니 그녀의 성기를 칭찬하듯이 애무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종들이 다시 그녀를 들어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시험에 통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앞섰다. 그러나 더 이상 계속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가 옮겨진 곳은 또 다른 방이었다. 그 방은 괴이하게도 여섯 개의 긴 금빛 새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각의 새장에는 솜씨좋게 에나멜 금색을 칠하고 비단 리본이 손잡이에 매어진 채찍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내부의 밑바닥은 하늘 색 공단으로 덮혀 있었다. 뷰티는 이런 새장 중의 한 곳에 누워 있는 동안에 밑바닥이 장미잎으로 채워진 것을 깨달았다. 장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새장은 그녀가 일어나 앉을 만큼 충분히 높았다.

멋진 금빛 그물로 그녀의 음핵과 음순이 감싸졌고, 넓적다리와 허리는 금빛 사슬로 묶였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만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었다. 그것은 성안이나 마을에서도 전혀 허락되지 않던 일이었다. 새장 문이 닫혔고 자물쇠가 잠겨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달콤한 나른함이 그녀 몸에 퍼졌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 밑에 있는 새장에 트리스탄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몸집이 작고 섬세한 남자들이 -- 이번에는 소년들이 아니었다 -- 트리스탄의 음낭과 음경을 검고 나른한 손으로 톡톡 건드리고 있었다. 그도 역시 촘촘한 그물로 덮혀 있었다. 그녀는 트리스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왔다.

또 다른 운명의 수레바퀴

트리스탄은 뷰티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새장에서 일어나 앉아 다리가 묶인 채 방의 천장을 자세히 살폈다.

반 시간 전에 분명히 그들은 다른 배로 옮겨졌다. 닻을 내렸고, 누군가가 선상에서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 트리스탄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조와 억양은 낯설지 않았다.

마침내 뷰티가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켜더니 다리를 묶고 있는 금속 그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억해 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트리스탄을 바라보았다.

"트리스탄,"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 앉아 새장의 창살을 꼭 붙잡았다.

"쉿!"

트리스탄은 천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서둘러서 다른 배로 그들이 옮겨졌음을 속삭이듯이 알려주었다.

"나는 우리가 바다 멀리로 항해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새장 밑에는 도망쳤던 불쌍한 로렌트가 갇혀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마을로 추방되었던 드미트리는 그녀 위의 새장에 갇혀있었다.

"그런데 누가 배 위에 왔었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조용히 해, 뷰티,"

트리스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뷰티에게 주의를 주었다.

뷰티는 얼굴에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금빛 기름이 발라진 그녀의 몸매는 곡선이 너무도 뚜렸하였고 아름다왔다. 그녀는 작고, 둥글고 완벽해 보였다. 그리고 새장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정원에 정열해 놓기 위해 이국에서 수입해 온 기이한 동물같았다. 그들 모두가 그처럼 보였다.

"우리는 아직도 구조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녀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트리스탄은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되었으며, 여왕 폐하의 보호하에 있는 귀중한 공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이야기해서 쓸데없이 그녀를 놀라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내 로렌트가 정신이 들었다. 그는 매맞은 상처 때문에 천천히 일어났다. 그도 금빛 기름 때문에 뷰티처럼 빛나고 있었다.

모든 채찍자국과 상처가 금빛으로 깊게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조각품 같았다. 어쩌면 예전부터 그들의 상처자국은 장식품이었는지도 모른다. 십자 처벌대에 있을 때는 헝클어져 있던 그의 머리카락이 지금은 가지런히 빗겨져 있었고 흑갈색의 곱슬머리로 변해 있었

다. 그는 트리스탄을 쳐다보며 잠에서 깨어났다.

트리스탄은 서둘러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천장을 가리켰다. 그들은 모두 위에서 들리는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나, 그 소리는 전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로렌트는 머리를 흔들더니 뒤로 기댔다. 그리고는 거의 무관심하게 천천히 말했다.

"무슨 일이람!"

뷰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으며 어색하게 트리스탄을 바라보았다. 트리스탄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앞으로 기어가서 새장의 창살을 잡으면서 말했다. "조용히 해! 누군가 오고 있어."

선창에서 희미한 울림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그들을 돌봐주던 비단옷을 입은 두 명의 소년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배모양의 조그마한 청동 기름 램프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 긴 칼을 차고, 두터운 가죽벨트에 단검을 꽂은 키가 크고 갈색 머리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영주가 그들을 사납게 훑어보고 있었다. 두 소년 중 나이든 아이가 영주에게 낮은 이국 목소리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였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

"트리스탄, 뷰티, 로렌트,"

그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댔다.

그 말을 듣고 올리브 색 피부를 한 소년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그들은 눈을 돌리고 문을 열더니 나가버렸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군. 너희들과 엘레나, 로잘린드, 드미트리는 가장 훌륭한 노예들이지. 이 도독놈들이 그래도 안목은 가지고 있군, 그들은 약탈한 노예를 검사하자 마자 값어치가 없는 노예들은 해안에

다 석방시킨 거야."

"그러나 영주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트리스탄이 영주에게 물었다. 영주는 분노에 찬 태도였다.

"너희들은 지금 술탄(이슬람교국 군주)의 손아귀에 있다."

뷰티는 깜짝 놀랐다.

트리스탄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영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주님, 도대체 왜 우리를 구조하지 않는 건가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한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았다. 술탄은 부드러운 피부를 한 잘 훈련된 여왕의 노예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술탄은 또 그의 돈을 사랑한다. 2년이 지나면 그는 너희들을 흠 없이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보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를 믿어도 좋다. 이런 일은 수백 번 있었던 일이니까. 그와 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와 우리의 밀사들이 서로 만날 것이다. 그는 여왕 폐하와 분쟁이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없을 것이다."

"위험이 없다구요! 우리가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 가고 있는데…
"

"조용히 해라, 트리스탄,"그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여왕 폐하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노예를 전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술탄이다. 그는 여왕에게 노예를 훈련시켜 선물했었다. 어떤 재난도 없을 것이다. 물론… "

"물론 뭡니까?"

트리스탄은 따지듯 물었다.

"너희들은 더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영주는 걱정스럽지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술탄의 왕궁에서 너희들은 더욱 낮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주인들의 놀이개감이 되어 이성을 갖춘 인간으로 취급 받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애완용 동물처럼 취급되고 높은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고,"

뷰티가 속삭였다. 그녀의 아랫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두손으로 창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는 않았다.

"그래,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다."

"영주님, 우리는 여왕 폐하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거대한 세력들 간의 복잡한 교환에는 무엇인가 희생양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너희들은 술탄의 왕궁에 봉사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새주인에게 보물단지처럼 대접받을 것이다. 술탄은 자기나라 출신의 많은 노예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특히 미묘하고 호기심을 끄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트리스탄은 화가 나서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는 야생동물처럼 갇혀 버렸고 마음은 비참한 침묵 속에 잠겨버렸다.

"나는 할 일을 다했다."

영주는 뒤로 물러서며 우리를 응시했다. 드미트리는 잠에서 깨어나 팔꿈치를 괴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침입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받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나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돈을 받았다." 영주는 문쪽으로 가서 빗

장를 잡았다. "꼭 2년이다. 그것은 그리 긴 기간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의 견문과 경험은 성안에서 엄청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나의 주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대기를 쓰는 니콜라스 경 말입니다. 그는 습격시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는 무사하다. 지금 그는 여왕 폐하를 위해 이번 습격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는 너를 잃고 매우 비통해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지. 자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 현명하게 행동해라."

그는 즉시 그들을 떠났다. 모두 조용히 있었고 위에서는 선원들의 외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른 배가 그들의 배를 떠나가는 것을 파도가 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탄 거대한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리스탄은 차가운 창살에 기대어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트리스탄,"

뷰티가 말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가슴을 가리고 있었고, 불빛이 윤기있는 그녀의 나신 위에서 번쩍거렸다.

"이것은 똑같은 시련일 뿐이예요."

트리스탄은 길게 드러누워 팔 다리를 쭉폈다. 다리 사이의 금속 때문에 불편했지만, 그는 팔에 머리를 괴고 오랫동안 말없이 흐느꼈다.

얼마후 뷰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신이 주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트리스탄, 당신이 한 말을 명심하세요."

"무슨 말인데, 뷰티."

트리스탄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의 존재는 타인의 의지에 의해 해체되는 제물에 불과하다는 것 말이예요. 트리스탄,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깊숙히 그 해체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 맞아, 뷰티."

"이것은 또 다른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좀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포로예요."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지."

트리스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장의 위치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만질 수가 없었다. 단지 그녀의 예쁜 얼굴과 창살을 잡고 있는 조그만 손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

"사실이오, 당신이 옳소."

트리스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노예 신분에 대해 비록 익숙해져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처절하게 무력감을 느꼈다.

뷰티의 얼굴을 쳐다보며 트리스탄은 그녀의 눈에서 근심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떠한 고통과 속박이 닥쳐올지 전혀 몰랐다.

드미트리는 몸을 돌려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뷰티도 고양이처럼 몸을 쭉 펴더니 비단 침대에 드러누웠다.

문이 열리고 여섯 명의 시종이 들어오더니 따뜻하고 향기나는 잠오는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문도 닫지 않고 나가버렸다.

끝없는 욕망과 방황

뷰티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드러누워 쇠창틀을 통해 별들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새장에서 커다란 큐션이 있는 긴 테이블 위로 옮겨졌다.

촛불이 일렁거렸다. 그녀는 진한 향내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음악소리가 들렸다. 잘 생긴 젊은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금빛 기름을 그녀의 피부에 바르며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펼치게 하고는 손가락으로 쿠션 가장자리를 꽉 잡도록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다가 빛나는 금빛 물감을 묻혀 그녀의 젖꼭지에 색칠을 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말을 할 수 없었다. 입술에도 색이 칠해졌다. 그리고 정교한 솔로 그녀의 눈과 눈썹에도 금빛 화장이 이루어졌다. 커다란 보석 귀걸이를 보여주더니 그들은 그녀의 귀를 뚫고 웃음을 지어보였다. 귀걸이가 타는 듯이 아픈 귀에 걸려졌으나, 그 고통은 다리가 벌어지고 형형색색의 과일을 담은 그릇이 그녀의 몸위로

다가오자 사라져버렸다.

조그마한 그물 망사가 그녀의 음부에서 벗겨지고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의 성기를 애무하고 쓰다듬었다. 그 때 그녀는 맨 처음 그녀가 만났던 올리브 색 피부를 한 잘 생긴 시종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시종이 틀림없었다. 그는 과일 그릇으로부터 대추야자, 수박과 참외 조각, 조그마한 배, 검붉은 딸기 등을 꺼내 은빛 컵 속의 꿀에다가 넣었다.

그녀의 다리가 넓게 벌려지고 꿀에 묻혀진 과일들이 그녀의 음부로 들어왔다. 그녀의 잘 단련된 성기는 과일이 점점 깊이 들어오자 단단해졌고, 점점 더 숨가쁜 한숨소리가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를 사로잡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점점 밝게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밑이 과일로 꽉 채워졌다. 그녀는 과일이 부풀어 오른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잘 익은 포도 한송이가 그녀의 다리 사이에 놓여졌다. 흰 꽃가지가 그녀의 입술사이에 물려졌고 부드럽고 연한 꽃잎이 그녀의 뺨과 턱에 살며시 닿았다. 겨드랑이 밑도 꿀로 진하게 칠해졌다. 그리고 통통한 대추야자가 그녀의 배꼽 위에 올려졌다. 보석 팔찌가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긴장이 고조될수록 베개 위에서 요동을 쳤다. 그녀는 자신이 놀라운 장식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를 체포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보물을 다루듯 그녀는 커다란 쿠션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그녀가 층계로 올려질 때 더욱 크게 음악소리가 났다. 많은 과일로 채워진 그녀의 성기에서 꿀과 즙이 뚝뚝 떨어졌다. 금빛 물감은 그녀의 젖꼭지를 메마르게 했고 피부를 당기게 만들었다. 그녀의 육체 곳곳에서 새로운 자극이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러운 빛이 흐르는 커다란 방으로 다시 옮겨졌다. 향내

가 사람을 취하게할 정도였다. 템버린 소리와 하아프 소리 그리고 이름모를 악기들의 높은 금속성 소리가 가득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작은 거울, 빛나는 염주,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는 커텐에는 정교한 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마루 위로 내려졌다. 고개를 들어 보았다. 왼쪽에는 악사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새로운 주인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연회석을 차려놓고 비단으로 수를 놓은 옷과 터번을 두르고 그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며 가끔씩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쿠션의 가장자리를 꼭 잡고 성과 마을에서 배운 대로 다리를 잘 벌리고 베개 위에서 꿈틀거렸다. 그러나 시종들이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 내가 다시 이렇게 낯선 세상에서 살게 되다니' 그녀는 생각했다. 과일이 그녀의 열기에 찬 성기 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엉덩이가 비단 쿠션 위에서 흔들리자, 귀걸이도 따라서 흔들렸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검은 터번을 두른 귀족들 중 한 사람이 유난히 자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 긴 금사슬이 달려 있는 보석 족쇄에 목이 채워진 채 또 다른 노예가 기어들어왔다. 트리스탄이었다. 그도 역시 금빛 기름이 칠해졌고 젖꼭지가 번쩍거렸다. 굵은 음모들은 빛나는 조그만한 보석들로 점점이 장식되어 있었고, 발기된 음경은 금빛 광채로 번쩍거렸다. 귀에는 귀걸이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가운데를 갈라 금빛 가루를 뿌려놓았다. 눈과 눈썹 그리고 입도 선명하게 화장이 되어있었다.

그가 뷰티 쪽으로 인도될 때 그의 입술은 반쯤 웃고 있었다. 그는 전혀 슬프거나 두려워 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를 인도하는 시종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즐겁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검은 피부를

한 시종이 그를 눌러 뷰티의 왼쪽 겨드랑이에 닿게 하자, 그는 그곳을 핥기 시작했다.

뷰티는 그녀의 살결을 그의 혀가 핥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머리카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간지르며 왼쪽 겨드랑이의 꿀을 다 핥아먹고는 오른쪽 겨드랑이로 옮겨갔다.

그녀는 트리스탄이 마치 이방의 신과 같았다. 색칠을 한 그의 얼굴은 그녀가 꿈 속에서 본 얼굴 같았고, 그의 힘센 어깨와 팔은 멋진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금사슬로 그를 묶은 시종은 그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음부에 있는 꿀 묻은 대추야자를 먹도록 하였다.

뷰티의 엉덩이와 배는 그의 입술이 닿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며 입에 물었던 꽃이 흔들거렸다. 몽롱한 가운데 그녀는 멀리 있는 시종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관능적인 동작으로 과일의 즙을 핥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질에 부드러운 압박감을 주자, 그녀는 미칠 것 같았다.

그는 포도를 다 먹고는 그의 입을 그녀의 음문에 대고 누르더니 이빨로 수박조각들을 끄집어냈다. 뷰티는 베개를 부여잡고 몸을 뒤틀었다. 그녀의 엉덩이가 높이 솟구쳤다. 그가 더욱 많은 과일을 끄집어내는 동안, 트리스탄의 입은 점점 더 깊게 음핵까지 들어와 그것을 핥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뒤틀며 온힘을 다해 그것을 그에게로 내밀었다.

방안에서 나누던 대화소리가 사라졌다. 음악소리는 낮게 리듬감을 더해갔다. 그리고 그녀의 신음소리도 점점 더 커져갔다.

트리스탄은 계속 그녀의 음부에 턱을 대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다리 사이에 흐르는 분비물을 핥고 있었고 혀는 다시 천천히 그녀

의 음핵을 부드럽게 애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붉게 충혈된 것을 알았다. 두 개의 젖꼭지는 쾌감을 느끼는 조그마한 핵심이었다. 그녀가 너무나 격렬히 요동쳤기 때문에 엉덩이가 베개에서 미끌어졌다. 그러나 트리스탄의 머리가 들려지자 그녀는 실망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쇠사슬이 당겨졌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옆으로 인도되더니 그녀의 위에 거꾸로 엎드려졌다. 그의 성기는 그녀의 입술에 닿았고 그의 입은 그녀의 음부를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들어 그것을 빨면서 뿌리까지 깊게 잡아 당겼다.

미친듯이 그녀는 그의 음경을 빨았다. 꿀과 계피의 향긋한 냄새가 트리스탄의 몸의 소금기와 섞여있었다. 트리스탄이 그녀의 사타구니 은밀한 부분을 핥자 그녀의 엉덩이는 쿠션 위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거의 울부짖듯 소리를 내며 뷰티는 성기를 빨았고, 그의 다리 사이에서 향내를 맡았다. 그녀는 그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그녀의 음핵 부분을 힘껏 빠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격렬한 오르가즘이 그녀에게 몰아쳤다. 그녀는 커다란 신음과 함께 그도 역시 절정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그들은 뒤엉켜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청중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트리스탄의 몸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낮은 목소리를 들었고, 쿠션 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층계를 내려갔다. 새장이 있는 방에서 흥분된 재잘거림이 들렸다. 시종들은 쿠션을 낮은 탁자에 내려놓으며 낄낄거리고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뷰티는 일어나 앉았고 트리스탄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팔로 그녀의 목을 감쌌고, 그녀는 그의 허리를 끌어 안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얼굴을 자기 가슴으로 당겼다. 시종들이 가까이 다가와 뷰티와 트리스탄을 쓰다듬으며 키스했다.

뷰티는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다른 노예들의 평온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납치해온 사람들은 뷰티와 트리스탄의 새장에 매달려 있는 채찍을 꺼냈다. 뷰티의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제치더니 그들은 그녀의 얼굴 앞에 채찍을 들이댔다. 그녀는 입술에 닿은 채찍에다 키스를 했다. 트리스탄도 채찍을 바라보더니 반쯤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매질이 가해졌을 때 그는 매질의 충격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그녀를 꼭 끌어 안았다. 그녀는 여주인 로클리가 가르쳤던 대로 채찍을 맞을 때 신음하면서 몸을 뒤틀었다. 주위에서 시종들의 밝은 웃음 소리가 들렸다. 트리스탄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키스를 했고 손은 그녀의 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기 몸을 그에게 점점 더 밀착시켰다. 트리스탄은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신음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새어나왔고 그의 음경은 다리 사이에서 불끈 솟아 올랐다. 그리고 굵고 축축한 끝부분이 그녀의 질 속으로 미끌어져 들어갔다. 그녀의 무릎이 쿠션에서 떨어졌다. 위로 향한 그녀의 입이 트리스탄의 입을 찾았다. 기분이 고조된 납치자들은 매질의 강도를 점점 높혔으며 트리스탄과 뷰티는 더욱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았다.

그들이 탄 배는 술탄의 왕궁을 향해 유유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 끝 -

옮긴이의 말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학이 추구하는 끝없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간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다. 특히 인간 본능에 대한 정체는 도덕과 윤리라는 관습에 가리워져 그 본모습을 드러내길 주저하였다. 그러나 인간활동의 밑바닥에는 리비도(Libido)란 성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프로이드 주장 이래, 성(性)은 문학에서 인간 내면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소재였다.

19세기 말 도덕성, 사회성을 극단적으로 부정한 심미주의에서부터 1·2차 대전 전후로 하여 문학은 비윤리적이며 사회 저항적 성격을 띠면서 한편으론 에로티시즘에 심취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권리 확장과 창작이 활성화 되는데 이러한 조류에서 〈아나이 닌〉은 20세기 초 불란서에서 주목받던 여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다. 6개 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한 〈아나이 닌〉은 초현실주의적이며 전위작가로 불란서 문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특히 〈북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를 발굴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화석의 나라〉 (원제:Beauty's Punishment)는 여성적이고 전위적인 〈아나이 닌〉의 문학성향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작이다. 중세 봉건주의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이 소설은 '뷰티'와 '트리스탄'이란 남녀 노예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직된 계급사회에서 발가벗겨진 노예들. 인간으로서 최악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인물들을 통하여, 작가는 시간과 도덕적 제약, 환경을 모두 초월하여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진 본능의 모습을 밝히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기시 되었던 인간의 성(性)을 통하여, 새디즘, 매저키즘과 같은 변태 성욕적 모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에로티시즘의 세계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진정한 본능의 정체와 삶의 쾌락과 고통을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한다.

숱한 문명의 이기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소설은 분명 신선한 충격과 인간의 본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범 두

옮긴이 소개(이 범 두)

1955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유봉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고
영문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화석의 나라

옮긴이 : 이 범 두
펴낸이 : 이 재 옥
펴낸곳 : 도서출판 혜문서관
초판1쇄 발행일 : 1992년 6월 24일
122-030/서울 은평구 대조동 218-24
전화 : 382-8808
팩스 : 382-2708
출판등록일 : 1991년 4월 25일
출판등록번호 : 2-1159

값 4,000원